

I. 서 론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청소년 문제행동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은 “일탈행동” “비행” “범죄”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면서 높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그 정확한 실태와 변화양상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소년범죄관련 통계를 매년 공표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실정법을 위배한 소년범에 국한되어 있어 처벌되지 않은 이른바 “숨은 비행”과 지위비행 등 비법률적 차원의 문제행동의 실태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행·일탈행동 관련 기존의 사회과학적 조사연구는 대부분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이론·가설검증적 접근방식을 택하여 연구결과와 경험적 일반화가 어렵고 청소년 문제행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문제행동 이론의 정립과 청소년 비행·범죄관련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의 전반적인 실태와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표를 개발하고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표집절차를 통해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1회성 조사에 머물지 않고 주기적인 반복조사를 통해 그 변화양

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과 방법을 구조화한다.

셋째, 원자료를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 연구자와 정책기관에 공개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문제행동의 각 영역별 원인과 배경, 사회적·정책적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심화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연구방향에 따라 사업 1차년도인 올해에는 국내외 선행연구·자료의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청소년 문제행동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조사표를 개발하여 전국 단위의 표집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6,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급 단위의 자계식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 선별작업을 거쳐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유효표본은 5,937명이었다.

본 보고서는 조사결과와 통계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 기초실태 보고서로서, 문제행동의 각 영역별 심화연구(“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의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3권)로 발간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문제행동의 개념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비행” “일탈행동” “범죄” 등의 용어들과 혼용되어 적절한 개념정의 없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동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규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뿐 아니라 그외 사회규범, 규칙을 어긴 행위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범죄행위를 제외한 일탈행위를 지칭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그 개념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들을 일관된 기준을 통하여 비교하거나 종합하기가 어렵고, 문제를 예측하거나 청소년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연구대상인 문제행동의 대상범위가 연구마다 다르고, 분류방식도 연구자마다 다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결과들을 일관된 기준을 통해 비교·종합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문제행동의 범위를 “선행연구에서 문제삼은 행동들과 예비조사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혹은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는)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적인 “문제행동”의 범주로서 이 중에는 문제행동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행동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 문제행동 중 상당수는 보편적으로 문제시되

는 범죄행동 이외에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규정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문제행동들 중에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규정된 것들도 있지만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선별되고 분류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대상범위와 유형분류를 위한 재검토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제행동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절차를 적용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의 범위가 결정되면, 각 문제행동을 다차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성격별로 유형화할 것이다. 이 역시 경험적 절차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2. 문제행동의 유형분류: 필요성과 제한점

1) 유형분류체계의 필요성

이미 밝혔듯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학자들에 따라, 실천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많은 이들에 의해서 유형화, 분류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유형분류체계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청소년 문제행동 대처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행동의 유형분류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행동 유형분류체계는 현상을 기술할 때,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행동의 유형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 행동의 발생원인 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 및 해결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까지도 함께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문제행동 유형분류체계는 문제행동이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즉, 한 유형에 속하는 문제행동을 행한 개인이나 집단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및 발전과, 현재의 문제행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문제행동 유형분류체계는 문제행동의 원인, 현상, 예측,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등과 관련된 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개념을 제공한다. 우리가 특정 문제행동을 면밀히 기술하거나 다른 문제행동으로부터 구별할 수 없다면, 그 문제행동에 대해 이해하거나 연구할 수 없다.

어떤 유형의 문제행동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활동은 그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선행사건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그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문제행동 유형분류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정보를 추출, 종합하기 위한 연구, 예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 등과 같이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형화하는 작업은 특정 시기의 각 지역별 청소년의 생활 및 문제를 비교하게 하거나, 한 지역의 청소년의 생활 및 문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도록 한다.

다섯째, 문제행동 분류체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문제행동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해결 접근방식, 예방 및 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 더욱 실효성 있고 적절한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개별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행동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불가능하거나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데 반해, 문제행동의 유형별 접근은 더욱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대책 논의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문제행동 유형분류체계는 문제행동을 해결하는 데 이미 사용해 본 방법들이나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상황에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어떤 문제행동 유형을 구성하는 조건들이 분류되고 각 유형별 문제행동의 발전패턴과 특정한 방법의 효과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 앞으로 적용될 해결접근 방식의 종류나 순서 등이 구체화될 수 있다.

일곱째, 분류하는 일 자체는 비록 겉으로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분류 체계에 내포되어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분류기준, 분류 당시 고려된 사항과 조건들은 문제의 근원에 대한 귀인 방법을 보여주며, 그러한 귀인 방법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고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분류는 이 분야의 연구가 보다 다양화되고 심화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은 문제행동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 역시 문제행동의 성격에 따라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했던 것처럼 청소년 문제행동을 분류하지 않고 “문제행동”이라는 전체 범주만을 고집하거나 일관성 없이 막연한 분류체계에 의존하게 되면, 각 문제행동별로 구체적인 원인을 탐색하거나 각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방안들이 막연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막연하게 반복되는 연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을 분류하고 각 문제행동 유형별로 그 원인과 대책이 탐구되면, 이 분야의 연구는 보다 다양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2) 유형분류체계의 제한점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행동들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로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문제행동을 억지로 구별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혹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문제행동을 다른 문제로 분류하게 되어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또한 문제행동의 원인탐색 및 대책 수립에 있어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은 개개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개별 문제행동의 다양한 발생동기 및 원인이 무시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집단에 적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또 한가지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은 낙인화의 문제이다.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문제행동을 행한 청소년들을 특정 유형 안에 분류하게 됨으로써,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경증과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 문제행동 유형 속에 속한다는 낙인을 찍게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가능성 있는 청소년

년들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행동을 유형화하는 것에는 이러한 제한점들이 존재하나, 그러나 좀 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행동의 유형화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제시한 청소년 문제행동 분류체계가 가질 수 있는 제한점들 중에는 분류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제한점도 있지만, 분류행위 그 자체보다는 분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제한점들도 있다. 앞서 밝혔듯이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분류체계는 연구자가 아무런 경험적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분류를 위한 분석도 다분히 즉흥적이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서 가급적 객관적이고도 균형감을 가지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적 검토과정을 거쳐 보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분류체계를 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3. 새로운 분류체계: 기본시각

본 연구는 일회성 실태조사가 아닌 주기적으로 반복 조사되는 실태조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범위를 설정하고 문제행동의 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일정한 조사표와 분류체계를 돕으로서 다년간에 걸쳐 일관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행동의 변동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 실태조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체계화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적용한 대표적인 문제행동의 범주 및 분류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1> 선행연구의 문제행동 분류방식

연구자	유 형	하위 문제행동
남정자 (1990)	폭력비행	타인에 대한 시비, 금품갈취, 타인구타, 아동구타, 흉기소지
	패락비행	여성화물, 혼성캠핑, 남녀혼숙, 이성과의 성관계, 사창가 출입
	가출비행	무단결석, 가출, 학교로의 부모호출
	반항비행	등록금 유용, 근신경고치분, 정학 또는 퇴학, 부모 및 교사 구타
	지위비행	늦은귀가, 흡연, 음주, 노름, 주먹싸움, 켄닝, 음란비디오보기, 미성년자불가 영화 관람, 술집 출입
	약물비행	본드, 산나 사용, 환각제 사용, 마리화나 흡연, 히로뽕 사용
	재산비행	만원이상 물건 절도, 상점물건 훔침
김선남 (1994)	폭력비행	패싸움, 공공기물파괴, 협박, 금품갈취, 타인 물건파손
	성비행	강간, 이성화물, 이성과 성관계
	반항적 비행	무단가출, 부모에게 반항, 선생 또는 웃어른에게 대들기
	학업비행	켄닝, 등록금 유용, 무단결석
	지위비행	담배, 술, 디스코, 다방, 술집, 당구장 출입, 노름, 음란비디오 보기, 음란서적 읽기

연구자	유 형	하위 문제행동
심용철 (1992)	폭력비행	폭력서클 가입, 폭행, 공공기물파괴, 패싸움, 흥기소지, 공공기물파괴
	성비행	강간, 음란전화, 남녀혼숙, 사창가 출입, 이성과 성관계, 음란비디오 관람, 길가는 여성 희롱, 음란서적 읽기
	지위비행	무단결석, 부모에게 반항, 부모에게 거짓 말하기, 무단기출, 흡연, 음주, 술집출입, 컨닝, 당구장 출입, 관람복가 극장 출입, 디스코장 출입
	약물사용 비행	환각제나 본드사용
	재산비행	타인물건파손, 주거침입 절도, 금품갈취, 돈내기 도박, 만원 미만 절도
남재봉 (1992)	폭력비행	부모구타 및 위협, 학생 미성년자 구타 및 위협, 어른 타인 구타, 패싸움, 흥기소지
	성비행	매춘, 강압적 성관계 또는 시도
	질서비행	여성희롱, 음란비디오, 음란전화, 무임승차, 공공장소에서 소란, 노름, 컨닝, 무단결석
	지위비행	담배, 술집에서 음주, 술집 이외에서 음주, 디스코장 출입, 당구장 출입, 관람복가 극장 출입, 무단기출
	마약비행	대마초, 환각제, 본드 흡입
	재산비행	장물: 매매나 보관 손괴: 가족성원 물품 고의적 파손, 학교물품 고의적 파손, 타인 물건 고의적 파손 절도: 음식, 물건대금 지불 안함, 가족의 돈이나 물품 훔치기, 학교에서 타인 돈/물품 훔치기, 만원이하 훔치기, 만원 이상 훔치기, 타인의 집 침입 절도
김준호 · 박정선 (1993)	지위비행	유흥장 출입, 음주, 흡연
	폭력비행	패싸움, 흥기소지, 뺑뺑기
	재산비행	물건훔치기
	약물비행	본드, 환각제 사용
	성비행	이성과의 성관계
김동일 (1993)	지위비행	흡연, 귀가시간 어기기, 어른에게 반항하기
	폭력비행	패싸움, 공공기물파괴, 폭력행위
	약물비행	가스, 본드 사용
김준호 · 박해광 (1994)	경비행	음주, 흡연, 늦은 귀가, 술집출입
	중비행	동료급 유용, 폭행, 패싸움, 가출, 환각제 복용
	성비행	강간, 사창가 출입, 퇴폐이발관 출입
김준호 · 이동원 (1996a)	지위비행	소주방출입, 컨닝, 학교수업 때먹기, 가출, 불량써클 가입
	폭력비행	패싸움
	재산비행	물건훔치기
	약물비행	흡연, 음주, 본드, 가스, 환각제
	성비행	애인과 성관계, 돈주고 성관계, 강제적 성관계

연구자	유 형	하위 문제행동
김준호·이동원 (1996b)	지위비행	술마시기, 비디오방가기, 흡연, 성관계
	폭력비행	폭행, 돈뺏기, 폭주족, 자동차손상
	재산비행	물건 훔치기
	도파비행	본드/가스, 환각약품, 가솔, 무단결석
송정부 (1992)	폭력적 문제행동	흥기소지, 싸움
	성적문제행동	불순이성교제, 남녀혼숙, 부녀화롱
	풍속적 문제행동	음주, 흡연, 불건전오락, 유흥장 출입
	퇴행적 문제행동	가솔, 불량교우, 불량집단가입, 환각물결소지
	금전적 문제행동	절도, 도박, 금품탈취
문용린 (1994)	재산형 문제행동	부모속임, 절도, 강도, 노름
	폭력형 문제행동	전화폭언, 폭행, 흥기소지, 집단싸움, 공공기물 파손
	은둔적 문제행동	음주, 흡연, 약물복용
	성적 문제행동	사창가출입, 성관계, 음란물 소지
	비열한 문제행동	컨닝
고성혜 (1995)	지위비행	밤거리 배회, 유흥업소 출입 및 아르바이트, 음주, 흡연, 가솔, 외박, 컨닝, 미팅하기, 염색, 화장 등
	폭력비행	폭력써클 가입, 금품갈취, 학생 구타 및 위협, 부모 및 교사 구타 및 위협, 흥기소지, 시비걸기, 공갈 및 협박, 패싸움
	약물비행	본드, 부탄가스, 각성제, 신경안정제, 대마초 사용
	성비행	음란전화, 혼성캠핑, 이성 화롱, 이성과의 성관계, 음란서적, 음화소지, 음란비디오 보기
	재산비행	물건훔치기, 지불 않고 구매하는 행위, 집안물건 내다팔기, 장물매매행위, 타인의 재물파손, 학교 기물파손, 사회공공 기물파손(유리창, 공중전화 등)
	질서비행	오토바이 폭주, 무면허 운전, 타인의 차 운전행위, 기초질서 위반, 감문 불응, 도주, 무임승차, 무단 침입, 공공장소에서 소란행동
이성용 (1985)	공공질서비행	컨닝, 성관계, 가솔, 수업 방해, 무단결석
	피해자 없는 비행	흡연, 음주, 금지장소 출입
	폭력비행	구타, 물건파괴, 협박
	재산비행	절도, 사기
이태원 (1992)	사소한 비행	흡연, 음주, 금지장소 출입, 도박, 음란비디오 시청, 컨닝
	폭력성 비행	구타, 패싸움, 흥기소지, 가솔, 약물남용
	재산비행	주거침입, 공공기물파괴, 사적기물 파괴, 친구돈 물건 갈취, 중한 절도, 경한 절도
	성비행	여성화롱, 여성추행, 성관계, 혼숙
	지위비행	관람불가 영화관람, 금지장소 출입
김성민 (1994)	대인비행	폭행, 집단 패싸움, 폭력써클 가입, 흥기소지, 금품 탈취
	재산비행	등록금 유용, 절도, 기물파괴
	공공질서 비행	컨닝, 부모, 교사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돈내기, 도박, 가솔
	피해자 없는 비행	음화 및 음란비디오 관람, 이성과의 성관계, 환각제 사용

연구자	유 형	하위 문제행동
문은영 (1993)	집단적 비행군	음란서적, 음란비디오 소지 및 관람, 불량교유 접촉, 심한 폭행, 기물 파손, 전닝, 물건 훔치기, 돈내기 도박
	사소한 문제행동군	오락실 출입, 거짓말하기, 욕하기, 장난전화걸기, 어른에게 대들거나 반항, 귀가시간 어기기
	물질남용 및 외모관련 비행군	요란한 몸치장, 이상한 옷차림, 야한 옷차림, 파마나 염색,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등
	향락업소출입 및 성관련 비행군	나이트, 록카페 출입, 당구장, 성폭행, 이성과 동거경험, 성관계, 음란전화 걸기
	유흥업소 출입 비행군	호프집, 다방-카페 출입, 패싸움, 돈유용 경험
	가족 및 학교 이탈 비행군	수업태만, 무단결석, 외박, 가출

기존의 연구들이 적용한 대표적인 문제행동의 범주 및 분류방식의 특징과 본 연구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다룬 문제행동의 대상범위가 연구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문제행동의 종합적 실태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특정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원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가설검증이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자의 연구관심에 따라 연구대상 문제행동의 수와 범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는 소위 문제행동 전체를 통칭하는 “비행”이나 “문제행동”의 원인을 일관성 있게 탐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준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문제행동의 빈(정)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목적이 있으므로 가급적 선행연구에서 다룬 문제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인 조사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과거의 선행연구들이 다룬 문제행동들이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들 중 상당수를 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청소년 문제행동은 현실공간이외에도 가상공간(virtual space)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던 자살사이트 문제, 자퇴사이트 문제 등은 모두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진 문제행동들이다. 특히 현재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문제행동이라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행동을 문제행동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다루어온 청소년 문제행동들 중에는 현재에는 객관자(성인)나 당사자(청소년)모두 혹은 두 부류 중에 어느 한 부류가 문제행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문제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앞의 표에 제시된 문제행동들 중 청소년들의 표현적 행위(복장, 두발상태, 장신구 착용 등)에 대한 문제성 판단이 과거와 현재간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만일 당사자나 객관자 모두 특정 행동이 문제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관성적으로 특정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다루고 있다면, 이는 연구자의 편견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규범적 문제행동은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그 문제성 여부의 판단이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범위는 연구자의 독단적 판단보다는 경험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들 중 상당수의 것들은 사회현상과 문화의 변천에 따라 혹은 역사적 사건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단순한 청소년의 독특한 문화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분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같은 행위를 두고 그 분류가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변화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분류 및 유형화는 정기적인 경험적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 문제행동 연구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다루어온 문제행동들에 대해 실제로 관찰자와 행위자 모두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문제행동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넷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행한 문제행동의 범위와 분류가 지극히 성인 중심이고, 연구자 중심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행 문헌 및 연구들은 특정행위들이 객관자(성인)나 당사자(청소년)에 의해 문제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확인과정 없이 그 이전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문제행동을 토대로 문제행동의 대상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규범적 문제행동” 유형에 속하는 문제행동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신분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많으며, 문제행동 중 상당수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문제행동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 문제행동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만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다. 만일 특정의 행동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객관자인 성인간에 문제성 여부의 판단이 다르다면,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문제행동과 관련된 세대갈등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의 지도와 대처방식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행위의 문제성 여부를 놓고 당사자와 객관자간에 의견불일치가 존재할 때, 본 연구가 어느 편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문제행동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는 문제성 여부를 놓고 두 계층간에 서로 갈등하는 문제행동과 두 계층 모두 합의하는 문제행동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실제로 청소년 문제행동 빈도와 관련되는 방식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일부 선행연구들이 문제행동을 경험적으로 유형화하고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요인분석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유형화하고 분류할 때 요인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요인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된 실제 문제행동 빈도를 분석자료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방법에 의존하여 문제행동을 유목화한다는 데 있다. 두가지 행위가 실제의 발생빈도에서 서로 깊은 관련성(합치도)을 가진다고 해서 그 두가지 행동을 같은 성격의 하나의 문제행동 영역으로 분류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문제행동 분류체계들을 종합/분석하여 보다 타당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섯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문제행동을 분류할 때 적용한 기준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다른 분류기준들이 단일차원에서 혼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마다 문제행동 분류영역의 용어가 다르고, 설사 같은 영역들간에도 그 영역에 포함되는 단위행동 목록들도 서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한 단위연구에서 문제행동을 분류할 때에도 전혀 다른 성격의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문제행동의 분류가 일관성 없고 논리적이지 못한 것은 문제행동을 분류할 때 단일차원에서 서로 그 성격이 다른 여러가지 분류기준들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의 표에서 이태원(1992)과 문은영(1993)이 제시한 문제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일차원적 분류체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심각성 기준”(경비행, 사소한 비행, 사소한 문제행동군, 중비행 등)과 “행동의 성격기준”(재산비행, 성비행, 폭력비행 등), 그리고 “행위자 기준”(지위비행 등)을 혼용하여 문제행동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마치 길이를 재는 데 있어 인치자와 센티미터 자를 혼용하는 것과 같다.

특히 문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 행위의 심각성 기준(경비행, 중비행 등)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선행연구에서 행위의 심각성이 연구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거에서 특정 문제행동을 가벼운 것으로 혹은 중한 것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반사회에서 흔히 “경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들(예컨대, 거리에 담배꽁초 버리기, 침뱉기, 질서 교란행위 등)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회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행동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행위들을 가벼운 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행동을 “경비행” “중비행”으로 분류하는 인식 자체가 특정 부류의 청소년 문제행동을 가벼운 것으로 보고 다른 행동들은 중히 다스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특정 행위 발생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사회에서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죄질을 가리지 않듯이, 청소년 문제행동도 그 행동결과만을 놓고 문제의 경중을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서 심각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

이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문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 다차원을 적용하고, 각 차원내에서는 단일한 분류기준을 둠으로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제행동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문제행동 분류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차원적 분류체계와 각 차원별 분류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구체화된 분류체계는 제Ⅲ장 제2절 및 제Ⅳ장 제1절 참조).

- 분류차원 1: 행위의 발생 공간별 - 가상공간/현실공간
- 분류차원 2: 적용 행위자별 - 법률적 문제행동/규범적 문제행동
- 분류차원 3: 행위의 속성별 - 성관련/폭력관련/재산 및 권리침해관련/약물관련/반항 및 반사회적 행위관련/표출 및 표현행위 관련/유해업소 출입관련.

앞으로 특별한 수정 없이 지속적인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이면서도 표준화된 청소년 문제행동 조사지(설문지)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문제행동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II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2001년 조사시점 현재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청소년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보다는 신분(중·고교생)에 의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현행 법체계상으로 단일화된 청소년 연령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연령기준들이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수행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만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양자의 연령기준에 따를 경우 초등학생과 대학생까지 청소년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된 청소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상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은 중·고등학교의 학령기(만 13세~18세)에 해당하는 사회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비행·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서는 대학생과 초등학생은 논외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중·고교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경우 나이가 통상적인 교급별 학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18세의 대학생과 19세의 고교생)에는 나이보다는 신분(고교생인가 대학생인가의 여부)이 “청소년”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의 개념정의를 중·고교생으로 한정했을 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이른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진학율 통계(2000년 진학률: 중학교 99.9%,

고등학교 99.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질병이나 가사상의 이유로 일시적인 학업중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엄밀한 의미의 “취업” 또는 “무직” 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의 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크게 배경변인과 문제행동 실태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배경변인은 교급 이외에 연령, 성, 거주지의 권역, 거주지의 지역 규모 등 인구생태학적 변인과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생활수준 등 가정 환경 변인으로 구성된다. 조사결과의 분석에서는 이들 기초 배경변인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지역” “계층” 변인을 조작적으로 재구성하여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문제행동 실태 영역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두 52가지의 문제행동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조사항목 선정 방법·절차는 제IV장 제1절 “문제행동의 유형분류” 참조). 선정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 ① 행동허용도(각 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단계별 5점 척도)
- ② 지금까지의 행동경험 여부(“있다” “없다”의 2점 척도)
- ③ 최근 1년간 행동경험 빈도(단계별 5점 척도)
- ④ 행동의 타인인지도(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가의 여부, 3점 척도)
- ⑤ 행동의도(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가의 여부, 3점 척도) 등을 질문하였다.

조사항목 선정의 기준과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인터넷관련 문제행동의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문제행동”으로 지칭하고 현실세계의 문제행동과 구분한 뒤, 다시 현실세계의 문제행동을 법적 처벌과 제재의 유무를 기준으로 규범적·법률적 문제행동의 두가지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문제행동의 범주는 “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문제행동”(이하 “사이버 문제행동”으로 표기)의 세가지로 설정되었다.

둘째, 위의 세가지 범주에 따라 선행연구의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각 범주별 문제행동 항목의 목록을 작성하고 최종 조사대상 항목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항목 선별의 행동 자체의 도덕성·규범적 성격에 대한 고려는 유보하고, 행동의 일반화 정도·사회적 관심의 수준, 사회심리학적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행동일 경우에도 그 행위의 공간이 현실세계와 가상현실 공간으로 구분될 경우 별도의 문제행동 항목으로 설정하였다(예, 규범적 문제행동의 “음란/포르노물(비디오·만화등) 열람”과 사이버 문제행동의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등).

이상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제행동 항목은 규범적 문제행동 26개 항목, 법률적 문제행동 12개 항목, 사이버 문제행동 14개 항목이다. 각 범주별 항목구성과 조사문항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11-1> 규범적 문제행동의 항목과 조사문항

문제행동 항목(약칭)	조사 문항
흡연	담배를 피우는 것
음주	술을 마시는 것
성인용 노래방 출입	성인전용 노래방을 이용하는 것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디스코텍/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것
술집 출입	성인용 술집(호프집/단란주점 등)을 이용하는 것
비디오방 출입	비디오방을 이용하는 것
사창가 배회	사창가를 배회하는 것
음란/포르노물 열람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폭력/잔혹물 열람	성인용 폭력/잔혹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머리 염색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
짙은 화장	짙은 화장을 하고 외출하는 것
귀걸이 착용	귀걸이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
과도한 다이어트	체중조절을 위한 특수식품/약 복용 또는 끼니 굶기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심한 말다툼	다른 사람과 심한 말다툼을 하는 것
용돈 유용	부모님께 거짓으로 용돈을 타서 사용하는 것
가족 돈/카드 유용	부모님이나 가족의 돈/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는 것
컨닝	시험볼 때 컨닝하는 것
무단결석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것
무단외박	부모님 허락없이 밖에서 자는 것
부모에 대한 반항	부모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교사에 대한 반항	선생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가출	가출하는 것
친구따돌리기(왕따)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왕따)
자살 시도	자살을 시도하는 것

<표 111-2> 법률적 문제행동의 항목과 조사문항

문제행동 항목(약칭)	조사 문항
이성과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버스/지하철등에서 이성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
성매매	이성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
강제적인 성관계	이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
폭행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
패싸움 참여	집단 패싸움에 참여하는 것
상점 절도	백화점/가게 등 상점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타인 금품 절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금품 갈취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뺏는 것
공공기물 파손	학교/공공장소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것
공공장소 소란행동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
환각성 약물 복용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는 것
마약 복용	대마초/엑스타시 등 환각성 마약을 흡입하는 것

<표 111-3>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문제행동 항목과 조사문항

문제행동 항목(약칭)	조사 문항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하는 것
음란대화 시도	채팅/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
음란성 게임	음란한 내용의 게임을 하는 것
폭력성 사이트 열람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폭력성 게임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게임을 하는 것
온라인 욕설/폭언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불법 소프트웨어를 입수하여 사용하는 것
온라인 스토킹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다른 사람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사용하는 것
웹사이트 해킹	다른 사람의 컴퓨터/웹사이트를 고의로 해킹하는 것
허위정보 유포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
바이러스/스팸메일 발송	고의로 바이러스/스팸메일(폭탄메일)을 발송하는 것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자살/폭탄제조 등 반사회적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인터넷 과잉몰입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받을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하는 것

3. 조사의 방법

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학급단위의 집단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본 조사의 표본은 다단층화집락추출법(multi-stratificated cluster sampling)에 의해서 선정되었다. 층화의 범주는 성, 교급계열, 지역권역 및 지역규모의 네가지 이다. 각 범주별 하위집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표집을 위한 층화의 범주 및 하위집단 구성

층화범주	하위집단 구성
성	남
	여
교급 계열	중학생
	일반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지역 권역	서울
	경인권(인천·경기)
	충청·강원권(대전·충남·북·강원)
	전라권(광주·전남·북·제주)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규모	서울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구 10~50만 도시
	인구 10만 미만 지역

표본의 크기는 전체 모집단인구(3,742,325명: 2001 교육통계연보)의 약 0.16%에 해당되는 6,000명으로 설정하였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최종 조사대상 학교와 학급을 선정하였다.

전국을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5개 권역(지역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다시 도시규모에 따라 5개 범주(지역규모)로 층화하였다. 이에 따라 총 21개의 조사지구가 설정되었는데, 최종 표본수의 배분과 조사지점의 결정은 지역규모에 따라 두가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먼저, 서울·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조사지구내 교급별 모집단 인구에 비례하여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성별 구성은 모집단 인구와 관계없이 1:1로 표집). 조사지점은 해당권역내에서 행정구역·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사자가 유의 선정하였고, 조사지점별로 표집인원이 30명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10만 미만 지역 포함)의 경우 해당 조사지구내 주민등록인구를 기준(계획 표집인원 $\times$ 전체인구/해당지구내 주민등록인구)으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교급별 구성은 전국 통계기준 적용, 성별 구성은 1:1로 표집). 조사지점은 해당권역내에서 행정구역·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사자가 유의 선정하였고, 조사지점별로 표집인원이 25명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표본 배분에 있어서 두가지 기준을 혼용한 것은 표집의 기준이 되는 모집단(전국 중·고교생)의 인구가 거주지가 아닌 학교소재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소도시·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웃한 대도시로 통학하는 청소년은 학교소재지인 대도시의 학생인구로 분류되어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일수록 과소표집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조사대상이 된 학교 수는 총 85개 학교였다. 배포된 총 6,300매의 조사표 중 회수된 유효표본 수는 5,937매로서 전체 회수율은 94.2%였다.

조사결과와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의 유의도 수준은 95%, 99%, 99.9%의 세가지로 구분하였고 모든 통계표에서 각각 $*(p<0.05)$, $** (p<0.01)$, $*** (p<0.001)$ 의 표식을 사용하였다.

4. 표본의 특성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5,937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4.0%, 일반계 고교생이 35.8%, 실업계 고교생이 20.2%로서 실제 모집단 인구구성(각각 48.2%, 33.2%, 18.6%; 2001 교육통계연보)에 비해 중학생이 과소표집되었다.

<표 III-5> 표본의 구성- 교급별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중학교	2,612	44.0
일반고	2,123	35.8
실업고	1,196	20.2

주: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표본에 기초하여 산출한 수치임. 이하 동일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52.8%로서 여자(48.0%)에 비해 다소 많은 편으로서 실제 모집단 인구구성(남자 51.5%, 여자 48.5%; 2001 교육통계연보)와 거의 일치하였다. 나이(만나이)는 12세에서 19세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전체 표본의 평균연령은 15.3세였다.

지역권역별로는 경인권이 24.0%로서 가장 많았고, 경남권이 11.5%로서 가장 적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서울(21.1%)과 광역시(27.0%)가 전체의 약 절반을 점유하였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13.3%)가 가장 적었다.

<표 111-6> 표본의 구성- 인구학적 변인별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전 체		5,937	100.0
성	남자	3,086	52.0
	여자	2,848	48.0
만나이	12	135	2.3
	13	637	10.8
	14	985	16.7
	15	1,071	18.1
	16	1,673	28.3
	17	1,226	20.8
	18	174	2.9
	19	7	0.1
지역권역	서울	1,250	21.1
	경인권	1,422	24.0
	충청·강원권	758	12.8
	전라·제주권	1,074	18.1
	경북권	742	12.5
	경남권	685	11.5
지역규모	서울	1,247	21.0
	광역시	1,602	27.0
	50만 이상	730	12.3
	10~50만	1,556	26.2
	10만 미만	796	13.4

가정의 계층관련 변인에서는 먼저 학력별로는 대학졸업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부친이 26.7%로서 모친(13.4%)의 두 배에 달하였다. 부친의 직업 분포는 자영업이 19.0%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행정직(18.1%), 생산·기능직(18.1%), 기술직(12.3%) 등의 순이었다. 모친은 전업주부가 전체의 절반 가량(48.9%)을 차지하였고, 농·어업 종사자가 9.6%, 기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41.1%였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정의 생활

수준은 “중간 수준”이라는 응답이 68.0%로서 가장 다수였고, 중간보다 못 사는 편이라는 응답(19.3%)이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12.6%)보다 많은 편이었다.

<표 111-7> 표본의 구성- 계층변인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부친의 학력	중졸 이하	1,043	18.8
	고졸	2,828	50.8
	전문대졸	208	3.7
	대졸(4년)	1,196	21.5
	대학원졸	287	5.2
모친의 학력	중졸 이하	1,367	24.5
	고졸	3,326	59.6
	전문대졸	143	2.6
	대졸(4년)	656	11.8
	대학원졸	90	1.6
부친의 직업	무직	192	3.4
	가사활동	110	2.0
	농어업	541	9.6
	경영관리직	375	6.7
	사무행정직	1,017	18.1
	교육자	136	2.4
	전문직	148	2.6
	기술직	692	12.3
	자영업	1,064	19.0
	서비스직	102	1.8
	판매영업직	219	3.9
	생산기능직	1,018	18.1
모친이 하는 일	가사활동·무직	3,037	48.9
	농어업	343	6.0
	기타 취업	2,342	41.1
주관적인 생활수준	매우 못하는 편	160	2.7
	중간보다 못하는 편	983	16.6
	중간 수준	4,020	68.0
	중간보다 잘사는 편	689	11.7
	매우 잘사는 편	56	0.9

IV. 조사의 결과

1. 분석의 틀

1) 문제행동의 유형분류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분석을 위하여 문제행동 항목에 대한 유형화작업을 시도하였다. 유형화의 방식은 각 문제행동 항목에 대한 행동허용도 응답결과를 요인분석한 뒤 산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항목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방식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른 기존의 분류방식과는 달리 행동의 주체인 청소년의 시각에 기초한 분류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행동허용도는 조사대상이 된 52개 문제행동 항목에 대하여 단계별 5점 척도(“아주 나쁘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전혀 나쁘지 않다”)로 조사되었는데, 요인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주성분분석, 고유치 1 이상, 직교회전).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요인은 모두 8가지였는데, 요인 II, V, VI은 모두 “규범적 문제행동”에 속하는 항목들이었고, 요인 I, VII, VIII은 “친구따돌리기” “자살 시도”의 두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법률적 문제행동”에 속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요인 III, IV는 “폭력/잔혹물 열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이버 문제행동”에 속하는 문제행동 항목이었다.

<표 IV-1> 문제행동 행동허용도의 회산된 요인행렬표

		1	2	3	4	5	6	7	8
I	타인 금품 절도	.803							
	타인 금품 감춰	.793							
	상점/백화점 절도	.782							
	공공기물 파손	.663							
	폭행	.645							
	폐싸움 참여	.608							
	공공장소 소란행동	.567							
II	친구따돌리기(왕따)	.503							
	성인용 술집출입		.759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742						
	음주		.640						
	흡연		.637						
	성인용 노래방 출입		.604						
	비디오방 출입		.596						
III	음란/포르노물 열람		.571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439						
	폭력성 게임			.775					
	폭력성 사이트 열람			.771					
	음란성 게임			.752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738					
	음란대화 시도			.654					
IV	폭력/잔혹물 열람			.565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553					
	온라인 욕설/폭언			.464					
	웹사이트 해킹				.773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759				
	허위정보 유포				.757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717				
V	온라인 스토킹				.668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582				
	인터넷 과잉몰입				.490				
	부모님에 대한 반항					.732			
	교사에 대한 반항					.692			
	용돈 유용					.611			
	무단결석					.553			
VI	무단외박					.544			
	기출					.516			
	친남					.450			
	가족 돈/카드 유용					.434			
	심한 말다툼					.423			
	귀걸이 착용						.820		
	머리 염색						.769		
VII	길은 화장						.625		
	무리한 다이어트						.406		
	성매매							.660	
	강제적인 성관계							.581	
	바스/지하철 신체접촉							.571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562	
	사창가 배회							.426	
VIII	자살 시도								.622
	마약 복용								.580
	환각약물 흡입								.559

이와 같은 요인분석의 결과는 연구진이 문제행동의 항목선정과 유형분류를 위해 사용한 세가지 영역범주(“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가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차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의 영역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항목, 행동의 특성상 다른 요인으로의 재분류가 필요한 항목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토대상이 된 행동항목과 그 조정의 결과를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I 은 “친구따돌리기”를 제외한 7개 항목이 모두 법률적 처벌대상이 되는 폭력/절도 관련 비행이라는 점에서 “폭력/절도형 비행”으로 명명하였다. “친구따돌리기”는 당초 연구진의 1차 분류안에서는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분류되었으나, 이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심한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고,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법률적 처벌의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요인 II는 모두 흡연, 음주, 유흥업소 출입 등 전형적인 의미의 지위비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구진이 분류한 “규범적 문제행동”에 해당된다. 행동의 대부분이 청소년의 학교밖에서의 유흥형 여가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II에 속하는 8가지 항목은 모두 연구진이 분류한 “사이버 문제행동”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온라인 욕설/폭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해자 없는 문제행동”이라는 점에서 “비가해형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V의 문제행동 항목 또한 모두 “사이버 문제행동”에 해당된다. 요인 III과는 달리 대부분의 행동이 온라인을 통하여 연결된 특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가해형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에서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과 “인터넷 과잉몰입”은 행동의 특성상 요인 III과 더욱 가깝다는 점에서 “비가해형 문제행동”으로

재분류하였다.

요인 V에 속하는 행동들은 모두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사나 부모, 학교와 가정의 규범, 규율에 대한 청소년기 특유의 반항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권위반항형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VI는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행동들로서 사회적 제재를 수반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가장 약한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다. 4가지 행동 모두 청소년들의 자신의 외모·신체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표출형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VII에 속하는 행동항목들은 사회규범과 법률적으로 금지된 성관련 비행이라는 점에서 “성비행”으로 명명하였다. 단, 이중에서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는 지위비행에 속하는 것으로 법률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범주에 넣기로 하였다.

요인 VIII에 속하는 “마약 복용”과 “환각약물 흡입”은 사회적 제재의 강도가 매우 높은 “법률적 문제행동”에 속하는 것으로 “도피형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자살 시도”는 당초 연구진의 분류에서는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분류되었으나 행동결과의 심각성 정도, 자살의 조력자나 방관자가 법률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범주에 그대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본 조사의 문제행동 분류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2> 본 조사의 문제행동 분류

범 주	유 형	항 목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음주
		흡연
		성인용 술집 출입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비디오방 출입방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권위반항형 문제행동	부모님에 대한 반항
		교사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무단결석
		무단외박
		가출
		친님
		가족 돈/카드 유용
		심한 말다툼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형 비행	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
		상점 절도
		공공기물 파손
		폭행
		패싸움 참여
		공공장소 소란행동
		친구따돌리기(왕따)
	성비행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사창가 배회
	도피형 비행	자살 시도
		마약 복용
		환각약물 흡입

범 주	유 형	항 목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폭력성 게임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성 게임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음란대화 시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인터넷 과잉 몰입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온라인 욕설/폭언
		웹사이트 해킹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허위정보 유포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온라인 스토킹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각 요인의 적도로서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IV-3> 문제행동 유형별 척도신뢰도

		신뢰도계수	하위항목수
진 체		0.9592	52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0.7640	4
	유홍/풍속형 문제행동	0.9056	10
	권위반항형 문제행동	0.8490	9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형	0.8950	8
	성비행	0.7556	4
	도피형 비행	0.7302	3
사이버 문제행동	비가해형 문제행동	0.9064	8
	가해형 문제행동	0.8837	6

2) 독립변인의 구성

조사결과의 분석에서 활용될 주요 독립변인은 성, 교급, 지역, 계층의 4가지이다. 이 중 지역, 계층 변인은 응답결과를 재구성하여 새롭게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지역변인은 학교소재지 지역의 인구규모를 당초 “서울”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구 10~50만 지역”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5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합하여 4단계로 재구성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의 명칭을 각각 “서울” “대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소도시”(인구 10~50만 지역), “농촌”(인구 10만 미만 지역)으로 명명하였다. 지역별 사례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IV-4> 지역 변인의 구성

(단위: 명, %)

	빈 도	비 율	비 고
서 울	1,247	21.0	
대 도 시	2,332	39.3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소도시	1,556	26.2	인구 10~50만 지역
농 촌	796	13.4	인구 10만 미만 지역

계층 변인은 “부친의 학력”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정의 생활수준” 문항의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두 변인은 각각 단계별 5점 척도(부친의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가정의 생활수준: “매우 못 사는 편” “중간보다 못 사는 편” “중간 수준” “중간보다 잘 사는 편” “매우 잘 사는 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답결과를 계량화(1~5점)하여 표준화점수(z-score)를 산출하였다. 표준화점수가 음수일 경우 1 점(하위집단), 양수일 경우 2점(상위집단)을 부여한 뒤 두 변인의 점수를 합하여 2점일 경우 “하층”, 3점은 “중간층”, 4점은 “상층”으로 계층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계층변인의 각 하위집단별 사례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IV-5> 계층 변인의 구성

(단위: 명, %)		
	빈 도	비 율
하 층	865	15.6
중간층	3,170	57.2
상 층	1,506	27.2

2. 규범적 문제행동

규범적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는 범죄 이외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시되는 유형의 문제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범적 문제행동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동과 법에는 어긋나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규범적 문제행동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기인하여 정의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이성 친구와의 성적인 행위는 서구사회에서는 문제시되지 않는 행동이나 남녀유별이라는 가치관이 주를 이루는 동양사회에서는 문제행동으로 여겨진다. 또한 과거에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행동으로 여겨졌으나 현재에는 이것은 문제행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즉, 규범적 문제행동은 사회문화,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문제행동의 속성으로 인하여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에 갈등이 항상 있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보호라는 명제하에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검토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규범적 문제행동은 “표출형 문제행동” “유혹/풍속형 문제행동”, 그리고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 단위행동은 다음과 같다.

<표 IV-6> 규범적 문제행동의 범주와 단위행동

유 형	단위행동
표출형 행동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길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유흥/풍속형 행동	음주
	흡연
	성인용 술집 출입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비디오방 출입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권위도전형 행동	부모에 대한 반항
	교사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무단결석
	무단외박
	가출
	퀵
	가족 돈/카드 유용
	심한 말다툼

1) 표출형 문제행동

가. 전체 비교

(1) 행동경험

표출형 문제행동 유형에 속하는 4가지 단위행동의 경험자 비율을 “지금까지의 행동경험”과 “최근 1년간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지금까지의 경험자 비율을 보면, 전체 청소년의 42.6%가 “머리 염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귀걸이 착용”(28.4%), “과도한 다이어트”(14.6%), “짙은 화장”(10.6%)의 순이었다.

최근 1년간 행동경험자의 비율에 있어서도 역시 “머리 염색”(30.8%) 경험자가 가장 많고, “귀걸이 착용”(23.9%), “과도한 다이어트”(12.3%), “짙은 화장”(10.6%)의 순이었다.

<표 IV-7> 표출형 문제행동 경험

(단위: %)

	지금까지의 경험	최근 1년간 경험
귀걸이 착용	28.4	23.9
머리 염색	42.6	30.8
짙은 화장	10.7	9.4
과도한 다이어트	14.6	12.3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행동경험·빈도 응답결과(5점 척도, 1~5점)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귀걸이 착용”(3.42)과 “짙은 화장”(3.09)이 3점 이상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과도한 다이어트”(2.91), “머리 염색”(2.07)의 순이었다.

“짙은 화장”은 행동경험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행동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 염색”은 행동경험자가 가장 많은 반면 경험빈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머리 염색”은 “질은 화장”이나 “귀걸이 착용”과는 달리 한번 염색을 하게 되면,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V-8> 표출형 문제행동 최근1년간 경험빈도

	경험자(%)	경험빈도	
		평균	표준편차
귀걸이 착용	23.9	3.42	1.48
머리 염색	30.8	2.07	1.06
질은 화장	9.4	3.09	1.19
과도한 다이어트	12.3	2.91	1.32

(2) 행동허용도

각 단위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단계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허용적 태도(“전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저 그렇다”)와 비허용적 태도(“아주 나쁘다” “나쁘다”)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출형 문제행동의 4가지 단위행동 중에서 “머리 염색”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이 86.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귀걸이 착용”(84.6%), “질은 화장”(64.7%), “과도한 다이어트”(45.2%)의 순이었다.

“머리 염색”과 “귀걸이 착용”은 8할 이상의 청소년들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질은 화장”과 “과도한 다이어트” 행동에 대해서도 절반 가량의 청소년들이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서,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허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9> 표출형 문제행동 행동허용도

(단위: %)

	허용적 태도비율	표출형 문제행동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귀걸이 착용	84.6	29.0	55.6
머리 염색	86.8	33.3	53.5
질은 화장	64.7	39.3	25.4
과도한 다이어트	45.2	28.6	16.6

(3) 타인인지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행동경험을 친구나 부모님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의 경우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각각 87.8%, 85.2%로 매우 높았다. “과도한 다이어트”도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77.8%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가장 응답률이 낮은 “질은 화장”도 56.3%로 나타나 표출형 문제행동의 경우 대다수 부모들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출형 문제행동이 외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응답비율을 비교해 보면, “과도한 다이어트”가 7.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질은 화장”(3.3%), “머리 염색”(2.5%), “귀걸이 착용”(1.9%)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과도한 다이어트” 외의 다른 행동들 모두 그 응답률이 5%미만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표출적 문제행동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0> 표출형 문제행동 타인인지도

(단위: %)

	아무도 모른다	알고 있다	
		친구들만	부모님도
귀걸이 착용	1.9	10.3	87.8
머리 염색	2.5	12.3	85.2
짙은 화장	3.3	40.4	56.3
과도한 다이어트	7.1	15.1	77.8

(4) 행동의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계속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행동 유형에서 “안 할 것이다”는 응답률이 3할 미만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할 것 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귀걸이 착용”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머리 염색”(45.0%), “짙은 화장”과 “과도한 다이어트”가 각 34.8%로 나타났다. 각 행동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는 청소년의 응답률이 “귀걸이 착용”은 6할 이상이었으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행동(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도 3할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짙은 화장”과 “과도한 다이어트” 행동에 대해서는 4할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IV-11> 표출형 문제행동: 행동의도

(단위: %)

	안할 것이다	모르겠다	할 것이다
귀걸이 착용	10.2	20.8	69.0
머리 염색	19.0	35.9	45.0
짙은 화장	23.8	41.3	34.8
과도한 다이어트	23.8	41.3	34.8

나. 단위행동 분석

(1) 귀결이 착용

귀결이 착용 경험(지금까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52.3%)가 남자(6.2%)보다 월등하게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37.8%)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28.9%), 중학생(23.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7%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촌(29.0%), 중소도시(27.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24.5%)가 가장 낮았다.

<표 IV-12> 귀결이 착용: 행동경험- 성·교급·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3.8	6.2
	여 자	47.7	52.3
교 급	중학교	76.4	23.6
	일반고	71.1	28.9
	실업고	62.2	37.8
지 역	서 울	63.2	36.8
	대도시	75.5	24.5
	중소도시	72.8	27.2
	농 촌	71.0	29.0

통계치: 성별 $\chi^2=1536.45^{***}$, 교급 $\chi^2=80.42^{***}$, 지역 $\chi^2=62.19^{***}$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와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4.13)가 남자(3.15)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3.83, 실업계 3.63)이 중학생(3.4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3.89)이 다른 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었다. 계층별로는 상층(3.74)이 중간

(3.60)과 하층(3.61)보다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귀결이 착용에 대한 허용도는 대체로 행동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13> 귀결이 착용: 행동허용도-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값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3.15	1.14
	여 자	4.13	0.98
교 급	중학교	3.44	1.24
	일반고	3.83	1.09
	실업고	3.63	1.11
지 역	서 울	3.89	1.17
	대도시	3.57	1.18
	중소도시	3.52	1.17
	농 촌	3.54	1.11
계 층	하 층	3.61	1.18
	중 간	3.60	1.16
	상 층	3.74	1.18

통계치: 성별 $F=1250.53^{***}$, 교급 $F=65.87^{***}$, 지역 $F=28.90^{***}$, 계층 $F=8.58^{***}$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지역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여자(73.5%)가 남자(33.9%)보다 월등히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76.2%)이 실업계 고교생(68.1%), 중학생(62.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61.4%)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귀결이 착용 행동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의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IV-14> 귀걸이 착용: 행동의도- 성·지역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33.3	32.8	33.9
	여 자	7.2	19.3	73.5
교 급	중학교	11.4	26.2	62.3
	일반고	8.2	15.6	76.2
	실업고	11.2	20.7	68.1

통계치: 성별 $\chi^2=157.82^{***}$, 교급 $\chi^2=27.38^{***}$

(2) 머리 염색

지금까지 머리 염색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지역, 계층의 4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48.9%)가 남자(36.9%)보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57.7%)이 일반계 고교생(41.5%)이나 중학생(36.6%)보다 경험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15> 머리 염색: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63.1	36.9
	여 자	51.1	48.9
교 급	중학교	63.4	36.6
	일반고	58.5	41.5
	실업고	42.3	57.7
지 역	서 울	53.2	46.8
	대도시	60.6	39.4
	중소도시	59.2	40.8
	농 촌	50.8	49.2
계 층	하 층	51.8	48.2
	중 간	57.4	42.6
	상 층	60.5	39.5

통계치: 성별 $\chi^2=86.36^{***}$, 교급 $\chi^2=149.45^{***}$, 지역 $\chi^2=34.76^{***}$, 계층 $\chi^2=16.91^{***}$

지역별로는 농촌(49.2%)·서울(46.8%)지역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경험률이 높았으며, 계층별로는 하층(48.2%), 중간층(42.6%), 상층(39.5%)의 순이었다.

머리 염색에 대한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와 평균값에 있어서도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3.71)가 남자(3.41)보다 허용도가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3.74)이 가장 높았고, 실업계 고교생(3.59), 중학생(3.39) 순으로 행동허용도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행동경험이 높을수록 행동허용도가 높게 나타나, 머리 염색에 대한 행동허용도는 서울(3.7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촌(3.53), 대도시(3.52), 중소도시(3.44)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층(3.64), 하층(3.60), 중간층(3.5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행동경험의 경우 상층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허용도 수준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상층의 경우 실제 행동은 하지 않으나 머리 염색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6> 머리 염색: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

(단위: %)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3.41	1.09
	여 자	3.71	0.97
교 급	중학교	3.39	1.12
	일반고	3.74	0.96
	실업고	3.59	0.97
지 역	서 울	3.78	1.03
	대도시	3.52	1.06
	중소도시	3.44	1.05
	농 촌	3.53	0.98
계 층	하 층	3.60	1.02
	중 간	3.51	1.04
	상 층	3.64	1.08

통계치: 성별 F=124.23***, 교급 F=66.50***, 지역 F=26.33***, 계층 F=8.99***

머리 염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 교급 2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계속 머리 염색을 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여자가 51.0%로 남자(37.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응답률이 일반계 고교생(52.3%), 실업계 고교생(45.6%), 중학생(37.7%) 순이었다. 일반계 고교생의 경우 행동경험비율은 실업계 고교생보다 낮으나 행동허용도와 행동의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IV-17> 머리 염색: 행동의도- 성 ·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24.8	37.5	37.8
	여 자	14.4	34.7	51.0
교 급	중학교	23.5	38.8	37.7
	일반고	12.8	34.9	52.3
	실업고	21.0	33.5	45.6

통계치: 성별 $\chi^2=57.29^{***}$, 교급 $\chi^2=50.73^{***}$

(3) 짙은 화장

지금까지 짙은 화장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동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2.0%)에 비해 여자가 10배 이상인 20.1%에 달하였는데, 이는 화장을 하는 행위는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19.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계 고교생(10.5%), 중학생(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4.2%)과 농촌(12.0%)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8> 짚은 화장: 행동경험- 성·교급·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8.0	2.0
	여 자	79.9	20.1
교 급	중학교	93.1	6.9
	일반고	89.5	10.5
	실업고	80.9	19.1
지 역	서 울	85.8	14.2
	대도시	89.8	10.2
	중소도시	92.2	7.8
	농 촌	88.0	12.0

통계치: 성별 $\chi^2=505.91^{***}$, 교급 $\chi^2=126.83^{***}$, 지역 $\chi^2=63.68^{***}$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교급,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3.01, 실업계 3.06)이 중학생(2.6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2.88), 대도시(2.81), 중소도시(2.78)의 순이었다.

<표 IV-19> 짚은 화장: 행동허용도- 교급·지역별

		평균	표준편차
교 급	중학교	2.63	1.11
	일반고	3.01	1.04
	실업고	3.06	1.00
지 역	서 울	3.00	1.09
	대도시	2.81	1.08
	중소도시	2.78	1.07
	농 촌	2.88	1.07

통계치: 교급 $F=99.28^{***}$, 지역 $F=11.59^{***}$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

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여자(50.6%)가 남자(36.4%)보다 월등히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56.6%)와 실업계(52.5%) 고교생이 중학생(35.5%)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IV-20> 짙은 화장: 행동의도- 성 ·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36.4	27.3	36.4
	여 자	10.3	39.1	50.6
교 급	중학교	18.1	46.4	35.5
	일반고	11.4	32.0	56.6
	실업고	9.9	37.7	52.5

통계치: 성별 $\chi^2=30.71^{***}$, 교급 $\chi^2=19.86^{***}$

(4) 과도한 다이어트

과도한 다이어트 경험(지금까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22.7%)가 남자(7.1%)보다 3배 이상 월등하게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18.0%), 일반계(16.0%) 고교생이 중학생(1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16.1%)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15.3%), 중소도시(13.7%), 농촌(10.9%) 순이었다.

<표 IV-21> 과도한 다이어트: 행동경험- 성 · 교급 · 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2.9	7.1
	여 자	77.3	22.7
교 급	중학교	88.1	11.9
	일반고	84.0	16.0
	실업고	82.0	18.0

통계치: 성별 $\chi^2=284.01^{***}$, 교급 $\chi^2=29.11^{***}$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2.67)가 남자(2.22)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2.6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업계 고교생(2.34), 중학생(2.32)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5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중소도시(각각 2.43), 농촌(2.32) 순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층(2.55), 중간(2.42), 하층(2.32)의 순으로 허용도가 나타났다.

<표 IV-22> 과도한 다이어트: 행동허용도- 성 · 교급 · 지역 · 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22	1.09
	여 자	2.67	1.14
교 급	중학교	2.32	1.16
	일반고	2.63	1.16
	실업고	2.34	1.05
지 역	서 울	2.53	1.19
	대도시	2.43	1.15
	중소도시	2.43	1.12
	농 촌	2.33	1.08
계 층	하 층	2.32	1.10
	중 간	2.42	1.12
	상 층	2.55	1.19

통계치: 성별 F=246.62***, 교급 F=46.90***, 지역 F=5.01**, 계층 F=12.39***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여자(38.5%)가 남자(23.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42.6%)의 응답비율이 중학생(30.6%), 실업계 고교생(28.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3> 과도한 다이어트: 행동의도- 성 ·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36.5	40.0	23.5
	여 자	19.7	41.8	38.5
교 급	중학교	29.9	39.5	30.6
	일반고	16.0	41.4	42.6
	실업고	27.9	43.8	28.4

통계치: 성별 $\chi^2=27.86^{***}$, 교급 $\chi^2=24.44^{***}$

다. 요약 및 특성

표출형 문제행동의 경험정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머리 염색”이 가장 많았고, “귀걸이 착용” “과도한 다이어트” “짙은 화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1년간의 경험빈도를 보면 “귀걸이 착용”이 가장 많았고 “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머리 염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머리 염색”과 “귀걸이 착용”에 대한 허용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응답에 있어서도 “귀걸이 착용”과 “머리 염색”은 가장 높은 허용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행동에 대한 타인인지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부모님도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짙은 화장”의 경우 부모님이 알고 있는 분포가 가장 낮게 나왔으며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과도한 다이어트” 등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행동에 대해 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 분포가 가장 높은 행동은 “귀걸이 착용”이었으며, “머리 염색”이 다음이었고 “길은 화장”과 “과도한 다이어트”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들 표출형 문제행동들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계층을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등과 같은 여타 하위집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표출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표출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농촌 청소년은 대도시 청소년들보다 표출적 문제행동수준이 더 높았다.

2)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가. 전체 비교

(1) 행동경험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범주에 속하는 단위행동의 경험자 비율을 “지금까지의 행동경험”과 “최근 1년간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지금까지의 경험자 비율을 보면, 전체 청소년의 68.0%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음란/포르노물 열람”(57.0%), “폭력/잔혹물 열람”(49.0%), “흡연”(33.7%),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27.2%), “성인용 술집 출입”(21.1%), “성인용 노래방 출입”(18.7%), “비디오방 출입”(11.9%),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7.7%), “이성친구와의 성관계”(5.4%)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음주와 불건전물 열람이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의 가장 보편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행동경험자의 비율에 있어서도 역시 “음주”(52.4%)경험이 가장 많고, “음란/포르노물 열람”(43.5%), “폭력/잔혹물 열람”(38.8%), “흡연”(22.6%),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24.2%), “성인용 술집 출입”(19.9%),

“성인용 노래방 출입”(17.0%), “비디오방 출입”(10.0%),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6.6%), “이성친구와의 성관계”(4.9%)의 순이었다.

<표 IV-24>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행동경험

(단위: %)

	지금까지의 경험	최근 1년간 경험
음 주	68.0	52.4
흡 연	33.7	22.6
성인용 술집출입	21.1	19.9
디스코텍/나이트클럽출입	7.5	6.6
성인용 노래방 출입	18.7	17.0
비디오방 출입	11.9	10.0
음란/포르노물 열람	57.0	43.5
폭력/잔혹물 열람	49.0	38.8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27.2	24.2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5.4	4.9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행동경험·빈도 응답결과(5점 척도, 1~5점)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성인용 노래방 출입”(3.68)이 가장 높았고, “성인용 술집 출입”(3.59),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3.48), “이성친구와의 성관계”(3.42),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2.98), “흡연”(2.92), “비디오방 출입”(2.79), “폭력/잔혹물 열람”(2.41), “음란/포르노물 열람”(2.38), “음주”(2.31)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경험자가 높은 비율을 나타나는 행동 즉, “음주”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은 행동빈도가 낮게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나 그다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이성친구와의 성관계”의 경우 행동경험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행동빈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5>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최근1년간 경험빈도

	경험자(%)	경험빈도	
		평균	표준편차
음주	52.4	2.31	1.04
흡연	22.6	2.92	1.69
성인용 술집 출입	19.9	3.59	1.31
디스코텍/나이트 클럽 출입	6.6	2.98	1.33
성인용 노래방 출입	17.0	3.68	1.41
비디오방 출입	10.0	2.79	1.30
음란/포르노물 열람	43.5	2.38	1.10
폭력/잔혹물 열람	38.8	2.41	1.08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24.2	3.48	1.43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4.9	3.42	1.40

(2) 행동허용도

각 단위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단계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허용적 태도(“전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저 그렇다”)와 비허용적 태도(“아주 나쁘다” “나쁘다”)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의 단위행동 중에서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69.9%)이 가장 허용도가 높았고, “음주”(60.1%), “비디오방 출입”(57.8%), “폭력/잔혹물 열람”(49.4%), “성인용 노래방 출입”(47.4%), “음란/포르노물 열람”(45.9%),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43.1%), “이성친구와의 성관계”(34.4%), “성인용 술집 출입”(32.7%), “흡연”의 순으로 허용도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흡연” “성인용 술집 출입”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해서 전체 청소년의 5할 정도 또는 이상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해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6>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행동허용도

(단위: %)

	허용적 태도비율	허용적 태도비율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음 주	60.1	35.8	24.3
흡 연	28.6	21.8	6.8
성인용 술집 출입	32.7	21.7	11.0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43.1	29.1	14.0
성인용 노래방 출입	47.9	30.3	17.6
비디오방 출입	57.8	34.2	23.6
음란/포르노물 열람	45.9	33.4	24.3
폭력/잔혹물 열람	49.4	34.2	15.2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69.9	38.6	31.3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34.4	22.5	11.9

(3) 타인인지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행동경험을 친구나 부모님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성인용 노래방 출입”(61.1%), “음주”(56.4%), “음란/포르노물 열람”(56.4%)의 경우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35.9%)을 제외하고 다른 단위행동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할 미만을 점하고 있어 친구들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의 경우 친구들만 알고 있는 경우가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님이 알고 있는 비율이 1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응답비율을 비교해보면, “이성친구와의 성관계”가 16.8%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14.2%)이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서 “흡연”(9.9%), “폭력/잔혹물 열람”(9.4%), “비디오방 출입”(9.2%), “음란/포르노물 열람”(3.3%), “성인용 술집 출입”(3.1%),

“음주”(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타인인지도

(단위: %)

	아무도 모른다	알고 있다	
		친구들만	부모님도
음 주	3.0	40.6	56.4
흡 연	9.9	61.8	28.2
성인용 술집 출입	3.1	67.9	28.9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5.2	58.9	35.9
성인용 노래방 출입	3.2	35.8	61.1
비디오방 출입	9.2	65.8	25.0
음란/포르노물 열람	3.3	40.6	56.4
폭력/잔혹물 열람	9.4	65.0	25.6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14.2	74.6	11.2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16.8	63.4	19.8

(4) 행동의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계속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흡연”(37.8%)과 “성인용 노래방 출입”(37.5%)를 제외하고 모든 행동에서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이 4할 이상으로 가장 다수를 점하였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성인용 노래방 출입”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인용 술집 출입”(44.0%),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42.8%),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37.8%), “이성친구와의 성관계”(33.2%), “음주”(32.7%), “비디오방 출입”(32.0%), “폭력/잔혹물 열람”(16.6%), “음란/포르노물 열람”(11.3%), “흡연”(11.1%)의 순이었다.

<표 IV-28>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행동의도

(단위: %)

	안할 것이다	모르겠다	할 것이다
음 주	22.9	44.4	32.7
흡 연	51.2	37.8	11.1
성인용 술집 출입	13.9	42.2	44.0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16.7	45.4	37.9
성인용 노래방 출입	14.5	37.5	48.0
비디오방 출입	22.6	45.4	32.0
음란/포르노물 열람	41.1	47.7	11.3
폭력/잔혹물 열람	31.8	51.6	16.6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12.5	44.7	42.8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25.9	40.9	33.2

나. 단위행동 분석

(1) 음주

지금까지의 음주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교급, 지역, 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81.4%)과 실업계 고교생(84.8%)에 비하여 중학생(49.5%)은 월등하게 낮았다. 지역별로는 농촌이 78.0%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70.2%), 대도시(65.6%), 중소도시(64.9%)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74.7%), 중간층(68.0%), 하층(66.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음주: 행동경험- 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교 급	중학교	50.5	49.5
	일반고	18.6	81.4
	실업고	15.2	84.8
지 역	서 울	29.8	70.2
	대도시	34.4	65.6
	중소도시	35.1	64.9
	농 촌	22.0	78.0
계 층	하 층	25.3	74.7
	중 간	32.0	68.0
	상 층	34.0	66.0

통계치: 교급 $\chi^2=735.42^{***}$, 지역 $\chi^2=52.24^{***}$, 계층 $\chi^2=19.86^{***}$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허용도 평균은 성별로는 여자(2.74)가 남자(2.65)보다 다소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3.16, 실업계 3.00)이 중학생(2.1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8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촌(2.83), 대도시(2.68), 중소도시(2.56)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81)이 중간층(2.68)과 상층(2.69)보다 허용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지역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남자(33.3%)가 여자(32.1%)보다 다소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44.5%)이 가장 높았고, 실업계 고교생(32.4%), 중학생(16.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6.1%), 대도시(34.6%), 중소도시(29.6%)의 순이었으며, 농촌(28.6%)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표 IV-30> 음주: 행동허용도- 성 · 교급 · 지역 · 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65	1.19
	여 자	2.74	1.10
교 급	중학교	2.18	1.10
	일반고	3.16	1.03
	실업고	3.00	0.99
지 역	서 울	2.80	1.15
	대도시	2.68	1.17
	중소도시	2.56	1.15
	농 촌	2.83	1.06
계 층	하 층	2.81	1.14
	중 간	2.68	1.13
	상 층	2.69	1.18

통계치: 성별 F=8.58**, 교급 F=563.44***, 지역 F=14.14***, 계층 F=4.82**

<표 IV-31> 음주: 행동의도- 성 · 교급 · 지역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24.2	42.4	33.3
	여 자	21.5	46.5	32.1
교 급	중학교	36.0	47.3	16.7
	일반고	15.5	40.0	44.5
	실업고	19.1	48.4	32.4
지 역	서 울	19.5	44.3	36.1
	대도시	22.3	43.2	34.6
	중소도시	26.9	43.5	29.6
	농 촌	22.2	49.2	28.6

통계치: 성별 $\chi^2=7.29^*$, 교급 $\chi^2=316.85^{***}$, 지역 $\chi^2=25.71^{***}$

(2) 흡연

지금까지의 흡연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41.4%)가 여자(25.4%)보다 월등하게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57.4%)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32.7%), 중학생(23.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4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34.2%), 서울(33.1%), 대도시(30.2%)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43.0%)이 가장 높았고, 중간층(34.0%), 상층(2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2> 흡연: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58.6	41.4
	여 자	74.6	25.4
교 급	중학교	76.2	23.8
	일반고	67.3	32.7
	실업고	42.6	57.4
지 역	서 울	67.0	33.0
	대도시	69.8	30.2
	중소도시	65.8	34.2
	농 촌	55.6	44.4
계 층	하 층	57.0	43.0
	중 간	65.7	34.3
	상 층	74.2	25.8

통계치: 성별 $\chi^2=169.47^{***}$, 교급 $\chi^2=415.89^{***}$, 지역 $\chi^2=53.87^{***}$, 계층 $\chi^2=76.02^{***}$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2.00)가 여자(1.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22), 일반계 고교생(2.15), 중학생(1.70)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2.10)지역의 허용도가 가장 높았

고, 서울(2.04), 중소도시(1.94), 대도시(1.89)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07), 중간층(1.96), 상층(1.92)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흡연에 대한 허용도는 행동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33> 흡연: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00	1.04
	여 자	1.93	0.96
교 급	중학교	1.70	0.90
	일반고	2.15	1.06
	실업고	2.22	0.98
지 역	서 울	2.04	1.04
	대도시	1.89	0.99
	중소도시	1.94	0.98
	농 촌	2.10	1.02
계 층	하 층	2.07	1.00
	중 간	1.96	0.98
	상 층	1.92	1.04

통계치: 성별 $F=7.46^{**}$, 교급 $F=172.17^{***}$, 지역 $F=12.08^{***}$, 계층 $F=5.93^{**}$

흡연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 서는 교급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중학생(6.2%)에 비해 고교생(일반계 14.6%, 실업계 11.9%)이 월등하게 높았다.

<표 IV-34> 흡연: 행동의도-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56.9	36.9	6.2
	일반고	48.8	36.6	14.6
	실업고	48.6	39.5	11.9

통계치: 교급 $\chi^2=26.80^{***}$

(3) 성인용 술집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지금까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교급, 계층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교급별로는 중학생(4.9%)과 비교할 때 실업계 고교생(36.5%)과 일반계 고교생(32.2%)이 현격하게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하층이 26.7%로 상층(20.7%)과 중간층(20.0%)이 다소 비율이 낮았다.

<표 IV-35> 성인용 술집 출입: 행동경험- 교급·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교 급	중학교	95.1	4.9
	일반고	67.8	32.2
	실업고	63.5	36.5
계 층	하 층	73.3	26.7
	중 간	79.3	20.7
	상 층	80.0	20.0

통계치: 교급 $\chi^2=731.89^{***}$, 계층 $\chi^2=16.96^{***}$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2.16)가 여자(2.0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일반계(2.45)와 실업계(2.49) 고교생이 중학생(1.6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2.22), 농촌(2.15)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23), 중간층(2.12), 상층(2.04)의 순이었다. 대체로 경험응답 비율이 높을 수록 행동허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성인용 술집 출입: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16	1.13
	여 자	2.07	1.08
교 급	중학교	1.66	0.93
	일반고	2.45	1.13
	실업고	2.49	1.07
지 역	서 울	2.22	1.13
	대도시	2.09	1.11
	중소도시	2.03	1.07
	농 촌	2.15	1.12
계 층	하 층	2.23	1.10
	중 간	2.12	1.09
	상 층	2.04	1.13

통계치: 성별 F=9.74**, 교급 F=439.77***, 지역 F=7.70**, 계층 F=8.83***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여자(45.6%)가 남자(42.6%)보다 약간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50.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왔고, 실업계 고교생(39.5%), 중학생(22.2%)의 순이었다.

<표 IV-37> 성인용 술집 출입: 행동의도- 성·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16.5	40.9	42.6
	여 자	10.8	43.6	45.6
교 급	중학교	23.9	53.8	22.2
	일반고	11.1	38.4	50.5
	실업고	15.4	45.1	39.5

통계치: 성별 $\chi^2=8.23^*$, 교급 $\chi^2=40.80^{***}$

(4)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지금까지의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교급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교급별로 실업계 고교생(13.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계 고교생(8.2%), 중학생(4.3%)의 순이었다. 각 교급별로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경험자 비율이 중학생은 일반계 고교생의 약 1/2, 실업계 고교생의 약 1/3(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8>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행동경험- 교급별

(단위: %)

		없다	있다
교 급	중학교	95.7	4.3
	일반고	91.8	8.2
	실업고	86.5	13.5

통계치: 교급 $\chi^2=100.55^{***}$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에 대한 행동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74)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2.61), 중학생(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고교생들은 중학생보다 디스코텍/나이트 클럽 출입에 대해서 더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V-39>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행동허용도- 교급·지역별

		평균	표준편차
교 급	중학교	2.01	1.06
	일반고	2.61	1.07
	실업고	2.74	1.05
지 역	서 울	2.42	1.11
	대도시	2.37	1.13
	중소도시	2.30	1.08
	농 촌	2.46	1.10

통계치: 교급 $F=272.24^{***}$, 지역 $F=4.69^{**}$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교급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교급별로 일반계 고교생(50.3%)이 가장 높았고, 실업계 고교생(39.6%), 중학생(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0>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행동의도-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26.7	58.4	14.9
	일반고	10.3	39.4	50.3
	실업고	17.0	43.4	39.6

통계치: 교급 $\chi^2=36.34^{***}$

(5) 성인용 노래방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41> 성인용 노래방 출입: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78.8	21.2
	여 자	83.9	16.1
교 급	중학교	86.4	13.6
	일반고	79.0	21.0
	실업고	74.0	26.0
지 역	서 울	81.7	18.3
	대도시	80.5	19.5
	중소도시	82.5	17.5
	농 촌	80.4	19.6
계 층	하 층	79.3	20.7
	중 간	80.8	19.2
	상 층	84.3	15.7

통계치: 성별 $\chi^2=24.36^{***}$, 교급 $\chi^2=93.42^{***}$, 지역 $\chi^2=2.95^{***}$, 계층 $\chi^2=11.84^{***}$

경험자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21.2%)가 여자(16.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6.0%)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21.0%), 중학생(13.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19.6%)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19.5%), 서울(18.3%), 중소도시(17.5%)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0.7%), 중간층(19.2%), 상층(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노래방 출입에 대한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2.76, 실업계 2.78)이 중학생(2.26)보다 상대적으로 행동허용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61)과 농촌(2.60)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행동허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66), 중간층(2.53), 상층(2.49)의 순이었다. 성인용 노래방 출입에 대한 허용도는 대체로 행동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42> 성인용 노래방 출입: 행동허용도- 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교 급	중학교	2.26	1.14
	일반고	2.76	1.12
	실업고	2.78	1.09
지 역	서 울	2.61	1.17
	대도시	2.55	1.18
	중소도시	2.45	1.10
	농 촌	2.60	1.12
계 층	하 층	2.66	1.14
	중 간	2.53	1.13
	상 층	2.49	1.16

통계치: 교급 F=150.10***, 지역 F=5.46**, 계층 F=5.83**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교급 한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계 고교생(54.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업계 고교생(46.4%), 중학생(41.0%) 순이었다. 일반계 고교생

의 경우 행동경험은 실업계 고교생보다 적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행동의도에서는 실업계 고교생보다 비율이 높아, 소수의 청소년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43> 성인용 노래방 출입: 행동의도-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19.5	39.5	41.0
	일반고	10.9	34.7	54.4
	실업고	14.2	39.4	46.4

통계치: 교급 $\chi^2=18.38^{**}$

(6) 비디오방 출입

지금까지의 비디오방 출입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교급, 계층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비디오방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1.1%)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13.7%), 중학생(6.3%)의 순이었다.

<표 IV-44> 비디오방 출입: 행동경험- 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교 급	중학교	93.7	6.3
	일반고	86.3	13.7
	실업고	78.9	21.1
계 층	하 층	84.9	15.1
	중 간	88.9	11.1
	상 층	88.8	11.2

통계치: 교급 $\chi^2=179.534^{***}$, 계층 $\chi^2=10.66^{**}$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와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 4개의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

자(2.77)가 여자(3.66)보다 상대적으로 행동허용도가 높았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3.00, 실업계 3.04)이 중학생(2.33)보다 허용도가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행동허용도가 농촌(2.8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도시(2.72), 서울·대도시(각각 2.67)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84), 중간층(2.72), 상층(2.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5> 비디오방 출입: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77	1.22
	여 자	2.66	1.18
교 급	중학교	2.33	1.17
	일반고	3.00	1.16
	실업고	3.04	1.08
지 역	서 울	2.67	1.21
	대도시	2.67	1.18
	중소도시	2.72	1.21
	농 촌	2.89	1.21
계 층	하 층	2.84	1.15
	중 간	2.72	1.19
	상 층	2.64	1.23

통계치: 성별 $F=12.33^{***}$, 교급 $F=257.85^{***}$, 지역 $F=7.42^{***}$, 계층 $F=8.22^{***}$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계층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여자(35.7%)가 남자(28.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40.5%)이 중학생(28.8%), 실업계 고교생(24.0%)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층(41.8%)이 가장 높았고, 중간층(29.4%), 하층(28.3%)의 순이었다.

<표 IV-46> 비디오방 출입: 행동의도- 성·교급·계층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26.6	44.7	28.7
	여 자	18.2	46.2	35.7
교 급	중학교	29.5	41.8	28.8
	일반고	17.2	42.3	40.5
	실업고	24.8	51.2	24.0
계 층	하 층	26.0	45.7	28.3
	중 간	23.6	47.0	29.4
	상 층	15.8	42.4	41.8

통계치: 성별 $\chi^2=7.90^*$, 교급 $\chi^2=21.53^{***}$, 계층 $\chi^2=10.38^*$

(7) 음란/포르노물 열람

지금까지의 음란/포르노물 열람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 하위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74.7%)가 여자(37.8%)보다 2배 정도로 월등히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72.1%)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66.7%), 중학생(42.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61.6%)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농촌(58.6%), 중소도시(54.3%), 서울(50.9%)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64.7%), 중간층(57.6%), 상층(5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란/포르노물 열람은 남자 고교생의 경우 6할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에게는 보편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

<표 IV-47> 음란/포르노물 열람: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25.3	74.7
	여 자	62.2	37.8
교 급	중학교	57.8	42.2
	일반고	33.3	66.7
	실업고	27.9	72.1
지 역	서 울	49.1	50.9
	대도시	38.4	61.6
	중소도시	45.7	54.3
	농 촌	41.4	58.6
계 층	하 층	35.3	64.7
	중 간	42.4	57.6
	상 층	48.0	52.0

통계치: 성별 $\chi^2=819.41^{***}$, 교급 $\chi^2=421.79^{***}$, 지역 $\chi^2=44.55^{***}$, 계층 $\chi^2=36.27^{***}$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2.56)가 여자(2.17)보다 행동허용도가 높으며,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2.67, 실업계 2.59)이 중학생(2.0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촌과 대도시(각각 2.44) 지역의 행동허용도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51)이 상대적으로 중간층(2.36), 상층(2.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포르노물 열람에 대한 허용도는 대체로 행동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 IV-48> 음란/포르노물 열람-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56	1.11
	여 자	2.17	0.97
교 급	중학교	2.03	1.04
	일반고	2.67	1.02
	실업고	2.59	0.98
지 역	서 울	2.36	1.05
	대도시	2.44	1.08
	중소도시	2.25	1.06
	농 촌	2.44	1.05
계 층	하 층	2.51	1.05
	중 간	2.36	1.05
	상 층	2.32	1.10

통계치: 성별 F=209.99***, 교급 F=260.47***, 지역 F=10.98***, 계층 F=9.07***

음란/포르노물 열람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계층의 세 변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남자(13.1%)가 여자(7.4%)보다 월등히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15.2%)이 실업계 고교생(9.7%), 중학생(7.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 나타난 응답률은 상층(13.9%), 하층(11.5%), 중간층(10.3%)의 순이었다.

<표 IV-49> 음란/포르노물 열람: 행동의도- 성·교급·계층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37.1	49.8	13.1
	여 자	49.6	43.0	7.4
교 급	중학교	48.7	43.5	7.7
	일반고	35.1	49.7	15.2
	실업고	41.4	49.3	9.3
계 층	하 층	37.2	51.4	11.5
	중 간	41.5	48.2	10.3
	상 층	42.5	43.6	13.9

통계치: 성별 $\chi^2=53.92^{***}$, 교급 $\chi^2=65.48^{***}$, 계층 $\chi^2=12.72^{**}$

(8) 폭력/잔혹물 열람

지금까지의 폭력/잔혹물 열람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67.1%)가 여자(29.5%)보다 약 2배 가량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62.6%), 일반계(56.9%)의 고교생 비율이 중학생(36.3%) 경험비율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51.2%)와 농촌(50.6%)지역이 서울(46.9%), 중소도시(4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56.8%), 중간층(48.3%), 상층(45.0%)의 순이었다.

<표 IV-50> 폭력/잔혹물 열람: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32.9	67.1
	여 자	70.5	29.5
교 급	중학교	63.7	36.3
	일반고	43.1	56.9
	실업고	37.4	62.6
지 역	서 울	53.1	46.9
	대도시	48.8	51.2
	중소도시	53.3	46.7
	농 촌	49.4	50.6
계 층	하 층	43.2	56.8
	중 간	50.7	49.3
	상 층	55.0	45.0

통계치: 성별 $\chi^2=830.39^{***}$, 교급 $\chi^2=306.60^{***}$, 지역 $\chi^2=10.59^{**}$, 계층 $\chi^2=30.22^{***}$

폭력/잔혹물 열람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2.65)가 여자(2.25)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2.72, 실업계 2.66)이 중학생(2.1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2.51)과

농촌(2.50) 지역이 대도시(2.48), 중소도시(2.3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행동 허용도를 나타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58)이 중간층(2.45)과 상층(2.4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행동경험이 많은 집단일 수록 행동허용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폭력/잔혹물 열람: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65	1.13
	여 자	2.25	1.01
교 급	중학교	2.16	1.11
	일반고	2.72	1.05
	실업고	2.66	0.98
지 역	서 울	2.51	1.10
	대도시	2.48	1.10
	중소도시	2.37	1.09
	농 촌	2.50	1.08
계 층	하 층	2.58	1.08
	중 간	2.45	1.07
	상 층	2.42	1.13

통계치: 성별 F=205.40***, 교급 F=184.14***, 지역 F=5.35**, 계층 F=6.59**

폭력/잔혹물 열람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계층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남자(17.7%)가 여자(13.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21.5%)이 실업계 고교생(13.7%), 중학생(12.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계층별로는 상층(2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층(15.0%), 중간층(15.2%)의 순이었다. 음란/포르노물 열람과 함께 폭력/잔혹물 열람을 계속 하겠다는 청소년이 상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열람을 위한 도서, 비디오 테입 등을 쉽게 구입할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V-52> 폭력/잔혹물 열람: 행동의도- 성·교급·계층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30.0	52.3	17.7
	여 자	36.4	49.8	13.8
교 급	중학교	38.5	47.8	13.7
	일반고	25.7	52.8	21.5
	실업고	33.5	54.3	12.1
계 층	하 층	29.0	55.8	15.2
	중 간	32.6	52.4	15.0
	상 층	32.1	46.5	21.4

통계치: 성별 $\chi^2=13.29^{**}$, 교급 $\chi^2=60.53^{***}$, 계층 $\chi^2=18.37^{**}$

(9)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교급, 지역, 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53>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행동경험- 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교 급	중학교	84.8	15.2
	일반고	67.3	32.7
	실업고	56.6	43.4
지 역	서 울	72.2	27.8
	대도시	72.2	27.8
	중소도시	76.1	23.9
	농 촌	69.1	30.9
계 층	하 층	68.3	31.7
	중 간	73.2	26.8
	상 층	73.7	26.3

통계치: 교급 $\chi^2=377.97^{***}$, 지역 $\chi^2=14.47^{**}$, 계층 $\chi^2=9.61^{**}$

경험자 비율이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43.4%)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32.7%), 중학생(15.2%) 순으로 나타나 중학생보다는 고교생의 경험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촌(30.9%)이 가장 높았고, 서울·대도시(각각 27.8%), 중소도시(23.9%)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31.7%)이 중간층(26.8%)과 상층(26.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에 대한 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3.12)가 여자(2.86)보다 약간 높았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3.27, 실업계 3.28)이 중학생(2.64)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1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촌(3.06), 대도시(3.01)의 순이었으며, 중소도시(2.85)가 가장 낮았다. 계층별로는 하층(3.13), 상층(2.99), 중간층(2.97)의 순이었다.

<표 IV-54>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행동허용도- 성 · 교급 · 지역 · 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3.12	1.19
	여 자	2.86	1.08
교 급	중학교	2.64	1.16
	일반고	3.27	1.07
	실업고	3.28	1.00
지 역	서 울	3.10	1.14
	대도시	3.01	1.14
	중소도시	2.85	1.16
	농 촌	3.06	1.09
계 층	하 층	3.13	1.10
	중 간	2.97	1.12
	상 층	2.99	1.19

통계치: 성별 $F=75.30^{***}$, 교급 $F=243.85^{***}$, 지역 $F=12.06^{***}$, 계층 $F=6.54^{**}$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

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남자(48.6%)가 여자(36.8%)로 월등히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49.9%)이 가장 높았고, 실업계 고교생(39.2%), 중학생(34.9%)의 순이었다. 계층별로 나타난 응답률은 상층(13.9%), 하층(11.5%), 중간층(10.3%)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층(47.8%), 중간층(42.7%), 하층(38.3%)의 순이었다.

<표 IV-55>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행동의도- 성·교급·계층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10.6	40.8	48.6
	여 자	14.5	48.7	36.8
교 급	중학교	16.1	49.0	34.9
	일반고	9.3	40.9	49.9
	실업고	14.3	46.6	39.2
계 층	하 층	12.0	49.6	38.3
	중 간	13.9	43.4	42.7
	상 층	8.2	44.1	47.8

통계치: 성별 $\chi^2=22.76^{***}$, 교급 $\chi^2=29.45^{***}$, 계층 $\chi^2=12.08^*$

(10)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지금까지의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6.6%)가 여자(4.2%)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11.9%)이 일반계 고교생(4.7%), 중학생(3.0%)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촌(9.4%)이 다른 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8.5%)이 중간층(4.9%)과 상층(4.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56>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행동경험- 성 · 교급 · 지역 · 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3.4	6.6
	여 자	95.8	4.2
교 급	중학교	97.0	3.0
	일반고	95.3	4.7
	실업고	88.1	11.9
지 역	서 울	95.5	4.5
	대도시	95.4	4.6
	중소도시	94.6	5.4
	농 촌	90.6	9.4
계 층	하 층	91.5	8.5
	중 간	95.1	4.9
	상 층	95.7	4.3

통계치: 성별 $\chi^2=15.85^{***}$, 교급 $\chi^2=129.29^{***}$, 지역 $\chi^2=29.31^{***}$, 계층 $\chi^2=20.70^{***}$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행동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57>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행동허용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41	1.20
	여 자	1.87	0.99
교 급	중학교	1.97	1.12
	일반고	2.21	1.13
	실업고	2.46	1.09
지 역	서 울	2.12	1.11
	대도시	2.13	1.13
	중소도시	2.13	1.13
	농 촌	2.31	1.15
계 층	하 층	2.30	1.13
	중 간	2.15	1.12
	상 층	2.03	1.13

통계치: 성별 $F=354.37^{***}$, 교급 $F=82.35^{***}$, 지역 $F=5.88^{**}$, 계층 $F=15.72^{***}$

성별로는 남자(2.41)가 여자(1.87)보다 높으며,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46), 일반계 고교생(2.21), 중학생(1.97)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2.31)지역의 행동허용도가 다른 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30), 중간층(2.15), 상층(2.03)의 순이었다.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남자(41.8%)가 여자(18.8%)로 월등히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43.7%)과 일반계 고교생(42.1%)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고, 실업계 고교생(21.5%)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 행동의도비율이 행동경험비율과 상반되게 나온 것이 특징적이다.

<표 IV-58>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행동의도- 성 ·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16.4	41.8	41.8
	여 자	42.0	39.3	18.8
교 급	중학교	19.7	36.6	43.7
	일반고	15.8	42.1	42.1
	실업고	36.3	42.2	21.5

통계치: 성별 $\chi^2=29.09^{***}$, 교급 $\chi^2=21.02^{***}$

다. 요약 및 특성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속하는 단위행동 중에서 가장 많은 경험정도를 보인 행동은 “음주”였으며 “음란/포르노물” 열람도 과반수를 상회하는 등 높은 경험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폭력/잔혹물”의 경험정도도 높았으며 “흡연”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성인용 술집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비디오방 출입” 등의 순으로 문제행동 경험비율이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의 경험 빈도에 있어서는 “성인용 노래방 출입”이 가장 높았고 “성인용 술집 출입”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들 문제행동들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에 대해 가장 허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음주” “비디오방 출입” 등의 순으로 허용적 태도가 과반수를 넘었고, 이밖에도 “폭력/잔혹물 열람” “성인용 노래방 출입” “음란/포르노물 열람”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등의 순서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문제행동에 대한 타인인지도를 보면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과 성관계에 있어서는 친구들만 알고 있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단위행동들보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높게 보여지고 있다. 성과 관계된 행동들은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이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행동들 중 “성인용 노래방 출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와 “음란/포르노물 열람”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행동유형의 차이와 관계없이 친구들만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두가지 응답에 대한 비율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동의도 중에서도 앞으로 할 것이라라고 하는 응답비율을 보면 “성인용 노래방 출입”이 가장 높았고, “성인용 술집 출입”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음주” “비디오방 출입” 등의 순으로 높은 행동의도들이 보여졌다.

한편, 유홍/풍속형 문제행동들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성별, 교급, 계층, 지역 등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홍/풍속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유홍/풍속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계층별로는 하층의 계층에 있는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에 속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서울과 중소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수준을 보였다.

3)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가. 전체 비교

(1) 행동경험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범주에 속하는 단위행동의 경험자 비율을 “지금까지의 행동경험”과 “최근 1년간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IV-59>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행동경험

(단위: %)

	지금까지의 경험	최근 1년간 경험
부모에 대한 반항	55.6	49.4
교사에 대한 반항	23.7	20.0
용돈 유용	55.3	48.9
무단결석	11.9	9.6
무단외박	17.8	15.7
가출	7.7	4.1
컨닝	36.9	29.4
가족 돈/카드 유용	5.3	4.1
심한 말다툼	64.4	53.9

먼저 지금까지의 경험자 비율을 보면, 전체 청소년의 64.4%가 “심한 말다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모에 대한 반항”(55.6%), “용돈 유용”(55.3%), “컨닝”(36.9%), “교사에 대한 반항”(23.7%), “무단외박”(17.8%), “무단 결석”(11.9%), “가출”(7.7%), “가족 돈/카드 유용”(5.3%)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가족 돈/카드 유용”을 제외

하고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도전보다는 가정에서의 권위도전 행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년간 행동경험자의 비율에 있어서도 역시 “심한 말다툼”(53.9%), “부모에 대한 반항”(49.4%), “용돈 유용”(48.9%), “컨닝”(29.4%), “교사에 대한 반항”(20.0%), “무단외박”(15.7%), “무단 결석”(9.6%), “가출”(4.1%), “가족 돈/카드 유용”(4.1%)의 순이었다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행동경험·빈도 응답결과(5점 척도, 1~5점)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반항”(3.12)이 가장 높았고, “용돈 유용”(3.08), “무단외박”(3.05), “무단결석”(2.87), “가족 돈/카드 유용”(2.84), “교사에 대한 반항”(2.79), “심한 말다툼”(2.71), “컨닝”(2.53), “가출”(2.22) 순이었다.

“가족 돈/카드 유용”은 행동경험자는 가장 적었지만 행동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0>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최근1년간 경험·빈도

	경험자(%)	경험빈도	
		평균	표준편차
부모에 대한 반항	49.4	3.12	1.24
교사에 대한 반항	20.0	2.79	1.28
용돈 유용	48.9	3.08	1.30
무단결석	9.6	2.87	1.41
무단외박	15.7	3.05	1.34
가 출	5.5	2.22	1.14
컨 닝	29.4	2.53	1.18
가족 돈/카드 유용	4.1	2.84	1.42
심한 말다툼	53.9	2.71	1.24

(2) 행동허용도

각 단위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단계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허용적 태도(“전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저 그렇다”)와 비허용적 태도(“아주 나쁘다” “나쁘다”)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단위행동 중에서 “심한 말다툼”(65.5%)이 가장 높았고, “용돈유용”(36.4%), “교사에 대한 반항”(31.2%), “무단외박”(29.8%), “부모에 대한 반항”(28.0%), “퀵”(27.9%), “무단결석”(25.9%), “가출”(13.3%), “가족 돈/카드 유용”(6.4%) 순이었다.

<표 IV-61>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행동허용도

(단위: %)

	허용적 태도비율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부모에 대한 반항	28.0	23.8	4.2
교사에 대한 반항	31.2	24.6	6.6
용돈 유용	36.4	29.2	7.2
무단결석	25.9	22.0	3.9
무단외박	29.8	22.2	7.6
가출	13.3	10.6	2.7
퀵	27.9	21.8	6.1
가족 돈/카드 유용	6.4	5.1	1.3
심한 말다툼	65.5	46.9	18.6

(3) 타인인지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행동경험을 친구나 부모님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에 대한 반항”(89.2%), “가출”(85.4%), “무단외박”(73.4%)의 경우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할 이상에 달하였다. “퀵”(70.8%), “심한 말다툼”(60.3%),

“교사에 대한 반항”(58.4%) 행동은 친구들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는 학교에서 일어난 행동의 경우 부모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 돈/카드 유용”(33.1%)이 가장 높았고, “용돈 유용”(29.1%), “컨닝”(19.0%)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심한 말다툼”(6.1%), “무단결석”(5.5%), “교사에 대한 반항”(5.7%), “무단외박”(4.4%), “가출”(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2>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타인인지도

(단위: %)

	아무도 모른다	알고 있다	
		친구들만	부모님도
부모에 대한 반항	4.8	6.0	89.2
교사에 대한 반항	5.7	58.4	35.9
용돈 유용	29.1	50.0	20.9
무단결석	5.8	32.5	61.7
무단외박	4.4	22.2	73.4
가 출	2.8	11.7	85.4
컨 닝	19.0	70.8	10.2
가족 돈/카드 유용	33.1	31.1	35.9
심한 말다툼	6.1	60.3	33.6

(4) 행동의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계속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행동유형에서 “안할 것이다”는 응답률이 4할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출”(65.6%)이 가장 높았고, “가족 돈/카드 유용”(61.1%), “무단 결석”(57.8%), “부모에 대한 반항”(57.5%), “컨닝”(56.0%), “용돈 유용”(52.2%), “심한 말다툼”(47.7%), “교사에 대한 반항”(44.6%), “무단외박”(41.6%)의 순이었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의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무단외박”(15.4%)이 가

장 높았고, “교사에 대한 반항”(12.1%), “가족 돈/카드 유용”(10.7%), “용돈 유용”(10.1%), “컨닝”(9.1%), “심한 말다툼”(8.3%), “무단결석”(7.3%)”, “가출”(6.4%), “부모에 대한 반항”(6.2%) 순이었다.

<표 IV-63>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행동의도

(단위: %)

	안할 것이다	모르겠다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반항	57.5	36.3	6.2
교사에 대한 반항	44.6	43.3	12.1
용돈 유용	52.2	37.7	10.1
무단결석	57.8	34.9	7.3
무단외박	41.6	43.1	15.4
가출	65.6	28.0	6.4
컨닝	56.0	34.9	9.1
가족 돈/카드 유용	61.1	28.2	10.7
심한 말다툼	47.7	44.0	8.3

나. 단위행동 분석

(1) 부모에 대한 반항

지금까지의 부모에 대한 반항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59.27%)가 남자(52.3%)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60.9%, 실업계 59.1%)이 중학생(49.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4.3%)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도시(55.7%), 중소도시(51.1%), 농촌(50.8%)의 순이었으며, 계층별로는 하층(58.6%), 상층(57.6%), 중간층(54.4%) 순이었다.

<표 IV-64> 부모에 대한 반항: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47.7	52.3
	여 자	40.8	59.2
교 급	중학교	50.3	49.7
	일반고	39.1	60.9
	실업고	40.9	59.1
지 역	서 울	35.7	64.3
	대도시	44.3	55.7
	중소도시	48.9	51.1
	농 촌	49.2	50.8
계 층	하 층	41.4	58.6
	중 간	45.6	54.4
	상 층	42.4	57.6

통계치: 성별 $\chi^2=28.92^{***}$, 교급 $\chi^2=67.24^{***}$, 지역 $\chi^2=58.26^{***}$, 계층 $\chi^2=7.21^*$

<표 IV-65> 부모에 대한 반항: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89	0.84
	여 자	2.24	0.84
교 급	중학교	2.02	0.90
	일반고	2.12	0.84
	실업고	2.04	0.79
지 역	서 울	2.19	0.86
	대도시	2.02	0.85
	중소도시	2.05	0.87
	농 촌	1.98	0.82
계 층	하 층	2.09	0.87
	중 간	2.03	0.84
	상 층	2.12	0.88

통계치: 성별 $F=246.77^{***}$, 교급 $F=7.48^{**}$, 지역 $F=14.47^{***}$, 계층 $F=5.25^{**}$

부모에 대한 반항 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2.24)가 남자(1.89)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2.12)이 실업계 고교생(2.04), 중학생(2.0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1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도시(2.05), 대도시(2.02), 농촌(1.98)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층(2.12), 하층(2.09), 중간층(2.03) 순이었다. 행동허용도는 행동경험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여자(7.2%)가 남자(5.2%)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7.1%), 중학생(6.1%), 실업계 고교생(4.9%)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7.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서울(6.3%), 대도시(5.8%), 농촌(5.5%)의 순이었다.

<표 IV-66> 부모에 대한 반항: 행동의도- 성 · 교급 · 지역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61.0	33.7	5.2
	여 자	54.1	38.7	7.2
교 급	중학교	57.7	36.2	6.1
	일반고	54.5	38.4	7.1
	실업고	62.7	32.4	4.9
지 역	서 울	50.8	42.9	6.3
	대도시	60.8	33.4	5.8
	중소도시	57.4	35.4	7.2
	농 촌	60.7	33.9	5.5

통계치: 성별 $\chi^2=15.77^{***}$, 교급 $\chi^2=12.18^*$, 지역 $\chi^2=22.37^{**}$

(2) 교사에 대한 반향

지금까지의 교사에 대한 반향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교급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고교생(실업계 26.7%, 일반계 26.5%)이 중학생(20.1%)보다 월등하게 높은 경험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IV-67> 교사에 대한 반향: 행동경험- 교급별

(단위: %)

		없다	있다
교 급	중학교	79.9	20.1
	일반고	73.5	26.5
	실업고	73.3	26.7

통계치: $\chi^2=33.95^{***}$

교사에 대한 반향 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2.29)가 남자(2.02)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2.28), 실업계 고교생(2.13), 중학생(2.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청소년들의 행동허용도(2.26)가 다른 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표 IV-68> 교사에 대한 반향: 행동허용도- 성 · 교급 · 지역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02	0.95
	여 자	2.29	0.88
교 급	중학교	2.06	0.97
	일반고	2.28	0.92
	실업고	2.13	0.84
지 역	서 울	2.26	0.93
	대도시	2.12	0.94
	중소도시	2.12	0.93
	농 촌	2.13	0.90

통계치: 성별 $F=130.81^{***}$, 교급 $F=33.02^{***}$, 지역 $F=7.71^{***}$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교급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계 고교생(14.7%)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12.2%), 실업계 고교생(7.8%)의 순이었다.

<표 IV-69> 교사에 대한 반하: 행동의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45.4	42.4	12.2
	일반고	40.1	45.2	14.7
	실업고	50.9	41.3	7.8

통계치: $\chi^2=12.86^*$

(3) 용돈 유용

지금까지의 용돈 유용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계층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유경험자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57.9%)가 남자(52.8%)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68.8%)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60.5%), 중학생(44.8%)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62.7%), 중간층(56.5%), 상층(48.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0> 용돈 유용: 행동경험- 성 · 교급 · 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47.2	52.8
	여 자	42.1	57.9
교 급	중학교	55.2	44.8
	일반고	39.5	60.5
	실업고	31.2	68.8
계 층	하 층	37.3	62.7
	중 간	43.5	56.5
	상 층	51.6	48.4

통계치: 성별 $\chi^2=15.85^{***}$, 교급 $\chi^2=225.20^{***}$, 계층 $\chi^2=49.86^{***}$

용돈 유용 허용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2.39)가 남자(2.16)보다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2.40, 실업계 2.37)이 중학생(2.1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2.38)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와 농촌(각각 2.27)이 중간수준이었고 대도시(2.21)가 가장 낮았다. 계층별로는 하층(2.34), 중간층(2.27), 상층(2.22) 순이었다.

<표 IV-71> 용돈 유용: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16	0.93
	여 자	2.39	0.88
교 급	중학교	2.12	0.93
	일반고	2.40	0.92
	실업고	2.37	0.84
지 역	서 울	2.38	0.94
	대도시	2.21	0.88
	중소도시	2.27	0.96
	농 촌	2.27	0.90
계 층	하 층	2.34	0.94
	중 간	2.27	0.90
	상 층	2.22	0.92

통계치: 성별 $F=94.61^{***}$, 교급 $F=64.01^{***}$, 지역 $F=9.30^{***}$, 계층 $F=4.24^*$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지역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여자(11.9%)가 남자(8.3%)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12.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업계 고교생(9.9%), 중학생(7.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11.8%), 중소도시(10.7%), 서울(9.5%), 대도시(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2> 용돈 유용: 행동의도- 성·교급·지역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57.7	34.0	8.3
	여 자	46.7	41.4	11.9
교 급	중학교	59.8	33.1	7.1
	일반고	46.3	40.9	12.8
	실업고	51.2	38.9	9.9
지 역	서 울	45.9	44.6	9.5
	대도시	55.2	35.4	9.4
	중소도시	53.4	36.0	10.7
	농 촌	51.4	36.8	11.8

통계치: 성별 $\chi^2=38.30^{***}$, 교급 $\chi^2=47.19^{***}$, 지역 $\chi^2=20.00^{**}$

(4) 무단결석

지금까지의 무단결석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교급, 계층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유경험자 비율에서 교급별로 실업계 고교생(26.1%)이 일반계 고교생(9.3%), 중학생(7.5%)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계층별로는 하층(17.3%), 중간층(11.5%), 상층(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시로 인해 학업이 중시되는 일반계 고교생과 중학생에 비해서 실업계 고교생은 비교적 학업부담이 적으므로 무단결석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인다.

<표 IV-73> 무단결석: 행동경험- 교급·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교 급	중학교	92.5	7.5
	일반고	90.7	9.3
	실업고	73.9	26.1
계 층	하 층	82.7	17.3
	중 간	88.5	11.5
	상 층	91.6	8.4

통계치: 교급 $\chi^2=290.33^{***}$, 계층 $\chi^2=42.72^{***}$

무단결석 허용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2.14)가 남자(2.17)보다 높으며,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15), 일반계 고교생(2.10), 중학생(1.9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1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촌(2.10), 중소도시(1.97), 대도시(1.96)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11)이 상대적으로 중간층(2.01), 상층(2.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 경험이 높을수록 허용도 수준이 높았다.

<표 IV-74> 무단결석: 행동허용도- 성 · 교급 · 지역 · 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92	0.86
	여 자	2.14	0.85
교 급	중학교	1.91	0.88
	일반고	2.10	0.86
	실업고	2.15	0.79
지 역	서 울	2.16	0.90
	대도시	1.96	0.86
	중소도시	1.97	0.83
	농 촌	2.10	0.85
계 층	하 층	2.11	0.87
	중 간	2.01	0.85
	상 층	2.03	0.87

통계치: 성별 F=92.92***, 교급 F=47.98***, 지역 F=19.13***, 계층 F=4.63*

무단결석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교급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교급별로 일반계 고교생(9.8%), 중학생(7.0%), 실업계 고교생(5.9%) 순이었다.

<표 IV-75> 무단결석: 행동의도-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66.3	26.7	7.0
	일반고	48.1	42.1	9.8
	실업고	59.0	35.2	5.9

통계치: 교급 $\chi^2=13.64^{**}$

(5) 무단외박

지금까지의 무단외박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76> 무단외박: 행동경험- 성 · 교급 · 지역 · 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78.9	21.1
	여 자	85.9	14.1
교 급	중학교	90.5	9.5
	일반고	82.0	18.0
	실업고	64.5	35.5
지 역	서 울	83.3	16.7
	대도시	84.1	15.9
	중소도시	80.8	19.2
	농 촌	77.8	22.2
계 층	하 층	74.4	25.6
	중 간	81.9	18.1
	상 층	88.4	11.6

통계치: 성별 $\chi^2=49.08^{***}$, 교급 $\chi^2=375.07^{***}$, 지역 $\chi^2=47.66^{***}$, 계층 $\chi^2=76.44^{***}$

유경험자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21.1%)가 여자(14.1%)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35.5%)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18.0%), 중학생(9.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22.2%)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19.2%), 서울(16.7%), 대도시(15.9%)의 순이었으며, 계층별로는 하층(25.6%), 중간층(18.1%), 상층(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 전체 응답 청소년의 3할 이상이 무단외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고교생에게 있어 무단외박은 보편적인 경험임을 보여준다.

무단외박 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2.18)가 여자(2.06)보다 행동허용도가 높으며,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34), 일반계 고교생(2.25), 중학생(1.9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2.20)과 서울(2.19) 청소년들의 행동허용도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25), 중간층(2.12), 상층(2.05) 순이었다.

<표 IV-77> 무단외박: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18	1.02
	여 자	2.06	0.90
교 급	중학교	1.92	0.94
	일반고	2.25	0.96
	실업고	2.34	0.93
지 역	서 울	2.19	0.97
	대도시	2.07	0.96
	중소도시	2.12	0.97
	농 촌	2.20	0.94
계 층	하 층	2.25	0.98
	중 간	2.12	0.94
	상 층	2.05	0.98

통계치: 성별 $F=23.10^{***}$, 교급 $F=109.25^{***}$, 지역 $F=6.22^{***}$, 계층 $F=11.96^{***}$

무단외박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교급별로 일반계 고교생(19.3%), 실업계 고교생(13.8%), 중학생(11.7%) 순이었으며, 지

역별로는 농촌지역이 21.7%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8> 무단외박: 행동의도- 교급·지역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49.3	39.0	11.7
	일반고	34.4	46.3	19.3
	실업고	43.6	42.6	13.8
지 역	서 울	37.3	45.9	16.8
	대도시	47.6	40.4	12.0
	중소도시	40.4	44.7	14.9
	농 촌	35.4	42.9	21.7

통계치: 교급 $\chi^2=15.53^{**}$, 지역 $F=13.40^*$

(6) 가출

지금까지의 가출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교급, 지역, 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79> 가출: 행동경험- 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교 급	중학교	95.5	4.5
	일반고	92.7	7.3
	실업고	84.5	15.5
지 역	서 울	91.1	8.9
	대도시	93.5	6.5
	중소도시	92.6	7.4
	농 촌	90.2	9.8
계 층	하 층	89.7	10.3
	중 간	92.4	7.6
	상 층	93.9	6.1

통계치: 교급 $\chi^2=139.11^{***}$, 지역 $\chi^2=11.90^{**}$, 계층 $\chi^2=13.98^{**}$

교급별로 실업계 고교생(15.5%)이 일반계 고교생(7.3%)과 중학생(4.5%)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 청소년의 9.8%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서울(8.9%), 중소도시(7.4%), 대도시(6.5%)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10.3%)이 중간층(7.6%), 상층(6.1%)보다 상대적으로 가출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행동허용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1.72, 실업계 1.71)이 중학생(1.5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1.76)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1.64), 농촌(1.62), 대도시(1.58)의 순이었으며, 계층별로는 하층(1.70), 상층(1.65), 중간층(1.62) 순이었다.

<표 IV-80> 가출: 행동허용도- 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교 급	중학교	1.55	0.80
	일반고	1.72	0.86
	실업고	1.71	0.79
지 역	서 울	1.76	0.88
	대도시	1.58	0.79
	중소도시	1.64	0.83
	농 촌	1.62	0.79
계 층	하 층	1.70	0.83
	중 간	1.62	0.80
	상 층	1.65	0.87

통계치: 교급 F=30.40***, 지역 F=13.07***, 계층 F=3.15*

가출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교급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교급별로 중학생(9.8%)이 가장 많았고, 일반계 고교생(7.9%), 실업계 고교생(3.1%) 순이었다. 행동의도 응답비율이 행동경험비율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표 IV-81> 가출: 행동의도-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66.7	23.5	9.8
	일반고	58.3	33.8	7.9
	실업고	71.2	25.8	3.1

통계치: 교급 $\chi^2=9.77^*$

(7) 컨닝

지금까지의 컨닝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 교급, 지역, 계층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유경험자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38.8%)가 여자(34.9%)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실업계 47.1%, 일반계 46.5%)이 중학생(24.4%)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농촌(50.7%)이 서울(36.6%), 중소도시(34.5%), 대도시(32.7%)의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계층별로는 하층(40.1%), 중간층(38.1%), 상층(33.2%) 순이었다.

<표 IV-82> 컨닝: 행동경험- 성·교급·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61.2	38.8
	여 자	65.1	34.9
교 급	중학교	75.6	24.4
	일반고	53.5	46.5
	실업고	52.9	47.1
계 층	하 층	59.9	40.1
	중 간	61.9	38.1
	상 층	66.8	33.2

통계치: 성별 $\chi^2=9.93^{**}$, 교급 $\chi^2=310.67^{***}$, 계층 $\chi^2=14.74^{**}$

행동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교급, 지역,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28)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2.16), 중학생(1.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11)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농촌(2.08), 중소도시(2.07)의 순이었으며 대도시(1.99)가 가장 낮았다. 계층별로는 하층(2.12), 중간층(2.06), 상층(1.98) 순이었다.

<표 IV-83> 컨닝: 행동허용도- 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교 급	중학교	1.85	0.92
	일반고	2.16	0.95
	실업고	2.28	0.94
지 역	서 울	2.11	0.98
	대도시	1.99	0.94
	중소도시	2.07	0.94
	농 촌	2.08	0.94
계 층	하 층	2.12	0.96
	중 간	2.06	0.94
	상 층	1.98	0.94

통계치: 교급 F=106.94***, 지역 F=4.99**, 계층 F=6.07**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서는 4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8) 가족 돈/카드 유용

지금까지의 가족 돈/카드 유용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교급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유경험자 비율이 교급별로 실업계 고교생(6.2%)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5.9%), 중학생(4.3%) 순이었다.

<표 IV-84> 가족 돈/카드 유용: 행동경험- 교급별

(단위: %)

		없다	있다
교 급	중학교	95.7	4.3
	일반고	94.1	5.9
	실업고	93.8	6.2

통계치: 교급 $\chi^2=8.42^*$

행동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1.53)가 남자(1.47)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1.63)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교생(1.53), 중학생(1.4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다른 세 지역에 비해 대도시 청소년들의 행동허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85> 가족 돈/카드 유용: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47	0.70
	여 자	1.53	0.68
교 급	중학교	1.41	0.68
	일반고	1.53	0.69
	실업고	1.63	0.72
지 역	서 울	1.55	0.73
	대도시	1.45	0.67
	중소도시	1.52	0.71
	농 촌	1.53	0.68

통계치: 성별 $F=10.58^{**}$, 교급 $F=45.99^{***}$, 지역 $F=7.19^{***}$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서는 4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9) 심한 말다툼

지금까지의 심한 말다툼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 지역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유경험자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69.9%)가 여자(58.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6.1%)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농촌(65.5%), 대도시(65.4%), 중소도시(61.0%)의 순이었다.

<표 IV-86> 심한 말다툼: 행동경험- 성·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30.1	69.9
	여 자	41.6	58.4
지 역	서 울	33.9	66.1
	대도시	34.6	65.4
	중소도시	39.0	61.0
	농 촌	34.5	65.5

통계치: 성별 $\chi^2=84.64^{***}$, 지역 $\chi^2=10.88^{**}$

심한 말다툼 행동허용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 교급,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2.93)가 남자(2.73)보다 높으며,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2.94)이 가장 높았고, 실업계 고교생(2.81), 중학생(2.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87)과 대도시(2.84)가 농촌(2.79), 중소도시(2.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남자가 행동경험비율은 높았으나 행동허용도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표 IV-87> 심한 말다툼: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73	0.95
	여 자	2.93	0.92
교 급	중학교	2.74	0.97
	일반고	2.94	0.94
	실업고	2.81	0.85
지 역	서 울	2.87	0.96
	대도시	2.84	0.93
	중소도시	2.78	0.95
	농 촌	2.79	0.90

통계치: 성별 F=67.01***, 교급 F=28.24***, 지역 F=2.97*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남자(8.7%)가 여자(7.7%)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10.6%)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7.1%), 실업계 고교생(6.6%) 순이었다.

<표 IV-88> 심한 말다툼: 행동의도- 성·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49.6	41.7	8.7
	여 자	45.1	47.2	7.7
교 급	중학교	49.8	43.1	7.1
	일반고	44.7	44.7	10.6
	실업고	48.8	44.6	6.6

통계치: 성별 $\chi^2=10.74^{**}$, 교급 $\chi^2=17.65^{**}$

다. 요약 및 특성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의 경험정도를 보면 “심한 말다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는 “부모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컨닝” “교사에 대한 반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의 경험 빈도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반항”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용돈 유용”과 “무단외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허용도에 있어서는 “심한 말다툼”의 경우 65.5%의 청소년들이 허용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매우 높은 허용성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밖에는 “용돈 유용” “교사에 대한 반항” “무단외박” 등의 순으로 허용적 태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돈/카드 유용”의 경우에는 허용적 태도가 6.4%로 가장 낮게 나왔다.

이들 문제행동에 대한 타인인지도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즉 “컨닝” “용돈 유용” “교사에 대한 반항” 등은 부모가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외박” “가출” 등은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친구들만 알고 있는 경우는 “컨닝” “심한 말다툼” “교사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등이었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의도를 보면 대부분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반항”과 “무단외박”의 경우에는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여타 행동들에 대한 태도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 않겠다 라는 응답에 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행동은 “가출”이었으며 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행동은 무단외박이었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응답결과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 교급, 계층, 지역 등 전체 독립변인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

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실업계 고교생의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계층별로는 하층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에 속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지만 중간층과 상층간에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소년들보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

3. 법률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은 법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유형 전체를 포괄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법률적 문제행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된다. 14세 미만은 촉법사범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이와 같은 법률적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따라서 그만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감소한다는 것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성 정도 또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곧 전체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에 있어 법률적 문제행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V-89> 법률적 문제행동의 범주와 행동유형

범 주	유 형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
	상점 절도
	공공기물 파손
	타인에 대한 폭행
	패싸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동
	친구따돌리기(타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왕따)
성비행형 문제행동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버스/지하철에서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사창가 배회
도피형 문제행동	자살 시도
	마약 복용
	환각약물 흡입

본 실태조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법률적 차원에서의 검토 및 조사된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등을 토대로 모두 15개의 단위행동들을 법률적 문제행동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1)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가. 전체 비교

(1) 행동경험

폭력/절도형 문제행동에 포함되는 8가지의 단위행동들에 대한 경험정도는 지금까지의 경험정도와 최근 1년간의 경험정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경험정도가 가장 많은 단위행동은 26.4%의 응답을 보이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동”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13.6%를 차지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폭행”과 12.5%의 “공공기물 파손”, 11.4%의 “친구따돌리기(왕따)”, 10.4%의 “상점 절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폐싸움” “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 등은 각각 7.3%, 6.8%, 3.6% 등으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V-90>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행동경험

(단위: %)

	지금까지 경험	최근 1년간 경험
타인 금품 절도	6.8	4.3
금품 갈취	3.6	2.8
상점 절도	10.4	6.6
공공기물 파손	12.5	9.8
타인에 대한 폭행	13.6	10.8
폐싸움	7.3	5.3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동	26.4	22.7
친구따돌리기(왕따)	11.4	8.4

이와 같은 통계치는 최근 1년간의 경험정도에서도 유사한 순서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경험수치를 나타낸 항목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동”으로 22.7%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10.8%를 나타내고 있는 “타인에 대한 폭행”이었다. 기타 항목들은 10%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경험 정도의 순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정도에서와 유사한 양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일 항목들에 대한 최근 1년간의 경험정도를 평균치에 의한 빈도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장소 소란행동(3.03)” “금품갈취(2.70)” “타인에 대한 폭행(2.58)”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반면 “타인 금품 절도(2.11)” “패싸움(2.36)” “상점 절도(2.38)” 등은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IV-91>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최근1년간 경험·빈도

	경험자(%)	경험빈도	
		평균	표준편차
타인 금품 절도	4.3	2.11	1.19
금품 갈취	2.8	2.70	1.40
상점 절도	6.6	2.38	1.37
공공기물 파손	9.8	2.42	1.17
타인에 대한 폭행	10.8	2.58	1.24
패싸움	5.3	2.36	1.22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동	22.7	3.03	1.36
친구따돌리기(왕따)	8.4	2.41	1.28

(2) 행동허용도

폭력/절도형 문제행동의 단위행동들에 대한 허용도 응답결과를 보면 “공공장소 소란행동”의 경우가 20.4%로 가장 허용적이었으며, “패싸움”과 “공공기물 파손”은 각각 13.8%와 13.7%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허용적이지 않은 문제행동은 “금품 갈취”로서 3.6%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상점 절도(5.5%)”와 “타인 금품 절도(4.2%)” 등도 비교적 허용성이 낮게 나타나 있다.

<표 IV-92>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행동허용도

(단위 : %)

	허용적 태도 비율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타인 금품 절도	4.2	3.3	0.9
금품 갈취	3.6	2.9	0.7
상점 절도	5.5	4.5	1.0
공공기물 파손	13.7	12.1	1.6
폭행	7.9	6.4	1.5
패싸움	13.8	11.6	2.2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동	20.4	18.2	2.2
친구따돌리기(왕따)	8.7	7.1	1.6

(3) 타인인지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타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친구들만 알고 있다” “부모님도 알고 있다”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무도 모르고 있다”에 대해 응답한 행위유형들을 보면 “타인 금품 절도”의 경우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왕따(6.6%)” “타인 폭행(5.9%)” “공공장소 소란행동(7.0%)” “패싸움 참여(7.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친구들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왕따(72.5%)”와 “공공장소 소란행동(71.5%)” 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타인 금품 절도”는 44.9%로 가장 낮은 통계치를 보였다.

한편, “부모님도 알고 있다”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타인 폭행”과 “패싸움” 등이 각각 32.6%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품 갈취”와 “공공기물 파손” 등은 18.4%와 17.4%를 보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IV-93>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타인인지도

(단위: %)

	아무도 모른다	알고 있다	
		친구들만	부모님도
타인 금품 절도	34.9	44.9	20.2
금품 갈취	15.5	66.0	18.4
상점 절도	18.2	62.4	19.4
공공기물 파손	15.9	66.7	17.4
타인에 대한 폭행	5.9	61.5	32.6
패싸움	7.8	61.7	30.5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동	7.0	71.5	21.4
친구따돌리기(왕따)	6.6	72.5	20.9

(4) 행동의도

행동의도의 경우에는 앞으로 동일한 문제행동을 재현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써 응답항목은 “안할 것이다” “모르겠다” “할 것이다”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타인 금품 절도”와 “상점 절도”가 각각 69.8%와 68.4%로 가장 높았고,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금품 갈취”가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의 경우에는 “패싸움 참여”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94>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행동의도

(단위: %)

	안할 것이다	모르겠다	할 것이다
타인 금품 절도	69.8	22.3	7.9
금품 갈취	55.5	31.0	13.5
상점 절도	68.4	24.0	7.6
공공기물 파손	57.5	33.7	8.7
타인에 대한 폭행	56.1	36.1	7.8
패싸움 참여	52.9	40.5	6.6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동	52.6	38.6	8.8
친구따돌리기(왕따)	57.2	34.1	8.7

나. 단위행동 분석

(1) 타인 금품 절도

타인 금품 절도 경험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네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보면 경험이 있는 남자가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여자는 4.7%로서 대인 절도 행위에는 남자가 보다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의 경우에는 실업계 고교생이 8.7%로서 가장 높은 경험정도를 보였고 중학생이 5.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험정도를 보이고 있는 곳이 서울지역으로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5.4%를 보이고 있는 농촌 지역이 가장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계층별 대인절도 정도는 하층 청소년들이 10.7%로 가장 많았으며, 중간층이 6.0%, 상층이 5.6%를 보이고 있다.

<표 IV-95> 타인 금품 절도: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1.3	8.7
	여 자	95.3	4.7
교 급	중학교	94.4	5.6
	일반고	92.8	7.2
	실업고	91.3	8.7
지 역	서 울	91.6	8.4
	대도시	93.6	6.4
	중소도시	93.2	6.8
	농 촌	94.6	5.4
계 층	하 층	89.3	10.7
	중 간	94.0	6.0
	상 층	94.4	5.6

통계치: 성별 $\chi^2=35.95^{***}$, 교급 $\chi^2=13.64^{**}$, 지역 $\chi^2=8.42^*$, 계층 $\chi^2=26.82^{***}$

행동허용도의 측면에 있어서도 하위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가 평균 1.43으로 여자 평균인 1.37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교급에 있어서도 실업계 고교생이 1.47으로서 대인 절도에 대해 가장 높은 허용도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계층에 따른 허용도에 있어서도 하층이 1.45, 중간층이 1.40, 상층이 1.36 등으로 하층에서의 허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96> 타인 금품 절도: 행동허용도- 성·교급·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43	0.66
	여 자	1.37	0.59
교 급	중학교	1.36	0.63
	일반고	1.41	0.63
	실업고	1.47	0.62
계 층	하 층	1.45	0.64
	중 간	1.40	0.61
	상 층	1.36	0.63

통계치: 성별 $F=14.88^{***}$, 교급 $F=13.56^{***}$, 계층 $F=7.15^{**}$

(2) 금품 갈취

하위집단별로 본 금품 갈취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정도는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4개의 독립변인들 중 성별과 교급, 지역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금품 갈취에 대해 남자 청소년들의 경험정도가 4.9%, 여자 청소년들의 경험정도는 2.3%로 나타나 결국 남자청소년들에게서 금품 갈취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교생이 5.4%를 차지하여 각각 3.0%와 3.4%를 나타내고 있는 중학생과 일반계 고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정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 있어서는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평균 5.0으로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였으며 서울은 4.5로 두번째였고 대도시 지역이 2.9로 가장 낮은 허용도를 보이고 있다.

<표 IV-97> 금품 갈취: 행동경험- 성·교급·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5.1	4.9
	여 자	97.7	2.3
교 급	중학교	97.0	3.0
	일반고	96.6	3.4
	실업고	94.6	5.4
지 역	서 울	95.5	4.5
	대도시	97.1	2.9
	중소도시	96.6	3.4
	농 촌	95.0	5.0

통계치: 성별 $\chi^2=29.05^{***}$, 교급 $\chi^2=13.78^{**}$, 지역 $\chi^2=10.12^*$

금품 갈취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네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98> 금품 갈취: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37	0.63
	여 자	1.32	0.57
교 급	중학교	1.32	0.61
	일반고	1.34	0.60
	실업고	1.41	0.60
지 역	서 울	1.38	0.64
	대도시	1.31	0.57
	중소도시	1.35	0.62
	농 촌	1.37	0.57
계 층	하 층	1.38	0.60
	중 간	1.35	0.59
	상 층	1.31	0.59

통계치: 성별 F=11.55**, 교급 F=8.11**, 지역 F=4.31**, 계층 F=3.68*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 청소년간 행동허용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남자의 평균은 1.37, 여자는 1.32로 나타났다.

교급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교생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업계 고교생이 1.41, 일반계 고교생이 1.34, 중학생이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차이에 있어서는 서울 청소년의 행동허용도 평균이 1.3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이 1.37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계층에 있어서도 다른 범주에서와 유사하게 하층 청소년들의 허용도가 가장 높았으며(1.38), 중간층(1.35)과 상층(1.31)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금품 갈취에 대한 행동 의도에 있어서는 하위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상점 절도

상점 절도의 행동경험과 관계된 하위집단별 차이는 교급, 지역, 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7.2%로 가장 낮은 경험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실업계·일반계 고교생은 각각 13.2%와 12.6%를 보여 가장 높은 상점절도 경험율을 보였다. 지역에 있어서는 중소도시가 8.7%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곳은 13.0%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이고 뒤를 이어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이 10.6%의 경험율로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계층에 따른 차이는 앞서 살펴본 다른 경우에서와 동일하게 하층 청소년들의 경험율이 1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간층이 10.2%, 상층이 9.3%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99> 상점 절도: 행동경험- 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교 급	중학교	92.8	7.2
	일반고	87.4	12.6
	실업고	86.8	13.2
지 역	서 울	87.0	13.0
	대도시	89.4	10.6
	중소도시	91.3	8.7
	농 촌	91.1	8.9
계 층	하 층	86.7	13.3
	중 간	89.8	10.2
	상 층	90.7	9.3

통계치: 교급 $\chi^2=48.88^{***}$, 지역 $\chi^2=15.83^{***}$, 계층 $\chi^2=9.94^{**}$

상점 절도 행동에 대한 허용도 평균값의 차이는 네 변인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평균 1.49, 여자가 1.43으로 남자 청소년

들에게서 상점 절도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가 나타났지만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이 1.53, 일반계 고교생이 1.50으로 거의 유사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평균 1.4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보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지역 청소년들이 평균 1.51로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였으며, 대도시 청소년들이 평균 1.44로 가장 낮은 허용도를 보였다. 계층별 차이는 다른 경우에서와 동일하게 하층 청소년의 경우 평균 1.54로 상점 절도에 대해 허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간층과 상층 청소년들은 각각 1.45와 1.42의 평균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낮은 허용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0> 상점 절도: 행동허용도-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49	0.68
	여 자	1.43	0.63
교 급	중학교	1.40	0.64
	일반고	1.50	0.68
	실업고	1.53	0.64
지 역	서 울	1.51	0.70
	대도시	1.44	0.65
	중소도시	1.45	0.65
	농 촌	1.47	0.64
계 층	하 층	1.54	0.69
	중 간	1.45	0.64
	상 층	1.42	0.66

통계치: 성별 F=10.01**, 교급 F=20.93***, 지역 F=2.83*, 계층 F=9.08***

한편, 상점 절도에 대한 행동의도에 있어서는 네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공공기물 파손

공공기물 파손 행동 경험 유무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는 계층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독립변수군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들의 경험정도가 16.2%로서 8.4%를 보이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의 공공기물 파손 경험정도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급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교생이 13.8%로 가장 높은 정도의 행동 경험을 보이고 있었고 실업계 고교생이 12.9%, 중학생이 11.1%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의 경우에는 농촌과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각각 14.6%와 14.5%의 경험정도를 보여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지역이 11.7%였고 중소도시는 10.8%로 가장 낮은 경험정도를 보였다.

<표 IV-101> 공공기물 파손: 행동경험- 성·교급·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83.8	16.2
	여 자	91.6	8.4
교 급	중학교	88.9	11.1
	일반고	86.2	13.8
	실업고	87.1	12.9
지 역	서 울	85.3	14.7
	대도시	88.4	11.6
	중소도시	90.7	9.3
	농 촌	83.5	16.5

통계치: 성별 $\chi^2=20.23^{***}$, 교급 $\chi^2=8.15^*$, 지역 $\chi^2=13.35^{**}$

공공기물 파손에 대한 허용도에 대해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계층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3 개 독립변수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평균 1.78로 1.73을 나타낸 남자청소년들보다 다소 높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교급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은 평균 1.80을 나타내고 있는 실업계 고교생이었으며, 일반계 고교생과 중학생은 각각 1.77과 1.72로 나타났다. 지역적 차이에 있어서는 서울 지역이 평균 1.81로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중소도시, 농촌, 대도시 등은 각각 1.76, 1.75, 1.72의 허용도를 지니고 있었다.

공공기물 파손 행동에 대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해 하위집단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이 부분에서는 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102> 공공기물 파손: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73	0.77
	여 자	1.78	0.74
교 급	중학교	1.72	0.78
	일반고	1.77	0.75
	실업고	1.80	0.73
지 역	서 울	1.81	0.79
	대도시	1.72	0.74
	중소도시	1.76	0.77
	농 촌	1.75	0.72

통계치: 성별 F=7.09**, 교급 F=4.78**, 지역 F=4.55**

(5) 타인 폭행

폭행 경험정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에서는 지역적 차이를 제외한 3가지 독립변수군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되었다.

<표 IV-103> 타인 폭행: 행동경험- 성·교급·계층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79.7	20.3
	여 자	93.7	6.3
교 급	중학교	87.9	12.1
	일반고	86.6	13.4
	실업고	82.7	17.3
계 층	하 층	82.9	17.1
	중 간	86.9	13.1
	상 층	87.6	12.4

통계치: 성별 $\chi^2=246.74^{***}$, 교급 $\chi^2=19.26^{***}$, 계층 $\chi^2=11.46^{**}$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들이 폭행의 경험에 있어서는 20.3%로서 6.3%인 여자 청소년들의 폭행 정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급에 있어서도 실업계 고교생이 17.3%의 경험율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일반계 고교생과 중학생은 각각 13.4%, 12.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율을 보였다. 계층의 경우에도 하층 청소년들이 타인 폭행에 있어 다른 계층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낮은 정도를 보인 상층의 경우에는 12.4%였다. 타인 폭행에 대한 허용도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타 하위집단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표 IV-104> 타인 폭행: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58	0.77
	여 자	1.40	0.64
교 급	중학교	1.46	0.71
	일반고	1.52	0.73
	실업고	1.54	0.70
지 역	서 울	1.51	0.74
	대도시	1.45	0.72
	중소도시	1.46	0.68
	농 촌	1.64	0.75
계 층	하 층	1.54	0.73
	중 간	1.50	0.70
	상 층	1.46	0.72

통계치: 성별 F=100.92***, 교급 F=6.65**, 계층 F=3.07*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이 평균 1.58로 1.40을 나타내고 있는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정도의 허용도를 보이고 있다. 교급의 경우에는 허용도에 대한 태도가 중학생과 고교생으로 크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중학생의 허용도는 1.46인데 반해 실업계·일반계 고교생의 폭행 허용도는 각각 1.54와 1.52였다. 계층별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하층과 중간층 청소년들이 각각 1.54와 1.50으로 높았으며 상층 청소년들은 평균 1.46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낮은 허용도를 보였다.

타인 폭행에 대한 행동의도의 경우에는 교급에 의한 집단간 차이에서만 유의미성을 보였는데, 이 경우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한 집단은 중학생(59.6%)과 실업계 고교생(59.3%)이었으며 일반계 고교생은 50.0% 정도만 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교생의 10.5%가 그렇게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실업계 고교생은 오히려 4.1%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함으로써 가장 낮은 행동의도를 보였다.

<표 IV-105> 타인 폭행: 행동의도-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59.6	32.6	7.8
	일반고	50.0	39.5	10.5
	실업고	59.3	36.6	4.1

통계치: 교급 $\chi^2=10.40^*$

(6) 패싸움 참여

패싸움에 대한 행동경험의 경우 하위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과 교급에서만 나타났으며, 지역적 차이와 계층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들의 패싸움 경험이 전체의 8.7%로서 여자 청소년의 5.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교생이 10.7%의 경험율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06> 패싸움 참여: 행동경험- 성·교급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1.3	8.7
	여 자	94.2	5.8
교 급	중학교	94.3	5.7
	일반고	92.6	7.4
	실업고	89.3	10.7

통계치: 성별 $\chi^2=19.26^{***}$, 교급 $\chi^2=30.51^{***}$

패싸움에 대한 허용정도에 대해서는 성별과 교급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패싸움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었는데 평균 1.72의 값을 보여 1.58을 나타낸 여자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에 있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중학

생은 평균 1.59이었지만 실업계·일반계 고교생은 각각 1.71과 1.69를 나타내어 패싸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07> 패싸움 참여: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72	0.86
	여 자	1.58	0.76
교 급	중학교	1.59	0.81
	일반고	1.69	0.84
	실업고	1.71	0.76
지 역	서 울	1.68	0.84
	대도시	1.61	0.82
	중소도시	1.60	0.77
	농 촌	1.80	0.83

통계치: 성별 $F=46.04^{***}$, 교급 $F=14.39^{***}$

한편, 패싸움에 대한 행동의도에 대해서는 계층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하층 청소년들(54.8%)과 중간층 청소년들(57.9%)은 과반수 이상이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면 상층 청소년들은 53.6%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IV-108> 패싸움 참여: 행동의도- 계층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계 층	하 층	54.8	38.7	6.5
	중 간	57.9	35.0	7.1
	상 층	40.2	53.6	6.2

통계치: $\chi^2=9.61^*$

(7) 공공장소 소란행동

공공장소 소란행동에 대한 경험정도는 성별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급과 계층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적 문제행동들에서와는 달리 여자청소년들의 경험정도(28.0%)가 남자 청소년들의 경험정도(2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 차이에 있어서는 서울의 경우 31.8%를 보여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가 27.9%로 다음을 차지했고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는 각각 22.2%와 22.1%를 보여 가장 낮은 경험정도를 나타냈다.

<표 IV-109> 공공장소 소란행위: 행동경험- 성·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75.0	25.0
	여 자	72.0	28.0
지 역	서 울	68.2	31.8
	대도시	72.1	27.9
	중소도시	77.9	22.1
	농 촌	77.8	22.2

통계치: 성별 $\chi^2=7.07^{**}$, 지역 $\chi^2=43.33^{***}$

공공장소 소란행동에 대한 허용도는 성별, 교급, 지역 등과 같은 독립변수군에서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행위경험정도에서와 동일하게 여자 청소년들의 허용도가 평균 2.02로 1.84를 보인 남자 청소년들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교생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중학생은 1.86이었지만 일반계·실업계 고교생은 각각 1.98과 1.97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 차이도 행동경험에서와 유사하게 서울 지역이 평균 2.00으로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가 1.92, 농촌이 1.90, 중소도시가 1.89의 수치를 나타냈다.

<표 IV-110> 공공장소 소란행동: 행동허용도- 성 · 교급 · 지역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84	0.79
	여 자	2.02	0.78
교 급	중학교	1.86	0.81
	일반고	1.98	0.80
	실업고	1.97	0.73
지 역	서 울	2.00	0.83
	대도시	1.92	0.80
	중소도시	1.89	0.77
	농 촌	1.90	0.74

통계치: 성별 $F=72.19^{***}$, 교급 $F=15.06^{***}$, 지역 $F=5.42^{***}$

공공장소 소란에 대한 행동의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하위집단별 차이에서만 유의미성이 나타났는데, 특히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 남녀 모두 과반수를 상회(남자 55.1%, 여자 50.1%)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앞으로 또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비율이 10.4%로서 7.1%인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IV-111> 공공장소 소란행동: 행동의도- 성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55.1	37.7	7.1
	여 자	50.1	39.5	10.4

통계치: $\chi^2=6.43^*$

(8) 친구따돌리기(왕따)

친구따돌리기(왕따)에 대한 경험정도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하위집단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9.6%의 경험율을 보이고 있는 남자 청소년들보다 13.3%의 경험율을 나타내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교급에 있어서도 여타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중학교에서의 왕따가 고등학교에서보다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계·실업계 고교생의 경험율이 각각 10.4%, 9.0%인데 반해 중학생의 경험율은 13.2%를 나타내어 중학교에서의 왕따현상이 보다 심각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일수록 왕따 가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는데, 즉 서울(1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11.4%)와 중소도시(10.6%), 농촌(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차이를 보면 여타의 문제행동에서와는 달리 상층 청소년들이 왕따의 가해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상층 청소년의 13.2%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과 하층 청소년들은 반면 왕따 가해 경험이 각각 10.9%와 10.4%로 나타났다.

<표 IV-112> 친구따돌리기(왕따):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0.4	9.6
	여 자	86.7	13.3
교 급	중학교	86.8	13.2
	일반고	89.6	10.4
	실업고	91.0	9.0
지 역	서 울	86.5	13.5
	대도시	88.6	11.4
	중소도시	89.4	10.6
	농 촌	90.6	9.4
계 층	하 층	89.6	10.4
	중 간	89.1	10.9
	상 층	86.8	13.2

통계치: 성별 $\chi^2=20.23^{***}$, 교급 $\chi^2=16.98^{***}$, 지역 $\chi^2=9.24^*$, 계층 $\chi^2=6.78^*$

친구따돌리기(왕따)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 하위집단별 차이는 성별, 교급, 지역 등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평균 1.52의 태도를 보여 1.44를 나타낸 남자 청소년들보다 왕따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있어서는 중학생의 경우 평균 1.52의 허용도를 보여 고등학교 청소년들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지역적 차이에 있어서는 서울 지역 청소년들이 1.55로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였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1.46, 농촌 지역은 1.44로 나타났다.

<표 IV-113> 친구따돌리기(왕따):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44	0.72
	여 자	1.52	0.76
교 급	중학교	1.52	0.78
	일반고	1.44	0.71
	실업고	1.46	0.68
지 역	서 울	1.55	0.80
	대도시	1.46	0.72
	중소도시	1.46	0.72
	농 촌	1.44	0.71

통계치: 성별 $F=16.35^{***}$, 교급 $F=7.44^{**}$, 지역 $F=5.09^{**}$

왕따에 대한 행동의도에 있어서는 성별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응답에 61.6%가 답함으로써 53.6%인 여자 청소년들의 행동의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또 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도 10.5%를 나타내어 7.2%를 보인 여자 청소년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들이 39.1%로 27.9%인 남자 청소년들을 앞서고 있다.

<표 IV-114> 친구따돌리기(왕따): 행동의도- 성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61.6	27.9	10.5
	여 자	53.6	39.1	7.2

통계치: $\chi^2=9.24^*$

다. 요약 및 특성

폭력/절도형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결과의 내용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제행동의 경험정도에 있어서는 “공공장소 소란행동”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외에도 “폭행” “공공기물 파손” “친구따돌리기(왕따)” “상점 절도” 등의 순으로 경험빈도가 나타났다.

둘째,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공공장소 소란행동”에 대한 허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패싸움 참여” “공공기물 파손” “친구따돌리기(왕따)” 등의 순서로 허용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셋째, 문제행동에 대한 타인인지도에 있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경우, 친구들만 알고 있는 경우, 부모님도 알고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친구들만 알고 있는 경우는 문제행동 유형과 관계 없이 높은 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아무도 모르는 경우는 “타인 금품 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부모님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폭행”과 “패싸움 참여” 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행동의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행동에 있어 하지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하겠다는 응답률은 “금품 갈취”가 가장 높았고 여타 항목들은 6-8% 정도의 범위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각 단위행동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 정도를 보면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집단차를 보이고 있는데, “금품 절도” 등 재산범의 경우에는 주로 남자, 실업계 고교생, 서울, 하층 등의 하위집단에서 높은 경험 및 허용도 등이 나타났으며, “공공기물 파손” “폭행” 등과 같은 행위에 있어서는 남자, 고교생, 하층, 농촌 등의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장소 소란행동”에서는 여자, 서울, 중학생 등에서의 경험이 많았고 “친구따돌리기(왕따)”에서도 여자, 서울, 중학생, 상층 청소년 등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2) 성비행형 문제행동

가. 전체 비교

(1) 행동경험

성비행형 문제행동의 경험정도에 대해서는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사창가 배회”의 4가지 단위행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다음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매매”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한 사례나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모두 각각 0.8%와 0.7%에 해당하는 등 비율은 높지 않으며, “강제적인 성관계” 역시 경험비율이 0.7%이고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비율도 0.6%로서 높지 않다. 그러나,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과 “사창가 배회” 등은 이보다 다소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고의적인 신체접촉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이 2.4%이고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율은 1.9%이며, “사창가 배회”는 각각 4.2%와 3.3%를 보이고 있다.

<표 IV-115> 성비행: 행동경험

	(단위: %)	
	지금까지 경험	최근 1년간 경험
성매매	0.8	0.7
강제적인 성관계	0.7	0.6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2.4	1.9
사창가 배회	4.2	1.9

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최근 1년 동안의 경험 빈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에서와 같이 “성매매”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제적인 성관계”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사창가 배회”의 순이었다.

<표 IV-116> 성비행: 최근1년간 행동경험·빈도

	경험자(%)	경험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매매	0.7	3.81	1.43
강제적인 성관계	0.6	3.55	1.62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1.9	2.91	1.44
사창가 배회	3.3	2.86	1.43

(2) 행동허용도

성비행 문제행동의 각 단위행동에 대한 행동허용도를 보면 “강제적인 성관계”의 경우에는 허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3.6%밖에 되지 않고 “성매매” 또한 7.2%에 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두가지 문제행동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이나 “사창가 배회” 등에 대해서는 허용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 있는데, 신체접촉의 경우에는 허용적 태도가 17.6%로 나타났으며 사창가 배회는 21.1%가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7> 성비행: 행동허용도

(단위: %)

	허용적 태도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성매매	7.2	5.3	1.9
강제적인 성관계	3.6	2.5	1.1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17.6	13.5	4.1
사창가 배회	21.1	17.0	4.1

(3) 타인인지도

성비행 문제행동에 대한 타인인지도를 보면 “성매매”와 “강제적인 성관계”에서의 인지도 유형과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과 “사창가 배회” 등에서의 유형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IV-118> 성비행: 타인인지도

(단위: %)

	아무도 모른다	알고 있다	
		친구들만	부모님도
성매매	17.9	38.5	43.6
강제적인 성관계	18.2	39.4	42.4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42.2	43.0	14.8
사창가 배회	15.4	57.3	27.4

우선 “성매매”와 “강제적인 성관계”에 있어서는 비행경험 청소년들 중 각각 43.6%와 42.4%가 부모님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아무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7.9%와 18.2%에 불과했다. 그러나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의 경우에는 친구와 공유하거나(43.0%)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알고 있는 경우(42.2%)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창가 배회”의 경우에도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57.3%로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행동의도

성비행적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의도를 알아본 응답항목 분석 결과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매매”와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사례가 각각 48.6%와 47.1%를 차지하는 등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강제적인 성관계”의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 비율도 35.3%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의 비율보다 높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

측”과 “사창가 배회” 등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0.2%와 40.7%로 여타 응답항목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 “성매매”와 “강제적인 성관계”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창가 배회”의 경우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40.3%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19> 성비행: 행동의도

	(단위: %)		
	안할 것이다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매매	21.6	29.7	48.6
강제적인 성관계	35.3	17.6	47.1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33.9	40.2	26.0
사창가 배회	40.3	40.7	19.0

나. 단위행동 분석

(1) 성매매

성매매 문제행동의 경험정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하위집단별 유의미성이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평균 1.50으로 1.26을 나타낸 여자 청소년들보다 성매매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교급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교생이 평균 1.49로 가장 높은 허용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일반계 고교생이 1.40으로 높았고 중학생이 1.33으로 가장 낮은 정도를 보였다.

<표 IV-120> 성매매: 행동허용도-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50	0.83
	여 자	1.26	0.58
교 급	중학교	1.33	0.67
	일반고	1.40	0.77
	실업고	1.49	0.76
지 역	서 울	1.41	0.76
	대도시	1.34	0.69
	중소도시	1.40	0.73
	농 촌	1.46	0.79
계 층	하 층	1.44	0.76
	중 간	1.38	0.70
	상 층	1.34	0.72

통계치: 성별 $F=155.48^{***}$, 교급 $F=20.83^{***}$, 지역 $F=6.63^{***}$, 계층 $F=5.31^{**}$

지역에 있어서는 농촌 지역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높은 정도의 허용적 태도가 나타났는데 그 평균치는 1.46이었다. 서울 지역은 1.41로 두번째였으며, 중소도시와 대도시를 각각 1.40, 1.34를 나타냈다. 계층별 구분에 있어도 유의미성이 나타났는데, 성매매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계층은 1.44의 평균치를 보인 하층 청소년들이었으며 상층 청소년들이 평균치 1.34로 가장 허용적이지 못했다.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들의 행동의도는 하위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2) 강제적인 성관계

강제적인 성관계 경험정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 검증은 성별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 경험이 있는 사례가 0.9%였으며 여자 청소년에 있어서는 0.5%로 나타났다.

<표 IV-121> 강제적인 성관계: 행동경험- 성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9.1	0.9
	여 자	99.5	0.5

통계치: $\chi^2=4.14^*$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있어서는 성별, 교급, 지역 등과 같은 하위집단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평균 1.33으로 여자 청소년들의 평균치인 1.16보다 높게 나타나 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급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교생이 평균 1.32로 강제적인 성관계에 있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음이 1.24와 1.22를 보인 일반계 고교생과 중학생들이었다. 지역에 있어서는 농촌과 서울 청소년들이 각각 1.27로 가장 허용적이었으며 중소도시 청소년들은 1.26으로 두번째로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 청소년들에게서는 1.22의 평균값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허용도를 보였다.

<표 IV-122> 강제적인 성관계: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33	0.67
	여 자	1.16	0.46
교 급	중학교	1.22	0.56
	일반고	1.24	0.60
	실업고	1.32	0.62
지 역	서 울	1.27	0.66
	대도시	1.22	0.56
	중소도시	1.26	0.59
	농 촌	1.27	0.56

통계치: 성별 $F=127.24^{***}$, 교급 $F=12.44^{***}$, 지역 $F=3.81^{**}$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행위의도는 하위집단별 차이와 유의미한 관계

에 있지 않음이 검증되었다.

(3)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교급, 지역, 계층별 차이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고의적인 신체접촉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들의 1.3%, 남자 청소년들의 3.5%가 경험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V-123> 고의적인 신체접촉: 행동경험- 성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6.5	3.5
	여 자	98.7	1.3

통계치: 성별 $\chi^2=27.63^{***}$

고의적인 신체접촉 행동에 대한 허용도를 나타낸 결과를 보면 지역적 차이를 제외한 모든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은 허용도 평균 1.68로 나타났지만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평균 1.78의 허용도가 나타났다. 이는 고의적인 신체접촉에 있어 남자 청소년들이 보다 높은 허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급에 있어서는 고교생과 중학생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중학생은 1.63의 허용도를 보였지만 고교생의 경우에는 실업계 고교생이 1.85, 일반계 고교생이 1.80의 허용도를 보여 고교생이 되면서 고의적인 신체접촉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에 있어서는 하층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높은 허용적 태도가 나타났는데, 하층 청소년들의 평균값은 1.80이었으며, 중간층이 1.72, 상층이 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4> 고의적인 신체접촉: 행동허용도- 성·교급·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78	0.93
	여 자	1.68	0.87
교 급	중학교	1.63	0.87
	일반고	1.80	0.94
	실업고	1.85	0.88
계 층	하 층	1.80	0.93
	중 간	1.72	0.88
	상 층	1.70	0.93

통계치: 성별 $F=19.09^{***}$, 교급 $F=34.09^{***}$, 계층 $F=3.04^*$

고의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행동의도에 있어서 하위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교급에서만 관찰되었다. 교급의 경우 중학생 중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일반계 고교생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실업계 고교생은 하지 않겠다에 응답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계 고교생과 중학생은 하겠다에 응답한 경우가 각각 32.1%와 2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실업계 고교생은 단지 5.0%만이 하지 않겠다에 응답하고 있음으로써 매우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125> 고의적인 신체접촉: 행동의도-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41.2	31.4	27.5
	일반고	21.4	46.4	32.1
	실업고	50.0	45.0	5.0

통계치: $\chi^2=10.79^*$

(4) 사창가 배회

사창가 배회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과 교급에서만 관찰되었으며 지역과 계층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의 5.4%가 사창가 배회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여자 청소년들 중에서는 2.9%만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들의 빈도가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교급에 있어서는 중학생에서 실업계 고교생으로 갈수록 점차 경험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학생의 경험율이 2.9%, 일반계 고교생의 경험율이 4.4%인데 반해 실업계 고교생은 6.8%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26> 사창가 배회: 행동경험- 성·교급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4.6	5.4
	여 자	97.1	2.9
교 급	중학교	97.1	2.9
	일반고	95.6	4.4
	실업고	93.2	6.8

통계치: 성별 $\chi^2=21.31^{***}$, 교급 $\chi^2=31.15^{***}$

사창가 배회에 대한 행동허용도에 있어서는 네 변인 모두에서 하위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들의 허용도 평균이 1.93인데 반해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1.64를 나타내고 있어 사창가 배회에 대한 두 집단간의 명확한 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교급에 있어서는 중학생에서 실업계 고교생으로 갈수록 점차 허용도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학생의 허용도가 1.65, 일반계 고교생이 1.82인데 반해 실업계 고교생의 허용도는 2.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 차이 또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허용도가 평균 1.94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중소도시, 서울, 대도시 청소년들의 사창가 배회 허용도는 각각 1.79, 1.78, 1.75 이었다. 계층에 있어서는 하층 청소년들의 허용도가 가장 높았는데 평균 1.88을 보였고 중간층 청소년들이 1.79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상층 청소년들은 1.71의 평균값을 보여 사창가 배회에 대해 가장 낮은 허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7> 사창가 배회: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93	0.99
	여 자	1.64	0.83
교 급	중학교	1.65	0.89
	일반고	1.82	0.94
	실업고	2.05	0.94
지 역	서 울	1.78	0.93
	대도시	1.75	0.91
	중소도시	1.79	0.93
	농 촌	1.94	0.96
계 층	하 층	1.88	0.93
	중 간	1.79	0.91
	상 층	1.71	0.94

통계치: 성별 F=151.60***, 교급 F=80.45***, 지역 F=8.06***, 계층 F=9.58***

사창가 배회에 대한 행동의도에 대해서는 성별과 지역적 차이에 있어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되었으며 교급과 계층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를 보면 남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하지 않겠다에 대한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겠다에는 41.4%가 응답했고 하겠다에는 14.6%만이 응답을 함으로써 많은 수의 남자 청소년들은 사창가 배회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모르겠다에 39.2%, 하지 않겠다에 32.4%, 하겠다에 28.4%가 응답함으로써 남자 청소년들보다 긍정적 의도 또는 잠재적(모르겠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있어서는 서울 청소년들의 경우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와 모르겠다가 각각 49.5%와 35.6%를 나타냈고, 중소도시는 43.9%를 보인 하지 않겠다가, 그리고 농촌 청소년의 경우에는 48.1%를 보인 모르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겠다는 경우를 보면 서울(27.0%)과 농촌(25.9%)이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각각 18.2%와 14.9%를 보였다.

<표 IV-128> 사창가 배회: 행동의도- 성·지역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43.9	41.4	14.6
	여 자	32.4	39.2	28.4
지 역	서 울	18.9	54.1	27.0
	대도시	49.5	35.6	14.9
	중소도시	43.9	37.9	18.2
	농 촌	40.3	48.1	25.9

통계치: 성별 $\chi^2=6.69^*$, 지역 $\chi^2=13.55^*$

다. 요약 및 특성

성비행 문제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비행 문제행동들 중 가장 많은 경험정도가 관찰된 단위행동은 “사창가 배회”였으며, 다음으로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이었다. “성매매”와 “강제적인 성관계” 경험자는 전체 청소년 중 1% 미만이었다.

둘째, 성비행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가장 허용적인 경우는 “사창가 배회”였으며,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이 두번째를 차지했다.

셋째, 성비행에 대한 타인인지도의 경우 “사창가 배회”는 친구들만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나 “강제적인 성관계” 등은 부모님

도 알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고,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은 아무도 모르거나 친구들만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넷째, 성비행에 대한 행동의도를 보면 “성매매”와 “강제적인 성관계”의 경우 하겠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과 “사창가 배회”는 하겠다는 응답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단위행동에 따른 하위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비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남자, 실업계 고교생, 농촌, 하층 등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높은 경험정도, 허용도, 행동의도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창가 배회”의 행동의도에 있어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에 보다 많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도피형 문제행동

가. 전체비교

(1) 행동경험

도피형 문제행동에는 “마약 복용” “환각약물 흡입” “자살 시도” 등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행동경험을 지금까지의 경험과 최근 1년간의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금까지의 경험자 비율을 보면 “마약 복용”의 경우 0.5%, “환각약물 흡입”의 경우 1.0% 이며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6.1%에 달하고 있다. 전체적인 분포규모로 볼 때 이들 세 가지 문제행동의 경험정도가 큰 규모라고 할 수 없지만 최근 1년간 경험정도를 볼 때 “마약 복용”은 0.5%로 지금까지의 경험정도와 동일하며, “환각약물 흡입” 또한 0.8%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유사한 정도이고, “자살 시도”의 경우에도 4.5%로 그렇게 낮

지 않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경험의 반복성이나 정도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IV-129> 도피형 문제행동: 행동경험

(단위: %)

	지금까지 경험	최근 1년간 경험
자살 시도	6.1	4.5
마약 복용	0.5	0.5
환각약물 흡입	1.0	0.8

더불어 최근 1년 동안의 경험 빈도를 보면 “마약 복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환각약물 흡입”이었으며, “자살 시도”의 경험빈도가 가장 낮았다.

<표 IV-130> 도피형 문제행동: 최근1년간 경험빈도

	경험자(%)	경험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살 시도	4.5	2.41	1.25
마약 복용	0.5	4.13	1.25
환각약물 흡입	0.8	3.63	1.54

(2) 행동허용도

도피형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허용도를 보면 “마약 복용”과 “환각약물 흡입” 등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허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허용정도는 “약물 흡입”이 3.5%, “마약 복용”은 3.1%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들 행동에 대해 나쁘지 않다라고 응답한 적극 허용 태도는 “약물 흡입”과 “마약 복용”이 각각 0.9%와 0.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허용적 태도가 16.3%로서 앞의 두가지 문제행동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표 IV-131> 도피형 문제행동: 행동허용도

(단위: %)

	허용적 태도 비율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자살 시도	16.3	11.6	4.7
마약 복용	3.1	2.3	0.8
환각약물 흡입	3.5	2.6	0.9

(3) 타인인지도

도피형 문제행동에 대한 타인인지도를 보면 “환각약물 흡입”과 “마약 복용”의 경우 부모님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이들 문제행동 경험 응답자 전체의 각각 50.0%와 7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55.6%가 아무도 모른다고 응답함으로써 앞선 두 경우와는 대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V-132> 도피형 문제행동: 타인인지도

(단위: %)

	아무도 모른다	알고 있다	
		친구들만	부모님도
자살 시도	55.6	29.3	15.1
마약 복용	8.0	20.0	72.0
환각약물 흡입	15.2	34.8	50.0

(4) 행동의도

한편 이들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의도의 경우 “마약 복용”은 하겠는데 응답한 경우가 54.2%로 가장 많았으며 하지 않겠다가 25.0%, 모르겠다가 20.8%를 차지하고 있었다. “환각약물 흡입”의 경우에도 40.5%가 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많았으며 하지 않겠다가 35.7%, 모르겠다가 23.8%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45.5%의 경험 응답자가 하지 않겠는데 표시함으로써 상반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르겠

다에 응답한 사례도 43.8%에 이르는 등 잠재적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133> 도피형 문제행동: 행동의도

(단위: %)

	안할 것이다	모르겠다	할 것이다
자살 시도	45.5	43.8	10.7
마약 복용	25.0	20.8	54.2
환각약물 흡입	35.7	23.8	40.5

나. 단위행동 분석

(1) 자살 시도

자살 시도 경험정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는 전체 독립변인군을 통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자살 시도는 여자 청소년들의 8.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3.6%를 나타낸 남자 청소년들보다 많은 자살 시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교생의 자살 시도가 7.3%로 가장 많았는데, 중학생(5.1%)에서 일반계 고교생(6.7%), 실업계 고교생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지역에 있어서는 서울 청소년들이 7.8%로 가장 높은 경험율을 보였으며 농촌 청소년들도 6.7%를 보여 그 뒤를 이었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소년들에게서는 각각 5.7%와 5.1%만이 관찰되었다. 계층에 있어서는 하층 청소년들이 9.3%로서 가장 많은 자살 시도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데, 6.6%를 보인 상층 청소년들의 시도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중간층 청소년들이 5.2%로 가장 낮았다.

<표 IV-134> 자살시도: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6.4	3.6
	여 자	91.1	8.9
교 급	중학교	94.9	5.1
	일반고	93.3	6.7
	실업고	92.7	7.3
지 역	서 울	92.2	7.8
	대도시	94.3	5.7
	중소도시	94.9	5.1
	농 촌	93.3	6.7
계 층	하 층	90.7	9.3
	중 간	94.8	5.2
	상 층	93.4	6.6

통계치: 성별 $\chi^2=69.94^{***}$, 교급 $\chi^2=8.62^*$, 지역 $\chi^2=10.21^*$, 계층 $\chi^2=19.93^{***}$

자살 시도 행동에 대한 허용도를 하위집단별 차이에 의해 살펴본 결과 모든 독립변인군에서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가 검증되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청소년들의 허용 정도가 평균 1.67로 남자 청소년들의 1.51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인 집단이 일반계 고교생들이었는데 평균 1.65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실업계 고교생(1.58), 중학생(1.54)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차이에 있어서는 서울에서의 자살 시도 허용도가 평균 1.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농촌 지역이 1.57, 중소도시가 1.56의 허용도를 나타냈다. 계층에 있어서는 하층과 상층 청소년들이 1.63의 평균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중간층 청소년들의 허용도는 1.5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35> 자살 시도: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51	0.91
	여 자	1.67	0.96
교 급	중학교	1.54	0.92
	일반고	1.65	0.97
	실업고	1.58	0.91
지 역	서 울	1.66	0.99
	대도시	1.57	0.94
	중소도시	1.56	0.90
	농 촌	1.57	0.93
계 층	하 층	1.63	0.99
	중 간	1.56	0.90
	상 층	1.63	0.98

통계치: 성별 $F=47.37^{***}$, 교급 $F=7.53^{**}$, 지역 $F=3.42^*$, 계층 $F=3.66^*$

자살 시도에 대한 행동 의도를 보면 교급과 계층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하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은 실업계 고교생(58.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일반계 고교생(45.1%), 중학생(37.5%)의 순이었다. 하겠다는 응답률은 일반계 고교생(13.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학생(12.5%), 실업계 고교생(3.7%) 순이었다.

계층에 있어서는 중간층 청소년(54.6%)에 있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다음으로 하층 청소년들(43.6%)과 상층 청소년들(3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르겠다에 응답한 경우가 상층청소년의 경우에는 55.1%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층과 중간층에서도 각각 43.6%와 35.5%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잠재적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136> 자살 시도: 행동의도- 교급·계층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37.5	50.0	12.5
	일반고	45.1	41.4	13.5
	실업고	58.5	37.8	3.7
계 층	하 층	43.6	43.6	12.8
	중 간	54.6	35.5	9.9
	상 층	34.8	55.1	10.1

통계치: 교급 $\chi^2=11.78^*$, 계층 $\chi^2=10.35^*$

(2) 환각약물 흡입

환각약물 흡입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는 성별에서만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성별에 있어서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험비율은 전체의 1.3% 인데, 이는 0.7%를 나타내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IV-137> 환각약물 흡입: 행동경험- 성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8.7	1.3
	여 자	99.3	0.7

통계치: $\chi^2=4.09^*$

약물흡입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만 유의미성이 나타났으며 교급, 지역, 계층 등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의 허용도가 평균 1.31로 1.24인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138> 환각약물 흡입: 행동허용도- 성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31	0.62
	여 자	1.24	0.54

통계치: F=19.87***

반면, 환각약물 흡입에 대한 행동의도에 있어서는 네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마약 복용

마약 복용 경험과 행동의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는 4 개의 독립변인 군 모두에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약 복용에 대한 행동허용도에 있어서는 성별의 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되었는데, 이 경우 남자 청소년들이 평균 1.27의 허용도를 보여 1.20인 여자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139> 마약 복용: 행동허용도- 성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27	0.60
	여 자	1.20	0.51

통계치: 성별 F=25.27***

다. 요약 및 특성

이상과 같은 통계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파형 문제행동들 중 가장 많은 경험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단위 행동은 “자살 시도”였으며 “환각약물 흡입”이 두번째, 그리고 “마약 복용”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의 경험과 비교해보면 동일 대상 청소년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 행동은 “마약 복용”이 가장 높고 “환각약물 흡입”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살 시도”는 세가지 단위행동들 중 행동허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전체 응답자 대비 허용적 태도의 정도가 높지 않았지만 “마약 복용”이나 “환각약물 흡입”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들 문제행동들에 대한 타인인지도를 보면 “자살 시도”의 경우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으며, “마약 복용”과 “환각약물 흡입”은 부모님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넷째, 행동의도에 있어서도 “자살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마약 복용”과 “환각약물 흡입”은 다시 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단위행동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자살 시도”와 “환각약물 흡입” 및 “마약 복용”의 두 경우가 구분되어짐을 알 수 있다.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여자, 실업계 고교생, 서울, 하층 등의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경험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허용도와 행동의도 면에서 일반계 고교생과 상층 청소년들에게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난 사실로 볼 때 일반계 고교생과 상층 청소년들에게서는 “자살 시도”의 잠재적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반면 “환각약물 흡입”과 “마약 복용”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문제행동(이하 “사이버 문제행동”)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행동을 지칭한다. 매체의 속성상 인터넷은 현실세계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가상현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입시준비 위주의 과도한 학업부담에 시달리면서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정보 습득의 경로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억압된 충동을 해소하고 성장기 특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인터넷 전용선망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에 미치는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기존의 문제행동과 구별하여 별도의 문제행동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행동항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행동의 일반화 수준, 사회적 관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두 14가지를 선정하였으며, 각 행동항목별 허용도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토대로 “사이버 가해형”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의 두가지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제행동 범주별 단위행동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140> 사이버 문제행동의 범주와 행동항목

유 형	단위행동
비가해형 행동	인터넷 과잉몰입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음란성 게임
	음란대화 시도
	폭력성 사이트 열람
	폭력성 게임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가해형 행동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
	온라인 욕설/폭언
	온라인 스토킹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웹사이트 해킹
	허위정보 유포

1)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가. 전체 비교

(1) 행동경험

사이버-비가해형 문제행동 범주에 속하는 8가지 문제행동 유형의 경험자 비율을 “지금까지의 행동경험과 최근 1년간 경험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먼저 지금까지의 경험자 비율을 보면, 전체 청소년의 약 절반(48.8%)이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폭력성 게임”(25.9%), “폭력성 사이트 열람”(22.6%),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22.4%), “음란성 게임”(20.4%)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할 이상, “인터넷 과잉몰입”(18.5%), “음란대화 시도”(13.3%) 경험자가

1할을 넘고 있다. “반사회적 사이트(자살/폭탄제조 등) 열람” 경험자는 1할 미만(3.8%)으로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음란/폭력관련 사이트 열람과 게임이 비가해형 문제행동의 가장 보편화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최근 1년간 행동경험자의 비율에 있어서도 역시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41.2%) 경험자가 가장 많고,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3.5%) 경험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1>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행동경험

(단위: %)

	지금까지 경험	최근1년간 경험
인터넷 과잉몰입	18.5	17.3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48.8	42.8
음란성 게임	20.4	17.2
음란대화 시도	13.3	11.2
폭력성 사이트 열람	22.6	19.8
폭력성 게임	25.9	23.6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3.8	3.4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22.4	20.4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행동경험·빈도 응답결과(5점 척도, 1~5점)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과잉 몰입”(3.22)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3.02)이 3점 이상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폭력성 게임”(2.83),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2.65), “폭력성 사이트 열람”(2.40),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2.39), “음란대화 시도”(2.35)의 순이었으며, “음란성 게임”(2.32)의 경험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과 “인터넷 과잉몰입”은 행동경험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행동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42> 비가해형 문제행동: 최근 1년간 경험빈도

	경험자(%)	경험빈도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 과잉몰입	17.3	3.22	1.23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42.8	2.39	0.91
음란성 게임	17.2	2.32	0.93
음란대화 시도	11.2	2.35	1.01
폭력성 사이트 열람	19.8	2.40	0.92
폭력성 게임	23.6	2.83	1.11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3.4	2.65	1.19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20.4	3.02	1.21

(2) 행동허용도

각 문제행동 유형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단계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허용적 태도(“전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저 그렇다”)와 비허용적 태도(“아주 나쁘다” “나쁘다”)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사이버-비가해형 문제행동의 8가지 유형 중에서 “폭력성 게임”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이 41.4%로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37.2%), “폭력성 사이트 열람”(33.5%),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31.6%)은 3할 이상의 청소년이, “음란성 게임”(28.5%), “음란대화 시도”(26.5%), “인터넷 과잉몰입”(23.9%)에 대해서는 2할 이상의 청소년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에 대해서 허용적인 청소년은 16.4%에 머물러 가장 소수였다.

사이버-비가해형 문제행동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대체로 음란물관련 행동보다는 폭력물관련 문제행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43> 비가해형 문제행동: 행동허용도

(단위: %)

	허용적 태도 비율	허용적 태도 비율	
		그저그렇다	나쁘지 않다
인터넷 과잉몰입	23.9	19.1	4.8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31.6	23.7	7.9
음란성 게임	28.5	22.2	6.3
음란대화 시도	26.5	20.0	6.5
폭력성 사이트 열람	33.5	25.3	8.2
폭력성 게임	41.4	29.8	11.6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16.4	12.8	3.6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37.2	24.9	12.3

(3) 타인인지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행동경험을 친구나 부모님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인터넷 과잉몰입”만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응답률(72.3%)이 가장 높았고, 다른 7가지 행동유형은 모두 친구들만 알고 있다는 응답률 5할 이상으로서 다수를 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응답비율을 비교해 보면,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36.3%)과 “음란대화 시도”(30.0%)가 3할대로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음란성 게임”(21.0%)이 2할, “폭력성 사이트 열람”(19.3%),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18.4%), “폭력성 게임”(12.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10.7%)이 1할 이상이었으며, “인터넷 과잉몰입”의 응답률이 9.5%로서 가장 낮았다.

<표 IV-144> 비가해형 문제행동: 타인인지도

(단위: %)

	아무도 모른다	알고 있다	
		친구들만	부모님도
인터넷 과잉몰입	9.5	18.2	72.3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18.4	73.4	8.2
음란성 게임	21.0	74.7	4.3
음란대화 시도	30.0	63.9	6.1
폭력성 사이트 열람	19.3	69.2	11.5
폭력성 게임	12.7	61.9	25.4
반사회적 사이트(자살/폭탄제조 등) 열람	36.3	45.6	18.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10.7	54.3	35.0

(4) 행동의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계속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행동유형에서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이 4할 이상으로서 가장 다수를 점하였다.

<표 IV-145> 비가해형 문제행동: 행동의도

(단위: %)

	안할 것이다	모르겠다	할 것이다
인터넷 과잉몰입	32.7	46.8	20.5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41.7	47.0	11.3
음란성 게임	37.2	48.4	14.4
음란대화 시도	42.2	43.3	14.5
폭력성 사이트 열람	37.8	48.5	13.7
폭력성 게임	26.1	49.3	24.6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29.0	46.4	24.6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19.0	42.6	38.4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38.4%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력성 게임”(24.6%),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24.6%), “인터넷 과잉몰입”(20.5%)이 2할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음란대화 시도”(14.5%), “음란성 게임”(14.4%), “폭력성 사이트 열람”(13.7%),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11.3%)을 계속 하겠다는 청소년은 2할 미만에 머물렀다.

나. 단위행동 분석

(1) 인터넷 과잉몰입

인터넷 과잉몰입 경험(지금까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보면 성·교급·지역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19.9%)가 여자(17.0%)보다 다소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23.4%)이 중학생(15.4%), 실업계 고교생(16.4%)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표 IV-146> 인터넷 과잉몰입: 행동경험- 성·교급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80.1	19.9
	여 자	83.0	17.0
교 급	중학교	84.6	15.4
	일반고	76.6	23.4
	실업고	83.6	16.4

통계치: 성별 $\chi^2=8.02^{**}$, 교급 $\chi^2=52.86^{***}$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교급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1.99)가 여자(1.90)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실업계 각 1.99)이 중학생(1.90)보다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었다. 인터넷 몰입 행동에 대한 허용도는 대체로 행동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147> 인터넷 과잉몰입: 행동허용도- 성 · 교급별

		평균값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99	0.96
	여 자	1.90	0.87
교 급	중학교	1.90	0.96
	일반고	1.99	0.88
	실업고	1.99	0.88

통계치: 성별 $F=13.86^{***}$, 교급 $F=7.73^{**}$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계층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중간층(19.7%), 상층(19.0%)은 모두 2할 미만인 반면 하층 청소년은 27.7%에 달하였다.

<표 IV-148> 인터넷 과잉몰입: 행동의도- 계층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계 층	하 층	29.7	42.6	27.7
	중 간	30.8	49.5	19.7
	상 층	38.4	42.7	19.0

통계치: $\chi^2=10.50^*$

(2)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포르노 사이트를 열람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교급·지역·계층의 4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음란 사이트 열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별로는 남자가 70.5%로서 여자(25.2%)의 배 이상에 달하였고, 교급별로는 중학생(36.6%)이 절반에도 못미침에 비해 실업계·일반계 고교생(각각 60.1%, 57.3%)은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53.8%)가 가장 많고 다른 세 지역은 모두 5할 미만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의 경험률(54.9%)이 가장 높고, 이어서 중간층(49.0%), 상층(45.1%)의 순이었다.

<표 IV-149>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29.5	70.5
	여 자	74.8	25.2
교 급	중학교	63.4	36.6
	일반고	42.7	57.3
	실업고	39.9	60.1
지 역	서 울	56.0	44.0
	대도시	46.2	53.8
	중소도시	53.8	46.2
	농 촌	53.5	46.5
계 층	하 층	45.1	54.9
	중 간	51.0	49.0
	상 층	54.9	45.1

통계치: 성별 $\chi^2=1206.47^{***}$, 교급 $\chi^2=275.87^{***}$, 지역 $\chi^2=40.09^{***}$, 계층 $\chi^2=21.16^{**}$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에 대한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에 있어서도 성·교급·지역·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동경험자가 많은 집단일수록 높은 행동허용도를 나타내어, 성별로는 남자(2.36)가 여자(1.83)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2.33, 실업계 2.26)이

중학생(1.85)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1.03)- 중소도시(1.00)- 농촌(0.98)- 서울(0.96)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도 행동경험자가 가장 많은 집단인 하층(2.24)이 중간층(2.10), 상층(2.05)에 비해 허용도 점수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표 IV-150>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값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36	1.06
	여 자	1.83	0.86
교 급	중학교	1.85	0.96
	일반고	2.33	1.01
	실업고	2.26	0.95
지 역	서 울	2.07	0.96
	대도시	2.17	1.03
	중소도시	2.04	1.00
	농 촌	2.09	0.98
계 층	하 층	2.24	1.02
	중 간	2.10	0.98
	상 층	2.05	1.01

통계치: 성별 $F=429.80^{***}$, 교급 $F=161.92^{***}$, 지역 $F=6.71^{***}$, 계층 $F=9.69^{***}$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교급·지역의 3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음란/포르노 사이트를 열람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성별로는 남자가 13.2%로서 여자(5.8%)의 배 이상에 달하였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이 15.1%로서 실업계 고교생(9.1%), 중학생(8.2%)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일반계 고교생은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에 대하여 행동경험이나 행동허용도에서는 실업계 고교생과 큰 차이가 없지만 행동의도에서는 행위지속 의사를 가진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표 IV-151>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행동의도- 성·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37.6	49.2	13.2
	여 자	53.9	40.3	5.8
교 급	중학교	48.7	43.2	8.2
	일반고	36.0	48.9	15.1
	실업고	42.1	48.8	9.1

통계치: 성별 $\chi^2=65.68^{***}$, 교급 $\chi^2=49.42^{***}$

(3) 음란성 게임

지금까지 컴퓨터·인터넷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교급·지역별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동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가 4.2%에 불과한 반면 남자는 35.4%에 달했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26.1%, 실업계 23.4%)이 2할을 상회하여 중학생(14.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22.7%)> 농촌(20.2%)> 중소도시(19.1%)> 서울(17.8%)의 순서였다.

<표 IV-152> 음란성 게임: 행동경험- 성·교급·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64.6	35.4
	여 자	95.8	4.2
교 급	중학교	85.7	14.3
	일반고	73.9	26.1
	실업고	76.6	23.4
지 역	서 울	82.2	17.8
	대도시	77.3	22.7
	중소도시	80.9	19.1
	농 촌	79.8	20.2

통계치: 성별 $\chi^2=877.90^{***}$, 교급 $\chi^2=108.23^{***}$, 지역 $\chi^2=14.15^{**}$

컴퓨터·인터넷을 통하여 음란성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성·교급·계층의 4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동허용도 점수에 있어서 성별로는 남자(2.29)가 여자(1.80)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실업계 2.25, 일반계 2.20)이 중학생(1.80)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2.10)-농촌(2.09) 청소년의 허용도가 중소도시(2.01)-서울(2.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어 하층(2.21)-중간층(2.05)-상층(1.96)의 순이었다.

<표 IV-153> 음란성 게임: 행동허용도-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값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29	1.02
	여 자	1.80	0.81
교 급	중학교	1.84	0.94
	일반고	2.20	0.96
	실업고	2.25	0.92
지 역	서 울	2.00	0.93
	대도시	2.10	0.98
	중소도시	2.01	0.95
	농 촌	2.09	0.97
계 층	하 층	2.21	1.00
	중 간	2.05	0.94
	상 층	1.96	0.95

통계치: 성별 F=402.03***, 교급 F=115.83***, 지역 F=4.24***, 계층 F=19.40***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서는 4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음란대화 시도

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성과의 음란대화 시도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교급·지역·계층의 4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동경험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17.9%로서 여자(8.4%)의 배 이상에 달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17.4%)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일반계 고교생(13.0%), 중학생(11.7%)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농촌이 18.1%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도시(13.7%)·중소도시(12.9%)의 순이었으며, 서울은 1할 남짓한 수준(10.1%)으로 가장 적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경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하층(17.2%)·중간층(13.1%)·상층(11.3%)의 순이다.

<표 IV-154> 음란대화 시도: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82.1	17.9
	여 자	91.6	8.4
교 급	중학교	88.3	11.7
	일반고	87.0	13.0
	실업고	82.6	17.4
지 역	서 울	89.9	10.1
	대도시	86.3	13.7
	중소도시	87.1	12.9
	농 촌	81.8	18.2
계 층	하 층	82.8	17.2
	중 간	86.9	13.1
	상 층	88.7	11.3

통계치: 성별 $\chi^2=115.56^{***}$, 교급 $\chi^2=22.94^{***}$, 지역 $\chi^2=27.58^{***}$, 계층 $\chi^2=17.15^{***}$

인터넷을 통한 음란대화 시도에 대한 행위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행동경험에 대한 응답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성·교급·지역·계

층별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허용도 점수에 있어서 성별로는 남자(2.22)가 여자(1.84)보다,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21)이 일반계 고교생(2.13), 중학생(1.88)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2.13) 청소년의 허용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도시(2.06)-중소도시(2.02)-서울(1.96)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2.18)이 중간층(2.03)-상층(1.94)에 비해 다소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었다.

<표 IV-155> 음란대화 시도: 행동허용도-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값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22	1.00
	여 자	1.84	0.86
교 급	중학교	1.88	0.97
	일반고	2.13	0.93
	실업고	2.21	0.93
지 역	서 울	1.96	0.91
	대도시	2.06	0.96
	중소도시	2.02	0.97
	농 촌	2.13	0.98
계 층	하 층	2.18	1.00
	중 간	2.03	0.93
	상 층	1.94	0.94

통계치: 성별 $F=241.85^{***}$, 교급 $F=62.60^{***}$, 지역 $F=4.24^{**}$, 계층 $F=17.97^{***}$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위의도 응답결과에서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위지속 의사를 나타난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15.0%)가 여자(13.5%)보다 다소 많았고 앞으로 안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여자가 과반수(50.7%)에 달하는 반면, 남자는 4할 미만(38.6%)에 머물렀다.

<표 IV-156> 음란대화 시도: 행동의도- 성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성 별	남 자	38.6	46.4	15.0
	여 자	50.7	35.9	13.5

통계치: $\chi^2=9.64^{**}$

(5)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인터넷의 폭력성 사이트 열람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교급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폭력성 사이트 열람 경험자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가 34.5%로서 여자(9.8%)의 3배 이상에 달하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26.7%, 실업계 25.8%)이 중학생(17.8%)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표 IV-157> 폭력성 사이트 열람: 행동경험- 성·교급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65.5	34.5
	여 자	90.2	9.8
교 급	중학교	82.2	17.8
	일반고	73.3	26.7
	실업고	74.2	25.8

통계치: 성별 $\chi^2=508.68^{***}$, 교급 $\chi^2=60.46^{***}$, 지역 $\chi^2=60.27^{***}$

폭력성 사이트 열람 행동에 대한 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교급·지역·계층의 4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허용도 점수에 있어서 성별로는 남자(2.37)가 여자(1.90)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2.30, 실업계 2.29)이 중학생(1.9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어 하층(2.27)이 가장 높고 상층(2.12)이 가장 낮았다.

<표 IV-158> 폭력성 사이트 열람 : 행동허용도- 성·교급·계층별

		평균값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37	1.06
	여 자	1.90	0.87
교 급	중학교	1.95	0.99
	일반고	2.30	1.00
	실업고	2.29	0.95
계 층	하 층	2.27	1.03
	중 간	2.13	0.97
	상 층	2.12	1.01

통계치: 성별 $F=332.51^{***}$, 교급 $F=90.72^{***}$, 계층 $F=8.27^{***}$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 응답결과는 교급 변인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위지속 의사를 나타낸 청소년의 비율이 일반계 고교생이 16.8%로서 가장 높고, 실업계 고교생 (12.0%)과 중학생(11.8%)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IV-159> 폭력성 사이트 열람: 행동의도-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42.4	45.8	11.8
	일반고	32.5	51.5	16.1
	실업고	40.8	47.2	12.0

통계치: $\chi^2=12.86^*$

(6) 폭력성 게임

최근 인터넷에서 성행하고 있는 각종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해 본 경험 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성·교급·지역의 3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동경험자의 비율에서 성별로는 남자가 4할 을 상회(43.4%)하는 반면 여자는 1할에도 못미쳤고(7.0%), 교급별로는 일 반계 고교생의 28.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실업계 고교생(27.1%),

중학생(23.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27.5%)와 농촌(27.4%) 지역 경험자가 서울(24.7%)과 중소도시(2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0> 폭력성 게임: 행동경험- 성·교급·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56.6	43.4
	여 자	93.0	7.0
교 급	중학교	77.0	23.0
	일반고	71.2	28.8
	실업고	72.9	27.1
지 역	서 울	75.3	24.7
	대도시	72.5	27.5
	중소도시	76.3	23.7
	농 촌	72.6.9	27.4

통계치: 성별 $\chi^2=1011.54^{***}$, 교급 $\chi^2=21.72^{***}$, 지역 $\chi^2=93.15^{***}$

폭력성 게임의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교급·지역·계층의 4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허용도 점수에서 성별로는 남자(2.59)가 여자(1.98)보다 월등하게 높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일반계 2.45, 실업계 2.42)이 중학생(2.11)을 크게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촌(2.35)- 대도시(2.33)- 서울(2.28)의 순이었고 중소도시(2.24)의 허용도가 가장 낮았다. 계층별로는 하층(2.42)이 중간층(2.28)-상층(2.27)에 비해 허용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1> 폭력성 게임: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값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59	1.12
	여 자	1.98	0.91
교 급	중학교	2.11	1.07
	일반고	2.45	1.06
	실업고	2.42	1.00
지 역	서 울	2.28	1.04
	대도시	2.33	1.09
	중소도시	2.24	1.04
	농 촌	2.35	1.11
계 층	하 층	2.42	1.07
	중 간	2.28	1.05
	상 층	2.27	1.08

통계치: 성별 F=512.24***, 교급 F=71.97***, 지역 F=2.80*, 계층 F=6.25**

행동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 응답결과는 교급별로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위지속 의사를 가진 일반계 고교생이 28.0%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생(24.7%)·실업계 고교생(17.7%)의 순이었다.

<표 IV-162> 폭력성 게임: 행동의도-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29.7	45.5	24.7
	일반고	20.5	51.5	28.0
	실업고	29.8	52.5	17.7

통계치: $\chi^2=22.98^{***}$

(7)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최근에 사회문제로 부각된 바 있는 자살/폭탄제조 등 반사회적인 내용의 사이트 열람경험자의 비율은 성·계층의 2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열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가 4.8%로서 여자(2.7%)보다 많았고, 계층별로는 상층(5.0%)이 중간층(3.5%)·하층(3.5%)보다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었다.

<표 IV-163>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행동경험- 성·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5.2	4.8
	여 자	97.3	2.7
계 층	하 층	96.5	3.5
	중 간	96.5	3.5
	상 층	95.0	5.0

통계치: 성별 $\chi^2=17.46^{***}$, 계층 $\chi^2=6.42^*$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행동에 대한 허용도 평균값에서는 성·교급·지역의 3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허용도 점수에서 남자가 1.76으로서 여자(1.61)보다 다소 높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1.8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업계 고교생(1.70)·중학생(1.58)의 순이었다.

<표 IV-164>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 행동허용도- 성·교급별

		평균값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76	0.94
	여 자	1.61	0.81
교 급	중학교	1.58	0.88
	일반고	1.80	0.91
	실업고	1.70	0.83

통계치: 성별 $F=45.09^{***}$, 교급 $F=37.10^{***}$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행동경험·행동허용도의 응답결과와는 달리 남자보다 여자,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중학생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8)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행동경험 유무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지역·계층의 4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165>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63.2	36.8
	여 자	93.2	6.8
교 급	중학교	83.7	16.3
	일반고	68.6	31.4
	실업고	80.4	19.6
지 역	서 울	76.0	24.0
	대도시	73.9	26.1
	중소도시	81.6	18.4
	농 촌	83.5	16.5
계 층	하 층	80.0	20.0
	중 간	77.9	22.1
	상 층	74.0	26.0

통계치: 성별 $\chi^2=760.88^{***}$, 교급 $\chi^2=158.84^{***}$, 지역 $\chi^2=50.59^{***}$, 계층 $\chi^2=13.72^{**}$

행동경험자의 비율에서 성별로는 남자(36.8%)가 여자(6.8%)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이 31.4%로서 실업계 고교생(19.6%), 중학생(16.3%)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26.1%)와 서울(24.0%)의 청소년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경험자 비율

이 중소도시(18.4%)와 농촌(1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경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층(26.0%)– 중간층(22.1%)– 하층(20.0%)의 순이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정품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이외의 요인에 영향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행동허용도 응답결과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교급·지역·계층의 4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허용도 점수에서 성별로는 남자(2.56)가 여자(1.94)보다,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2.52)이 실업계 고교생(2.27), 중학생(2.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2.34)과 대도시(2.35)가 중소도시(2.13)– 농촌(2.12)에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상층 집단(2.12)의 허용도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간층(2.24), 하층(2.27)의 순이었다.

<표 IV-166>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균값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56	1.19
	여 자	1.94	0.90
교 급	중학교	2.04	1.07
	일반고	2.52	1.12
	실업고	2.27	1.02
지 역	서 울	2.34	1.12
	대도시	2.35	1.14
	중소도시	2.13	1.05
	농 촌	2.12	1.01
계 층	하 층	2.27	1.06
	중 간	2.24	1.10
	상 층	2.33	1.12

통계치: 성별 F=496.19***, 교급 F=111.79***, 지역 F=19.08***, 계층 F=3.26*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행동의도를 조사한

결과, 교급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문계 고교생 중 42.1%가 앞으로도 계속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실업계 고교생(34.7%), 중학생(34.5%)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IV-16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행동의도- 교급별

(단위: %)

		안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할 것이다
교 급	중학교	22.7	42.8	34.5
	일반고	14.9	43.0	42.1
	실업고	24.3	41.0	34.7

통계치: $\chi^2=16.32^{**}$

다. 요약 및 특성

이상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의 실태분석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경험자 비율을 보면, 전체 청소년의 약 절반이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다수였고, 이어서 “폭력성 게임” “폭력성 사이트 열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음란성 게임” “인터넷 과잉몰입” “음란대화 시도”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경험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음란/폭력관련 사이트 열람과 게임이 비가해형 문제행동의 가장 보편화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과 “인터넷 과잉몰입”은 행동경험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행동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행동허용도는 “폭력성 게임”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음란성 게임” “음란대화 시도” “인터넷 과잉몰입”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의 순이었다. 대체로 음란물관련 행동보다는 폭력물관련 문제

행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타인인지도 조사결과, 타인이 모르고 있는 숨은 비행의 비율은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음란대화 시도” “음란성 게임”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폭력성 게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인터넷 과잉몰입”의 순이었다.

넷째,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폭력성 게임”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인터넷 과잉몰입” “음란대화 시도” “음란성 게임”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의 순이었다.

2) 사이버-가해형 문제행동

가. 전체 비교

(1) 행동경험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범주에 속하는 6가지 행동유형의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지금까지 경험자 비율은 인터넷 채팅이나 게시판 등을 통한 “온라인 욕설/폭언”이 34.7%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23.0%)이었으며,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4.7%), “온라인 스토킹”(4.2%), “웹사이트 해킹”(4.0%), “허위정보 유포”(2.0%) 경험자는 모두 1할 미만에 머물렀다.

<표 IV-168>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행동경험

(단위: %)

	경험자	
	지금까지	최근1년간
온라인 욕설/폭언	34.7	30.8
허위정보 유포	2.0	1.8
온라인 스토킹	4.2	3.7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23.0	20.0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	4.7	3.9
웹사이트 해킹	4.0	3.6

지금까지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행동경험 빈도를 단계별 5점 척도(1~5)로 질문하고 그 응답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앞서의 행동경험자 비율과는 달리 “허위정보 유포”(2.80), “웹사이트 해킹”(2.72)의 경험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이어서 “온라인 스토킹”(2.63),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2.56),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2.51)의 순이었고, “온라인 욕설/폭언”(2.48)의 경험

빈도가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통해 사이버 문제행동의 경우 경험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경험빈도는 낮은 행동과 경험자의 비율은 극소수이지만 행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의 두가지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비가해형 행동의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폭력성 사이트 열람”, 가해형 행동의 “온라인 욕설/폭언”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이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비가해형), “허위정보 유포” “웹사이트 해킹” 등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69>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최근1년간 경험빈도

	최근1년간 경험자(%)	경험빈도	
		평균	표준편차
온라인 욕설/폭언	30.8	2.48	0.98
허위정보 유포	1.8	2.80	1.21
온라인 스토킹	3.7	2.63	1.13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20.0	2.51	1.07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	3.9	2.56	1.21
웹사이트 해킹	3.6	2.72	1.19

(2) 행동허용도

각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아주 나쁘다”에서 “전혀 나쁘지 않다”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허용적 태도(“전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저 그렇다”)와 비허용적 태도(“아주 나쁘다” “나쁘다”)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사이버 가해형 행동유형 중에서 청소년들의 허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온라인 욕설/폭언”으로서 3할(30.0%)이 “그저 그렇다” 또는 “나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5가지 행동에 대해서는 2할 미만의 소수의 청소년

년들만이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그중에서 “온라인 스토킹”이 16.5%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13.5%), “허위 정보 유포”(12.9%), “웹사이트 해킹”(12.6%)의 순이며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10.1%)의 허용도가 가장 낮았다.

<표 IV-170>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행동허용도

	허용적 태도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온라인 욕설/폭언	30.0	23.3	6.7
허위정보 유포	12.9	10.9	2.0
온라인 스토킹	16.5	12.8	3.7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13.5	11.1	2.4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	10.1	7.8	2.3
웹사이트 해킹	12.6	9.5	3.1

(3) 타인인지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그와 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친구, 부모)들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행동유형에서 친구들만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4할 이상으로서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할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비율을 비교해 보면, “허위정보 유포”(39.1%)와 “웹사이트 해킹”(32.5%)이 3할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29.9%), “온라인 욕설/폭언”(23.9%), “온라인 스토킹”(23.6%)의 순이었고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의 응답률이 21.3%로서 가장 낮았다.

<표 IV-171>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타인인지도

(단위: %)

	아무도 모른다	알고있다	
		친구들만	부모님도
온라인 욕설/폭언	23.9	69.9	6.2
허위정보 유포	39.1	44.3	16.5
온라인 스토킹	23.6	67.5	8.9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29.9	62.7	7.3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	21.3	64.3	14.4
웹사이트 해킹	32.5	53.5	14.0

(4) 행동의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행동유형에서 “안할 것이다”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할대에 달하였고,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표 IV-172>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행동의도

(단위: %)

	안할 것	모르겠다	할 것
온라인 욕설/폭언	40.3	46.9	12.8
허위정보 유포	36.0	32.4	31.5
온라인 스토킹	33.0	42.9	24.1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46.3	37.5	16.2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	44.4	33.7	21.8
웹사이트 해킹	36.2	39.0	24.8

앞으로도 행위지속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면, “허위정보 유포”가 31.5%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웹사이트 해킹”(24.8%), “온라인 스토킹”(24.1%),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21.8%)의 순이었으며,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16.2%), “온라인 욕설/폭언”(12.8%)이 2할 미만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나. 단위행동 분석

(1) 온라인 욕설/폭언

인터넷 게시판·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성·교급·지역·계층의 4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자의 비율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39.8%로서 여자(29.1%)보다 1할 이상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39.8%)—인문계 고교생(34.1%)—중학생(32.7%)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36.9%)와 농촌지역(36.6%)이 중소도시(32.8%), 서울(31.6%)에 비해 경험율이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경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하층(40.5%)—중간층(34.2%)—상층(32.4%)의 순이었다.

<표 IV-173> 온라인 욕설/폭언: 행동경험- 성·교급·지역·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60.2	39.8
	여 자	70.9	29.1
교 급	중학교	67.3	32.7
	일반고	65.9	34.1
	실업고	60.2	39.8
지 역	서 울	68.4	31.6
	대도시	63.1	36.9
	중소도시	67.2	32.8
	농 촌	63.4	36.6
계 층	하 층	59.5	40.5
	중 간	65.8	34.2
	상 층	67.6	32.4

통계치: 성별 $\chi^2=74.03^{***}$, 교급 $\chi^2=18.56^{***}$, 지역 $\chi^2=13.87^{***}$, 계층 $\chi^2=16.57^{***}$

온라인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행동에 대한 행동허용도 응

답결과(평균값)를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성·교급·지역·계층의 4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2.18)가 여자(2.04)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20)의 행동허용도 점수가 인문계 고교생(2.10), 중학생(2.09)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2.20) 청소년이 가장 높고, 이어서 대도시(2.12)-중소도시(2.11)-서울(2.06)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행동허용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 하층(2.15)-중간층(2.13)-상층(2.06)의 순이었다. 대체로 행동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행동허용도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IV-174> 온라인 욕설/폭언: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계층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18	0.98
	여 자	2.04	0.90
교 급	중학교	2.09	0.98
	일반고	2.10	0.91
	실업고	2.20	0.91
지 역	서 울	2.06	0.91
	대도시	2.12	0.96
	중소도시	2.11	0.95
	농 촌	2.20	0.94
계 층	하 층	2.15	0.93
	중 간	2.13	0.93
	상 층	2.06	0.95

통계치: 성별 F=32.01***, 교급 F=6.15**, 지역 F=3.67*, 계층 F=3.45*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 고교생·중학생보다,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간층-하층보다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 허위정보 유포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경험자의 비율을 하위집단별로 비교하면, 성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가 3.1%로서 여자(0.9%)의 세 배 이상에 달하였다.

<표 IV-175> 허위정보 유포: 행동경험- 성 · 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6.9	3.1
	여 자	99.1	0.9

통계치: $\chi^2=37.00^{***}$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행동허용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성 · 교급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동허용도 점수에서 성별로는 남자(1.77)가 여자(1.58)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실업계 1.75, 인문계 1.73)이 중학생(1.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6> 허위정보 유포: 행동허용도- 성 · 교급 · 지역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77	0.84
	여 자	1.58	0.71
교 급	중학교	1.61	0.80
	일반고	1.73	0.77
	실업고	1.75	0.77

통계치: 성별 $F=87.58^{***}$, 교급 $F=20.18^{***}$, 지역 $F=18.48^{***}$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교급·지역별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자가 30.4%로서 여자(15.1%)의 두배에 달하였다. 교급별로는 일반계 고교생의 약 1/4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고교생(21.9%), 중학생(21.6%)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25.9%)– 서울(22.3%)– 농촌(20.6%)– 중소도시(20.5%)의 순이었다.

<표 IV-177>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행동경험- 성·교급·지역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69.6	30.4
	여 자	84.9	15.1
교 급	중학교	78.4	21.6
	일반고	74.6	25.4
	실업고	78.1	21.9
지 역	서 울	77.7	22.3
	대도시	74.1	25.9
	중소도시	79.5	20.5
	농 촌	79.4	20.6

통계치: 성별 $\chi^2=192.84^{***}$, 교급 $\chi^2=10.72^{**}$, 지역 $\chi^2=55.69^{***}$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ID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에 대한 행동 허용도 응답결과는 성·교급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동허용도 점수에서 성별로는 남자(1.83)가 여자(1.59)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실업계 1.76, 일반계 1.73)이 중학생(1.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8>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행동허용도- 성 · 교급 · 지역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83	0.95
	여 자	1.59	0.81
교 급	중학교	1.67	0.91
	일반고	1.73	0.88
	실업고	1.76	0.88

통계치: 성별 $F=107.12^{***}$, 교급 $F=4.81^{**}$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온라인 스토킹

온라인 스토킹은 인터넷상에서 메일, 게시판, 채팅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스토킹해 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성별 하위 집단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의 4.8%가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3.5%)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9> 온라인 스토킹: 행동경험- 성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5.2	4.8
	여 자	96.5	3.5

통계치: $\chi^2=6.38^*$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행동허용도 응답결과(평균값)를 비교해 보면, 성 · 교급 · 지역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동허용도 점수에서 성별로는 남자(1.79)가 여자(1.63)보다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1.81)이 가장 높고 이어서 일반계 고교생(1.74)- 중학생(1.65)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1.78), 대도시(1.73) 청소년이 중소도시(1.69), 서울(1.67) 청소년에 비해 허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표 IV-180> 온라인 스톡킹: 행동허용도- 성·교급·지역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79	0.84
	여 자	1.63	0.75
교 급	중학교	1.65	0.83
	일반고	1.74	0.77
	실업고	1.81	0.79
지 역	서 울	1.67	0.79
	대도시	1.73	0.81
	중소도시	1.69	0.81
	농 촌	1.78	0.80

통계치: 성별 $F=56.31^{***}$, 교급 $F=18.82^{***}$, 지역 $F=4.02^{***}$

온라인 스톡킹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네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스팸메일(폭탄메일)이나 바이러스를 유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성·교급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181>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행동경험- 성·교급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3.5	6.5
	여 자	97.3	2.7
교 급	중학교	92.8	7.2
	일반고	97.4	2.6
	실업고	97.1	2.9

통계치: 성별 $\chi^2=49.86^{***}$, 교급 $\chi^2=67.41^{***}$

경험자의 비율에서 성별로는 남자(6.5%)가 여자(2.7%)의 배 이상에 달

하였고, 교급별로는 다른 사이버 문제행동과는 달리 중학생(7.2%)이 고교생(일반계 2.6%, 실업계 2.9%)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인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에 대한 행동허용도 응답결과는 성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의 허용도 평균값이 1.65로서 여자(1.44)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IV-182>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행동허용도- 성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65	0.87
	여 자	1.44	0.68

통계치: F=103.19***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행동의도 응답결과에서는 네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웹사이트 해킹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사이트를 해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성·계층 두 변인에서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6.1%)가 여자(1.8%)보다 경험자가 월등하게 많았으며,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어 상층(5.0%)– 중간층(3.9%)– 하층(2.8%)의 순이었다.

<표 IV-183> 웹사이트 해킹: 행동경험- 성·계층별

(단위: %)

		없다	있다
성 별	남 자	93.9	6.1
	여 자	98.2	1.8
계 층	하 층	97.2	2.8
	중 간	96.1	3.9
	상 층	95.0	5.0

통계치: 성별 $\chi^2=69.94^{***}$, 계층 $\chi^2=6.86^*$

웹사이트 해킹에 대한 행동허용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교급별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1.75)가 여자(1.53)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생(1.70)의 허용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계 고교생(1.68), 중학생(1.58)의 순이었다.

<표 IV-184> 웹사이트 해킹경험: 행동허용도- 성·교급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75	0.91
	여 자	1.53	0.72
교 급	중학교	1.58	0.85
	일반고	1.68	0.82
	실업고	1.70	0.81

통계치: 성별 $F=110.91^{***}$, 교급 $F=11.14^{***}$

웹사이트 해킹 경험자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의 경우 “잘 모르겠다”(19.0%)는 응답률이 남자(43.8%)보다 월등하게 적은 한편, 할 것이라고 응답비율이 31.0%로서 남자(23.3%)보다 많은 편이었다.

<표 IV-185> 웹사이트 해킹경험: 행동의도- 성별

(단위: %)

		안할 것	모르겠다	할 것
성 별	남 자	33.0	43.8	23.3
	여 자	50.0	19.0	31.0

통계치: $\chi^2=8.82^*$

다. 요약 및 특성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범주에 속하는 6가지 행동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행동경험자의 비율은 “온라인 욕설/폭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 “온라인 스토킹” “웹사이트 해킹” “허위정보 유포”의 순이었다. 최근1년간의 행동경험빈도는 “허위정보 유포” “웹사이트 해킹”의 경험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이어서 “온라인 스토킹”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의 순이었고, “온라인 욕설/폭언”의 경험빈도가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통해 사이버 문제행동의 경우 경험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경험빈도는 낮은 행동과 경험자의 비율은 극소수이지만 행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의 두가지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비가해형 행동의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폭력성 사이트 열람”, 가해형 행동의 “온라인 욕설/폭언”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이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비가해형), “허위정보 유포” “웹사이트 해킹” 등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각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행동허용도 응답결과를 보면, 허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온라인 욕설/폭언”이었고, 이어서 “온라인 스토킹”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허위정보 유포” “웹사이트 해킹”의 순이었고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가 가장 낮았다.

셋째,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동의 타인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숨은 비행”의 비율은 “허위정보 유포”와 “웹사이트 해킹”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온라인 욕설/폭언” “온라인 스토킹”의 순이었고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가 가장 낮았다.

넷째,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행위지속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허위정보 유포”가 가장 높고 이어서 “웹사이트 해킹” “온라인 스토킹”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의 순이었고,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과 “온라인 욕설/폭언”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5. 전체비교

1) 행동경험과 허용도

조사대상이 된 모두 52가지의 전체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음주”로서 전체 청소년의 약 7할 수준(68.0%)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호기심으로 한두번 술을 마셔본 청소년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청소년 음주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심한 말다툼” “음란/포르노물 열람” “부모님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등의 모두 5가지 행동항목의 경험자 비율이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음란/포르노물 열람” 경험자 비율이 높은 것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청소년의 4할 이상이 경험한 문제행동은 “폭력/잔혹물 열람”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머리 염색”의 세가지이며, “컨닝” “온라인 욕설/폭언” “흡연” 등은 3할 이상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표출형 행동과는 달리 “머리 염색”의 경험자가 4할대에 달하는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청소년들에게도 점차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청소년의 2할 이상이 경험한 문제행동은 “귀걸이 착용”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공공장소 소란행동” “폭력성 게임” “교사에 대한 반항”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폭력성 사이트 열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성인용 술집 출입” “음란성 게임” 등 9가지였고, “성인용 노래방 출입” “인터넷 과잉 몰입” “무단외박” “과도한 다이어트” “폭행” “(인터넷) 음란대화 시도” “공공기물 파손” “비디오방 출입” “무단결석” “친구따돌리기(왕따)” “질은 화장” “상점 절도” 등 12가지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1할 이상의 청소년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9가지의 문제행동은 경험자의 비율이 1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험자의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가출”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패싸움 참여” “타인 금품 절도” “자살 시도”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가족 돈/카드 유용”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사창가 배회” “온라인 스토킹” “웹사이트 해킹”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금품 갈취” “버스/지하철 신체접촉” “허위정보 유포”의 순이며, “환각약물 흡입”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마약 복용”은 경험자가 1할 미만에 머물렀다.

한편 각 문제행동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각 행동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전혀 나쁘지 않다”의 응답결과를 합산한 수치)을 보면, “머리 염색” “귀걸이 착용”이 8할 이상,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심한 말다툼” “짙은 화장” “음주” “비디오방 출입”이 5할 이상으로서 높게 나타났고, “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 “강제적인 성관계” “환각약물 흡입” “마약 복용” 등은 5% 미만의 극소수의 청소년들이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 도피형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피형 문제행동에 속하는 “자살 시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이 16.3%에 달하여 5% 미만에 머문 다른 도피형 문제행동 (“환각약물 흡입” “마약 복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대체로 특정 문제행동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이 실제 그 행동을 경험한 청소년들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험자의 비율이 허용적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의 비율보다 높은 행동도 적지 않은 수에 달하였다. 즉, “부모님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음란/포르노물 열람” “퀵닝” “음주” “흡연” “친구따돌리기(왕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 행동은 그것이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생활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청소년이 적지 않은 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186> 행동경험과 행동허용도

(단위: %)

범 주	유 형	항 목	행 동 경험자	허용적 태 도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귀결이 작용	28.4	84.6
		머리 염색	42.6	86.8
		질은 화장	10.7	64.7
		과도한 다이어트	14.6	45.2
		음주	68.0	60.1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흡연	33.7	28.6
		성인용 술집 출입	21.1	32.7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7.5	43.1
		성인용 노래방 출입	18.7	47.9
		비디오방 출입	11.9	57.8
		음란/포르노물 열람	57.0	45.9
		폭력/잔폭물 열람	49.0	49.4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27.2	69.9
		이성친구와의 상관계	5.4	34.4
		부모님에 대한 반항	55.6	28.0
	권위반함형 문제행동	교사에 대한 반항	23.7	31.2
		용돈 유용	55.3	36.4
		무단결석	11.9	25.9
		무단외박	17.8	29.8
		가출	7.7	13.3
		친남	36.9	27.9
		가족 돈/카드 유용	5.3	6.4
		심한 말다툼	64.4	65.5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 비행	타인 금품 절도	6.8	4.2
		금품 갈취	3.6	3.6
		상점 절도	10.4	5.5
		공공기물 파손	12.5	13.7
		공공장소 소란행동	26.4	20.4
		폭행	13.6	7.9
		패싸움 참여	7.3	13.8
		친구따돌리기(왕따)	11.4	8.7
		사탕가 배회	4.2	21.1
		버스/지하철 신체접촉	2.4	17.6
	성비행	성매매	0.8	7.2
		강제적인 상관계	0.7	3.6
		환각약물 흡입	1.0	3.5
	도피형 비행	마약 복용	0.5	3.1
		자살 시도	6.1	16.3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폭력성 게임	25.9	41.4
		폭력성 사이트 열람	22.6	33.5
		음란성 게임	20.4	28.5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48.8	31.6
		음란대화 시도	13.3	26.5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22.4	37.2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3.8	16.4
		인터넷 괴담 유포	18.5	23.9
		온라인 폭설/폭언	34.7	30.0
		웹사이트 해킹	4.0	12.6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4.7	10.1
		허위정보 유포	2.0	12.9
		이디/주민번호 도용	23.0	16.5
		온라인 스토킹	4.2	13.5

2) 타인인지도 · 행동의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동의 타인인지 여부,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행동의 타인인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의 응답결과만을 표에 제시하였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밀하게 행해지는 “숨은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률이 높은 순위대로 살펴보면, “자살 시도”가 55.6%로서 과반수 이상에 달하였고, “버스/지하철에서의 이성과의 고의적인 신체접촉”이 4할 이상, “(인터넷)허위정보 유포”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타인 금품 절도” “가족 돈/카드 유용” “웹사이트 해킹” “(인터넷)음란대화 시도” 등이 3할 이상에 달하였다. 대체로 현실세계의 문제행동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문제행동이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등 표출형 문제행동과 “성인용 술집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등 업소출입 관련 문제행동은 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것은 타인의 눈에 띄기 쉽고(표출형 문제행동),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행동(업소출입)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동의도의 응답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만 표에 제시하였다. “귀걸이 착용” “마약 복용”은 과반수 이상이, “질은 화장” “성매매” “성인용 노래방 출입” “강제적인 성관계” “머리 염색” “성인용 술집출입”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환각약물 흡입” 등은 4할 이상이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표출형 문제행동, 성관련 문제행동이 행동지속 의사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고, 마약·환각약물 흡입 등 약물관련 문제행동은 경험자의 비율은 1할 이하의 극소수이지만, 경험자의 행위지속 의사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 IV-187> 행동경험의 타인인지도와 행동의도

(단위: %)

범 주	유 형	항 목	행 동 경험자	“아무도 모른다”	“할 것 이다”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귀걸이 착용	28.4	1.9	69.0
		머리 염색	42.6	2.5	45.0
		길은 화장	10.7	3.3	49.3
		과도한 다이어트	14.6	7.1	34.8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음주	68.0	3.0	32.7
		흡연	33.7	9.9	11.1
		성인용 술집 출입	21.1	3.1	44.0
		디스코테/나이트클럽 출입	7.5	5.2	37.9
		성인용 노래방 출입	18.7	3.2	48.0
		비디오방 출입	11.9	9.2	32.0
		음란/포르노물 열람	57.0	12.6	11.3
		폭력/잔혹물 열람	49.0	9.4	16.6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27.2	14.2	42.8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5.4	16.8	33.2
	권위반항형 문제행동	부모님에 대한 반항	55.6	4.8	6.2
		교사에 대한 반항	23.7	5.7	12.1
		봉는 유흥	55.3	29.1	10.1
		무단결석	11.9	5.8	7.3
		무단외박	17.8	4.4	15.4
		가출	7.7	2.8	6.4
		컨닝	36.9	19.0	9.1
		가족 돈/카드 유용	5.3	33.1	10.7
		심한 말다툼	64.4	6.1	8.3
		타인 금품 절도	6.8	34.9	7.9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형 비행	금품 갈취	3.6	15.5	13.5
		상점 절도	10.4	18.2	7.6
		공공기물 파손	12.5	15.9	8.7
		공공장소 소란행동	26.4	7.0	8.8
		폭행	13.6	5.9	7.8
		패싸움 참여	7.3	7.8	6.6
		친구따돌리기(왕따)	11.4	6.6	8.7
		사장이 배회	4.2	15.4	19.0
	성비행	버스/지하철 신체접촉	2.4	42.2	26.0
		성매매	0.8	17.9	48.6
		강제적인 성관계	0.7	18.2	47.1
	도피형 비행	환각약물 흡입	1.0	15.2	40.5
		마약 복용	0.5	8.0	54.2
		자살 시도	6.1	55.6	10.7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폭력성 게임	25.9	23.9	12.8
		폭력성 사이트 열람	22.6	19.3	13.7
		음란성 게임	20.4	21.0	14.4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48.8	18.4	11.3
		음란대화 시도	13.3	30.0	14.5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22.4	10.7	38.4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3.8	36.3	24.6
		인터넷 피싱 몰입	18.5	9.5	20.5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온라인 폭설/폭언	34.7	12.7	24.6
		웹사이트 해킹	4.0	32.5	24.8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4.7	21.3	21.8
		허위정보 유포	2.0	39.1	31.5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23.0	29.9	16.2
		온라인 스토킹	4.2	23.6	24.1

3) 행동경험의 하위집단별 비교

가. 성별 행동경험 비교

조사대상이 된 전체 문제행동의 경험자 비율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 경험자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문제행동은 전체 52개 항목 중에서 38가지였다. 이들 문제행동을 남자 경험자 비율이 여자 경험자 비율보다 높은 “남성중심형 문제행동”과 그 반대의 “여성중심형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남성중심형 문제행동은 규범적 문제행동 중에서 “흡연” “성인용 노래방 출입”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무단외박” “컨닝” “가족 돈/카드 유용” “심한 말다툼” 등 8가지, 법률적 문제행동 중에서 “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 “공공기물 파손” “폭행” “패싸움 참여” “사창가 배회” “버스/지하철에서의 이성과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강제적인 성관계” “환각약물 흡입”의 9가지,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등 사이버 문제행동의 10가지 였다. 남자보다 여자 경험자 비율이 높은 여성중심형 문제행동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교사에 대한 반항”의 5가지, 법률적 문제행동의 “공공장소 소란행동” “친구따돌리기(왕따)” “자살 시도”의 3가지였으며, 사이버 문제행동 중에서는 해당되는 문제행동이 없었다.

한편, 성별 경험자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문제행동은 규범적 문제행동 중 “음주” “성인용 술집 출입”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비디오방 출입”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부모님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무단결석” “가출” 등 9가지, 법률적 문제행동 중 “상점 절도” “성매매” “마약 복용”의 3가지, 사이버 문제행동 중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온라인 스토킹” 등 2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8> 행동경험: 성별 비교

(단위: %)

(단위: %)

범 주	유 형	항 목	남 자	여 자	비 고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귀걸이 착용	6.2	52.3	여
		머리 염색	36.9	48.9	여
		짧은 화장	2.0	20.1	여
		과도한 다이어트	7.1	22.7	여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음주	67.3	68.9	
		흡연	41.4	25.4	남
		성인용 술집 출입	21.5	20.7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7.9	7.2	
		성인용 노래방 출입	21.2	16.1	남
		비디오방 출입	12.0	11.8	
		음란/포르노물 열람	74.7	37.8	남
		폭력/잔혹물 열람	67.1	29.5	남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26.6	27.8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6.6	4.2	남
	권위반항형 문제행동	부모님에 대한 반항	52.3	59.2	
		교사에 대한 반항	23.3	24.2	여
		용돈 유용	52.8	57.9	
		무단결석	12.1	11.7	
		무단외박	21.1	14.1	남
		가출	8.4	7.0	
		전닝	38.8	34.9	남
		가족 돈/카드 유용	5.6	4.9	남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형 비행	심한 말다툼	69.9	58.4	남
		타인 금품 절도	8.7	4.7	남
		금품 갈취	4.9	2.3	남
		상점 절도	10.6	10.1	
		공공기물 파손	16.2	8.4	남
		공공장소 소란행동	25.0	28.0	여
		폭행	20.3	6.3	남
		패싸움 참여	8.7	5.8	남
	성비행	친구따돌리기(왕따)	9.6	13.3	여
		사창가 배회	5.4	2.9	남
		버스/지하철 신체접촉	3.5	1.3	남
		성매매	0.9	0.6	
	도피형 비행	강제적인 성관계	0.9	0.5	남
		한약약물 흡입	1.3	0.7	남
		마약 복용	0.6	0.4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자살 시도	3.6	8.9	여
		폭력성 게임	43.4	7.0	남
		폭력성 사이트 열람	34.5	9.8	남
		음란성 게임	35.4	4.2	남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70.5	25.2	남
		음란대화 시도	17.9	8.4	남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36.8	6.8	남
		민사회적 사이트 열람	4.8	2.7	남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인터넷 화잉 올림	19.9	17.0	남
		온라인 복설/폭언	39.8	29.1	남
		웹사이트 해킹	6.1	1.8	남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6.5	2.7	남
		허위정보 유포	3.1	.9	남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30.4	15.1		
	온라인 스토킹	4.8	3.5		

주: 비교의 “남”은 남성중심형, “여”는 여성중심형 문제행동을 의미함.

나. 교급별 행동경험 비교

조사대상이 된 전체 문제행동의 경험자 비율을 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교급별 경험자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문제행동은 전체 52개 항목 중에서 41가지였다. 이들 문제행동을 세 하위집단별 경험자 비율을 비교하여 “중학생 중심형” “일반고 중심형” “실업고 중심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중학생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학생 중심형 문제행동은 “친구 따돌리기(왕따)”와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의 두가지로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일반고 중심형 문제행동은 현실세계의 문제행동은 “부모님에 대한 반항” “공공기물 파손”의 2가지에 불과한 반면, 사이버 문제행동 중에서는 “폭력성 게임”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성 게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인터넷 과잉몰입” “아이다/주민번호 도용” 등 6가지에 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등학생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실업고 중심형 문제행동은 표출형 문제행동의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질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등 4가지,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의 “음주” “흡연” “성인용 술집 출입”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비디오방 출입”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등 10가지, 권위반항형 문제행동의 “교사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무단결석” “무단외박” 가출” “컨닝” “가족 돈/카드 유용” 등 7가지, 폭력/절도 비행 중 “금품 갈취” “상점 절도” “폭행” “패싸움 참여” 등 4가지, 성비행의 “사창가 배회”, 도피형 비행의 “자살 시도”, 사이버 문제행동의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음란대화 시도” “온라인 욕설/폭언”의 3가지였다.

이밖에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환각약물 흡입” “마약 복용”을 포함한 11가지 문제행동은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9> 행동경험: 교급별 비교

(단위: %)

비 고	유 형	항 목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비 고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귀찮이 작용	23.6	28.9	37.8	실
		머리 염색	36.6	41.5	57.7	실
		길은 화장	6.9	10.5	19.1	실
		과도한 다이어트	11.9	16.0	18.0	실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음주	49.5	81.4	84.8	실
		흡연	23.8	32.7	57.4	실
		성인용 술집 출입	4.9	32.2	36.5	실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4.3	8.2	13.5	실
		성인용 노래방 출입	13.6	21.0	26.0	실
		비디오방 출입	6.3	13.7	21.1	실
		음란/포르노물 열람	42.2	66.7	72.1	실
		폭력/잔혹물 열람	36.3	56.9	62.6	실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15.2	32.7	43.4	실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3.0	4.7	11.9	실
	권위반항형 문제행동	부모님에 대한 반항	49.7	60.9	59.1	일
		교사에 대한 반항	20.1	26.5	26.7	실
		홍조 유봉	44.8	60.5	68.8	실
		무단결석	7.5	9.3	26.1	실
		무단외박	9.5	18.0	35.5	실
		가출	4.5	7.3	15.5	실
		퀵닝	24.4	46.5	47.1	실
		가족 돈/카드 유용	4.3	5.9	6.2	실
		심한 말다툼	63.5	64.8	65.7	
		타인 금품 절도	5.6	7.2	8.7	실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 비행	금품 갈취	3.0	3.4	5.4	실
		상점 절도	7.2	12.6	13.2	실
		공공가물 파손	11.1	13.8	12.9	일
		공공장소 소란행동	25.4	27.3	27.3	
		폭행	12.1	13.4	17.3	실
		패싸움 참여	5.7	7.4	10.7	실
		친구따돌리기(왕따)	13.2	10.4	9.0	중
	성비행	사창가 배회	2.9	4.4	6.8	실
		버스/지하철 신체접촉	2.2	3.0	1.9	
		성매매	0.6	1.0	0.7	
	도피형 비행	강제적인 성관계	0.6	0.9	0.8	
		환각약물 흡입	1.0	1.0	1.2	
		마약 복용	0.5	0.6	0.4	
		자살 시도	5.1	6.7	7.3	실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폭력성 게임	23.0	28.8	27.1	일
		폭력성 사이트 열람	17.8	26.7	25.8	일
		음란성 게임	14.3	26.1	23.4	일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36.6	57.3	60.1	실
		음란대화 시도	11.7	13.0	17.4	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16.3	31.4	19.6	인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3.5	4.6	3.2	
		인터넷 괴영 몰입	15.4	23.4	16.4	일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온라인 폭설/폭언	32.7	34.1	39.8	실
		웹사이트 해킹	4.1	3.9	4.1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7.2	2.6	2.9	중
		허위정보 유포	2.2	1.5	2.5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21.6	25.4	21.9	인
		온라인 스토킹	4.3	4.1	3.9	

주: 비교의 “중”은 중학생 중심형, “일”은 일반고 중심형, “실”은 실업고 중심형 문제행동임.

다. 지역별 행동경험 비교

조사대상이 된 전체 문제행동의 경험자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지역별 경험자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문제행동은 전체 52개 항목 중에서 30가지였다. 이들 문제행동을 하위집단별 경험자 비율을 비교하여 “서울 중심형” “대도시 중심형” “농촌 중심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서울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중심형 문제행동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귀걸이 착용” “짙은 화장” “성인용 술집 출입” “부모님에 대한 반항” “교사에 대한 반항” “심한 말다툼” 등 6가지, 법률적 문제행동의 “타인 금품 절도” “상점 절도” “공공장소 소란행동” “친구따돌리기(왕따)” “자살 시도”의 5가지, 사이버 문제행동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아이디/주민번호 도용”의 2가지였다.

대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문제행동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의 2가지, 사이버 문제행동의 “폭력성 게임”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온라인 욕설/폭언”의 3가지로 나타났다.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농촌지역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농촌중심형 문제행동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머리 염색” “음주” “흡연”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무단결석” “무단외박” “기출” 등 8가지, 법률적 문제행동의 “금품 갈취” “공공기물 파손” 등 2가지, 사이버 문제행동의 “음란성 게임” “음란대화 시도” 등 2가지였다.

“과도한 다이어트” “성인용 노래방 출입”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온라인 스토킹” 등을 포함한 22가지 문제행동은 경험자 비율의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90> 행동경험: 지역별 비교

(단위: %)

범 주	유 형	항 목	서울	대도시	중소 도시	농촌	비 고
규법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귀절이 착용	36.8	24.5	27.2	29.0	서울
		머리 염색	46.8	39.4	40.8	49.2	농촌
		질은 화장	14.2	10.2	7.8	12.0	서울
		과도한 다이어트	16.2	13.1	15.5	14.7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음주	70.2	65.6	64.9	78.0	농촌
		흡연	33.0	30.2	34.2	44.4	농촌
		성인용 술집 출입	25.3	21.6	17.4	20.1	서울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7.8	8.4	6.9	5.9	
		성인용 노래방 출입	18.3	19.5	17.5	19.6	
		비디오방 출입	11.2	11.6	13.6	10.7	
		음란/포르노물 열람	50.9	61.6	54.3	58.6	도시
		폭력/잔폭물 열람	46.9	51.2	46.7	50.6	도시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27.8	27.8	23.9	30.9	농촌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4.5	4.6	5.4	9.4	농촌
	권위반형 문제행동	부모님에 대한 반항	64.3	55.7	51.1	50.8	서울
		교사에 대한 반항	29.6	22.2	20.6	25.0	서울
		용돈 유용	56.6	54.9	55.5	53.8	
		무단결석	12.5	9.5	12.8	16.3	농촌
		무단외박	16.7	15.9	19.2	22.2	농촌
		가솔	8.9	6.5	7.4	9.8	농촌
		전닝	36.4	35.9	37.3	39.8	
		가족 돈/카드 유용	6.4	5.0	5.3	4.2	
		심한 말다툼	66.1	65.4	61.0	65.5	서울
		타인 금품 절도	8.4	6.4	6.8	5.4	서울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형 비행	금품 갈취	4.5	2.9	3.4	5.0	농촌
		상점 절도	13.0	10.6	8.7	8.9	서울
		공공기물 파손	14.5	11.7	10.8	14.6	농촌
		공공장소 소란행동	31.8	27.9	22.1	22.2	서울
		폭행	13.8	13.5	12.4	15.9	
		폐사육 참여	8.5	7.4	6.8	6.1	
		친구따돌리기(왕따)	13.5	11.4	10.6	9.4	서울
		사창가 매회	3.5	4.6	4.4	3.7	
	성비행	버스/지하철 신체접촉	2.2	2.6	2.5	2.3	
		성매매	1.0	0.5	0.8	1.1	
		강제적인 성관계	0.9	0.5	0.9	0.9	
	도피형 비행	환각약물 흡입	1.3	0.6	1.2	1.4	
		마약 복용	0.7	0.3	0.6	0.5	
		자살 시도	7.8	5.7	5.1	6.7	서울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비거해형 문제행동	폭력성 게임	24.7	27.5	23.7	27.4	도시
		폭력성 사이트 열람	23.0	23.7	21.3	21.3	
		음란성 게임	17.8	22.7	19.1	20.2	농촌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44.0	53.8	46.2	46.5	도시
		음란대화 시도	10.1	13.7	12.9	18.2	농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24.0	26.1	18.4	16.5	서울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3.8	4.1	3.6	3.3	
		인터넷 괴담 유포	17.9	19.3	17.5	19.1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온라인 폭설/폭언	31.6	36.9	32.8	36.6	도시
		웹사이트 해킹	3.4	4.4	4.0	3.7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4.0	4.6	5.5	4.3	
		허위정보 유포	1.8	2.2	1.7	2.2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22.3	25.9	20.5	20.6	
		온라인 스토킹	3.5	4.3	3.8	5.6	

주: 비교의 “서울”은 서울중심형, “도시”는 대도시중심형, “농촌”은 농촌중심형 문제행동임.

라. 계층별 행동경험 비교

조사대상이 된 전체 문제행동의 경험자 비율을 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계층별 경험자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문제행동은 전체 52개 항목 중에서 28가지였다. 이들 문제행동을 하위집단별 경험자 비율을 비교하여 “상위계층 중심형” “중간계층 중심형” “하위계층 중심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상위계층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문제행동은 현실세계의 문제행동 중에서는 “친구따돌리기(왕따)” 1가지, 사이버 문제행동 중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인터넷 과잉몰입” “웹사이트 해킹” 등 4가지였다.

중간계층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문제행동은 전체 28가지 행동항목 중에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하위계층 중심형 문제행동은 28개의 행동항목 중 23가지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규범적 문제행동 중 “머리 염색” “음주” “흡연” “성인용 술집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비디오방 출입”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부모님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무단 결석” “무단외박” “가출” “퀵” 등 16가지, 법률적 문제행동 중 “타인 금품 절도” “상점 절도” “폭행” “자살 시도”의 4가지, 사이버 문제행동 중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음란대화 시도” “온라인 욕설/폭언”의 3가지 문제행동에서 하위계층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규범적 문제행동과 법률적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하위계층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중·상층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상현실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이버 문제행동 영역에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IV-191> 행동경험: 계층별 비교

(단위: %)

범 주	유 형	항 목	하층	중간	상층	비고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귀걸이 착용	30.9	28.1	28.1	
		머리 염색	48.2	42.6	39.5	하
		집은 화장	11.9	10.7	10.0	
		과도한 다이어트	16.0	13.8	15.5	하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음주	74.7	68.0	66.0	하
		흡연	43.0	34.3	25.8	하
		성인용 술집 출입	26.7	20.7	20.0	하
		디스코테카/나이트클럽 출입	8.1	7.4	7.1	
		성인용 노래방 출입	20.7	19.2	15.7	하
		비디오방 출입	15.1	11.1	11.2	하
		음란/포르노물 열람	64.7	57.6	52.0	하
		폭력/잔혹물 열람	56.8	49.3	45.0	하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31.7	26.8	26.3	하
	권위반향형 문제행동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8.5	4.9	4.3	하
		부모님에 대한 반항	58.6	54.4	57.6	하
		교사에 대한 반항	22.4	23.1	25.8	
		방도 유봉	62.7	56.5	48.4	하
		무단절석	17.3	11.5	8.4	하
		무단외박	25.6	18.1	11.6	하
		가출	10.3	7.6	6.1	하
		친당	40.1	38.1	33.2	하
		가족 돈/카드 유봉	6.0	5.0	5.1	
		심한 말다툼	64.4	64.3	64.9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형 비행	타인 금품 절도	10.7	6.0	5.6	하
		금품 갈취	4.6	3.6	2.7	
		상점 절도	13.3	10.2	9.3	하
		공공기물 파손	11.6	12.6	12.0	
		공공장소 소란행동	26.2	25.6	28.4	
		폭행	17.1	13.1	12.4	하
		패싸움 참여	8.0	6.9	7.2	
		친구따돌리기(왕따)	10.4	10.9	13.2	상
	성비행	사랑가 배회	5.0	4.4	3.3	
		버스/지하철 신체접촉	2.9	2.5	1.8	
		성매매	1.0	0.7	0.7	
	도피형 비행	강제적인 성관계	0.5	0.7	0.7	
		환각약물 흡입	0.9	0.9	1.2	
		마약 복용	0.6	0.4	0.7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비기행동 문제행동	차탈 시도	9.3	5.2	6.6	하
		폭력성 게임	28.2	25.8	25.4	
		폭력성 사이트 열람	24.8	22.1	22.1	
		음란성 게임	23.1	20.0	19.9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54.9	49.0	45.1	하
		음란대화 시도	17.2	13.1	11.3	하
		몰법 소프트웨어 사용	20.0	22.1	26.0	상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3.5	3.5	5.0	상
	사이버 가해행동 문제행동	인터넷 괴영 올림	18.8	18.1	19.3	상
		온라인 폭력/폭언	40.5	34.2	32.4	하
		웹사이트 해킹	2.8	3.9	5.0	상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3.3	4.7	5.4	
		허위정보 유포	1.9	2.0	2.0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21.8	23.7	22.8	
		온라인 스토킹	4.2	4.1	4.0	

주: 비교의 “상”은 상위계층 중심형, “하”는 하위계층 중심형 문제행동임.

6. 종합분석: 문제행동 지수

1) 문제행동 지수의 산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제행동 수는 총 52개로서 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그리고 사이버 문제행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규범적 문제행동 영역에 포함된 문제행동수는 23개, 법률적 문제행동영역은 15개, 사이버 문제행동은 14개이다. 각 문제행동영역은 다시 요인분석을 통하여 세부적인 요인으로 분류되는데, 규범적 문제행동은 표출형, 유흥형, 반항형의 3개 요인으로, 법률적 문제행동은 폭력/절도형, 성비행, 도피형 문제행동의 세 개 요인으로, 사이버문제행동은 비가해형과 가해형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행동의 총 요인수는 8개 요인이다.

본 연구는 빈도분석에 기초한 52개 각 행동별 문제행동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문제행동 요인별, 영역별 그리고 전체문제행동에 대한 문제행동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각각의 문제행동 지수에 걸쳐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성, 거주지역, 사회계층 등)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행동 전체, 문제행동 영역 그리고 문제행동 요인별로 문제행동의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계산 절차가 있었다.

첫째, 52개 문제행동 각각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 인식 수준의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둘째, 첫째 단계에서 구한 평균치를 가중치로 하여 그 값을 해당 문제행동의 경험여부(더미변수: 없다=0, 있었다=1)에 곱하였다.

셋째, 가중치가 반영된 52개 문제행동 지수를 요인별, 영역별, 전체로 합산하여, 각 요인별, 영역별 그리고 전체에 대한 '문제행동 지수'를 결정하

였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52개 각 개별단위 문제행동 실태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반영하여 지수화된 문제행동들을 문제행동 영역별, 범주별, 전체로 통합하여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문제행동 영역별 문제행동 지수 비교

가. 표출형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계층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192> 표출형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12.90	1.98	1198.55***	-
	여 자	15.42	3.43		
교 급	중학교	13.64	2.75	95.43***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14.14	3.04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15.09	3.40		일반고-실업고*
계 층	상 층	14.07	3.09	1.77	상층-중간층
	중간층	14.06	3.00		상층-하층
	하 층	14.24	3.08		중간층-하층
지 역	서 울	14.59	3.26	17.10***	서울-대도시*
	대도시	13.87	2.96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13.98	2.93		서울-농촌
	농 촌	14.34	3.06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촌* 중소도시-농촌

성별로 비교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표출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사후검증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표출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서울지역청소년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 청소년 보다, 농촌지역 청소년은 대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표출적 문제행동수준이 더 높았다.

나.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계층별, 지역별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193>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47.89	8.55	260.40***	-
	여 자	44.34	8.22		
교 급	중학교	42.63	6.96	509.98***	중학교-일반고* 중학교-실업고* 일반고-실업고*
	일반고	47.94	8.32		
	실업고	50.82	9.04		
계 층	상 층	45.22	8.29	29.30***	상층-중간층 상층-하층* 중간층-하층*
	중간층	45.91	8.52		
	하 층	47.55	8.71		
지 역	서 울	46.05	8.45	5.95***	서울-대도시 서울-중소도시 서울-농촌*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촌 중소도시-농촌*
	대도시	46.28	8.55		
	중소도시	45.63	8.60		
	농 촌	47.20	8.75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사후검증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계층별로는 하층의 계층에 있는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에 속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서울

과 중소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수준을 보였다.

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계층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계층별로는 하층의 계층에 있는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에 속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지만 중간층과 상층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수준이 높았다.

<표 IV-194>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45.89	7.69	4.25*	-
	여 자	45.48	7.59		
교 급	중학교	43.72	6.73	187.99***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46.53	7.47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48.52	8.61		일반고-실업고*
계 층	상 층	45.05	7.34	11.89***	상층-중간층
	중간층	45.58	7.59		상층-하층*
	하 층	46.42	7.81		중간층-하층*
지 역	서 울	46.48	7.80	6.84***	서울-대도시*
	대도시	45.38	7.37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45.38	7.74		서울-농어촌
	농 촌	46.01	7.91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라.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폭력/절도형 문제행동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지역별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계층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중학교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과 실업계 고교생들의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나 일반계 고교생들과 실업계 고교생들간에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

<표 IV-195>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39.99	6.90	48.04***	-
	여 자	38.84	5.66		
교 급	중학교	39.05	5.94	10.01***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39.61	6.59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9.99	6.74		일반고-실업고
계 층	상 층	39.44	6.36	0.84	상층-중간층
	중간층	39.31	6.25		상층-하층
	하 층	39.58	6.52		중간층-하층
지 역	서 울	40.15	6.95	7.71***	서울-대도시*
	대도시	39.41	6.11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39.01	6.18		서울-농어촌*
	농 촌	39.23	6.32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마. 성비행

성비행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과 교급에서만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고, 계층과 지역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성비행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과 실업계 고교생의 성비행 수준이 더 높았다.

<표 IV-196> 성비행형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18.29	1.72	30.60***	-
	여 자	18.07	1.33		
교 급	중학교	18.11	1.45	6.02**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18.24	1.70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18.26	1.48		일반고-실업고
계 층	상 층	18.14	1.61	1.18	상층-중간층
	중간층	18.17	1.46		상층-하층
	하 층	18.23	1.59		중간층-하층
지 역	서 울	18.17	1.63	0.11	서울-대도시
	대도시	18.19	1.42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18.20	1.68		서울-농어촌
	농 촌	18.19	1.52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바. 도피형 문제행동

도피형 문제행동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과 계층, 그리고 지역별로는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교급으로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도피형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계층에서 상층과 하층의 청소년들이 중간층의 청소년들보다 도피형 문제행동수준이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보다 도피형 문제행동수준이 더 높았다.

<표 IV-197> 도피형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14.13	1.32	28.60***	-
	여 자	14.33	1.53		
교 급	중학교	14.18	1.38	2.94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14.26	1.47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14.29	1.45		일반고-실업고
계 층	상 층	14.30	1.59	5.42**	상층-중간층*
	중간층	14.17	1.29		상층-하층
	하 층	14.28	1.49		중간층-하층*
지 역	서 울	14.32	1.61	3.08*	서울-대도시*
	대도시	14.18	1.28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14.20	1.42		서울-농어촌
	농 촌	14.27	1.51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사.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비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지역별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지만 계층별로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중학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이 그리고 실업계 고교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의 비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이 서울과 중소도시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비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표 IV-198>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41.66	8.11	1569.32***	-
	여 자	34.62	4.93		
교 급	중학교	36.83	7.07	87.32***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39.66	7.99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38.96	7.60		일반고-실업고*
계 층	상 층	38.17	7.67	1.93	상층-중간층
	중간층	38.19	7.58		상층-하층
	하 층	38.64	7.66		중간층-하층
지 역	서 울	37.88	7.33	7.85***	서울-대도시*
	대도시	38.87	7.81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37.78	7.57		서울-농어촌
	농 촌	38.17	7.58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아.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과 지역별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지만, 교급과 계층에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지역별에서 대도시 지역 청소년이 서울과 중소도시 지역 청소년에 비해 비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표 IV-199>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29.33	4.78	209.35***	-
	여 자	27.74	3.49		
교 급	중학교	28.56	4.45	0.31	중학교-일반고 중학교-실업고 일반고-실업고
	일반고	28.52	4.06		
	실업고	28.65	4.29		
계 층	상 층	28.57	4.33	0.17	상층-중간층 상층-하층 중간층-하층
	중간층	28.54	4.26		
	하 층	28.62	4.24		
지 역	서 울	28.33	4.15	4.82**	서울-대도시* 서울-중소도시 서울-농어촌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농어촌
	대도시	28.82	4.37		
	중소도시	28.38	4.23		
	농 촌	28.56	4.30		

3) 문제행동 범주별 문제행동 지수 비교

앞서 제시한 8개 문제행동 영역들을 다시 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으로 유목화 하여 집단별 문제행동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규범적 문제행동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계층별, 지역별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200> 규범적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29.33	4.78	209.35***	-
	여 자	27.74	3.49		
교 급	중학교	28.56	4.45	0.31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28.52	4.06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28.65	4.29		일반고-실업고*
계 층	상 층	28.57	4.33	0.17	상층-중간층
	중간층	28.54	4.26		상층-하층*
	하 층	28.62	4.24		중간층-하층*
지 역	서 울	28.33	4.15	4.82**	서울-대도시
	대도시	28.82	4.37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28.38	4.23		서울-농촌
	농 촌	28.56	4.30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촌* 중소도시-농촌*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계층별로는 하층의 계층에 있는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에 속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지만 중간층과 상층간에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중소도시지역 청소년 보다,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나. 법률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지역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계층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법률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일반계 고교생과 실업계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법률적 문제행동수준이 높았

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법률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표 IV-201> 법률적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72.40	8.24	33.74***	-
	여 자	71.22	7.04		
교 급	중학교	71.30	7.21	11.97***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72.12	8.14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72.49	7.92		일반고-실업고
계 층	상 층	71.87	7.89	1.50	상층-중간층
	중간층	71.64	7.49		상층-하층
	하 층	72.06	7.96		중간층-하층
지 역	서 울	72.61	8.46	6.02***	서울-대도시*
	대도시	71.78	7.28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71.38	7.73		서울-농촌
	농 촌	71.67	7.60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촌 중소도시-농촌

다.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계층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일반계 고교생과 실업계 고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 청소년들이 서울지역과 중소도시지역 청소년보다 사이버 문제행동수준이 더 높았다.

<표 IV-202> 사이버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71.00	11.64	1126.10***	-
	여 자	62.34	7.36		
교 급	중학교	65.39	10.35	42.96***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68.18	10.93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67.61	10.81		일반고-실업고
계 층	상 층	66.72	10.76	1.42	상층-중간층
	중간층	66.72	10.67		상층-하층
	하 층	67.26	10.73		중간층-하층
지 역	서 울	66.22	10.32	8.27***	서울-대도시*
	대도시	67.68	10.92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66.14	10.67		서울-농촌
	농 촌	66.71	10.76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촌
					중소도시-농촌

4) 전체 문제행동 지수 비교

앞서 제시한 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의 세 가지 문제행동범주를 합한 전체 문제행동수준에서의 집단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03> 전체 문제행동: 문제행동 지수 비교

		평 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 별	남 자	250.07	29.32	233.68***	-
	여 자	238.66	25.72		
교 급	중학교	236.46	25.81	208.95***	중학교-일반고*
	일반고	248.90	27.87		중학교-실업고*
	실업고	254.71	28.97		일반고-실업고*
계 층	상 층	242.75	27.61	11.05***	상층-중간층
	중간층	243.88	27.93		상층-하층*
	하 층	247.46	28.62		중간층-하층*
지 역	서 울	245.98	28.87	5.26***	서울-대도시
	대도시	245.19	27.65		서울-중소도시*
	중소도시	242.14	28.32		서울-농촌
	농 촌	245.68	28.46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농촌
					중소도시-농촌

전체 문제행동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계층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전체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전체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계층별로는 하층의 계층에 있는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에 속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전체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지만, 중간층과 상층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지역 청소년과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보다 전체 문제행동수준이 낮았다.

V. 요약 및 논의

1. 요약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전반적인 실태와 양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분류체계와 조사표를 개발하여,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제행동 분류체계는 행위의 발생공간(현실세계/가상현실), 실정법 저촉 여부(규범적/법률적), 행위의 속성 등 3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3개 범주, 8개 유형, 5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1> 문제행동 분류체계

범 주	유 형	항 목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귀걸이 착용 등 4항목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음주 등 10항목
	권위반향형 문제행동	부모님에 대한 반항 등 9항목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 비행	타인 금품 절도 등 8항목
	성비행	성매매 등 4항목
	도피형 비행	자살 시도 등 3항목
사이버 문제행동	비가해형 문제행동	폭력성 게임 등 8항목
	가해형 문제행동	온라인 욕설/폭언 등 6항목

조사표는 52개 문제행동 항목에 대한 행동경험, 행동허용도, 타인인지

도, 앞으로의 행동의도 및 배경변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화집락추출법으로 표집된 6천여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 10월부터 한달 동안, 학급 단위의 집단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자료 검증작업을 거쳐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유효표본은 5,937명이었다.

2) 조사의 결과

가. 전체비교

1) 행동경험과 허용도

조사대상이 된 52가지의 전체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행동으로는 “음주” “심한 말다툼” “음란/포르노물 열람” “부모님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등의 5가지 항목으로서 경험자가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반면에 경험자가 1할에도 못미치는 행동항목은 “환각약물 흡입”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마약 복용”의 4가지로서 도피형 문제행동과 성비행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각 문제행동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각 행동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 “나쁘지 않다” “전혀 나쁘지 않다”의 응답결과를 합산한 수치)을 보면, “머리 염색” “귀걸이 착용”이 8할 이상,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심한 말다툼” “질은 화장” “음주” “비디오방 출입”이 5할 이상으로서 높게 나타났고, “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 “강제적인 성관계” “환각약물 흡입” “마약 복용” 등은 5% 미만의 극소수의 청소년들이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표 V-2> 문제행동 경험

항 목	행 동 경험자	항 목	행 동 경험자
음주	68.0	음란대화 시도	13.3
심한 말다툼	64.4	공공기물 파손	12.5
음란/포르노물 열람	57.0	비디오방 출입	11.9
부모님에 대한 반항	55.6	무단결석	11.9
용돈 유용	55.3	친구따돌리기(왕따)	11.4
폭력/잔혹물 열람	49.0	질은 화장	10.7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48.8	상점 절도	10.4
머리 염색	42.6	가출	7.7
컸닝	36.9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7.5
온라인 욕설/폭언	34.7	패싸움 참여	7.3
흡연	33.7	타인 금품 절도	6.8
귀걸이 착용	28.4	자살 시도	6.1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27.2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5.4
공공장소 소란행동	26.4	가족 돈/카드 유용	5.3
폭력성 게임	25.9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4.7
교사에 대한 반항	23.7	온라인 스토킹	4.2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23.0	사창가 배회	4.2
폭력성 사이트 열람	22.6	웹사이트 해킹	4.0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22.4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3.8
성인용 술집 출입	21.1	금품 갈취	3.6
음란성 게임	20.4	버스/지하철 신체접촉	2.4
성인용 노래방 출입	18.7	허위정보 유포	2.0
인터넷 과잉 몰입	18.5	환각약물 흡입	1.0
무단외박	17.8	성매매	0.8
과도한 다이어트	14.6	강제적인 성관계	0.7
폭행	13.6	마약 복용	0.5

2) 타인인지도 · 행동의도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그와 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아무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자살 시도”가 55.6%로서 과반수 이상에 달하였

고,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이 4할 이상, “(인터넷)허위정보 유포”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타인 금품 절도” “가족 돈/카드 유용” “웹사이트 해킹” “(인터넷)음란대화 시도” 등이 3할 이상에 달하였다. 대체로 현실세계의 문제행동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문제행동이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등 표출형 문제행동과 “성인용 술집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등 업소출입 관련 문제행동은 친구나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타인의 눈에 띄기 겁고(표출형 문제행동),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행동(업소출입)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동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귀걸이 착용” “마약 복용”은 과반수 이상이, “질은 화장” “성매매” “성인용 노래방 출입” “강제적인 성관계” “머리 염색” “성인용 술집출입”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환각약물 흡입” 등은 4할 이상이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표출형 문제행동, 성관련 문제행동이 행동지속 의사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고, 마약·환각약물 흡입 등 약물관련 문제행동은 경험자의 비율은 1할 이하의 극소수이지만, 경험자의 행위지속 의사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3) 행동경험의 하위집단별 비교

성별 비교

조사대상이 된 전체 문제행동의 경험자 비율을 성별로 비교하여, 남자의 경험비율이 여자보다 높은 “남성중심형” 문제행동, 그 반대에 해당하는 “여성중심형” 문제행동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중심형 문제행동은 규범적 문제행동 중에서 “흡연” “성인용 노래방 출입”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무단외박” “퀵닝” “가족 돈/카드 유용” “심한 말다툼” 등 8가지, 법률적

문제행동 중에서 “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 “공공기물 파손” “폭행” “패싸움 참여” “사창가 배회” “버스/지하철에서의 이성과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강제적인 성관계” “환각약물 흡입”의 9가지,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등 사이버 문제행동의 10가지였다.

남자보다 여자 경험자 비율이 높은 여성중심형 문제행동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교사에 대한 반항”의 5가지, 법률적 문제행동의 “공공장소 소란행동” “친구따돌리기(왕따)” “자살 시도”의 3가지였으며, 사이버 문제행동 중에서는 해당되는 문제행동이 없었다.

교급별 비교

전체 문제행동 경험의 교급별 차이를 비교하여, “중학생 중심형” “일반고 중심형” “실업고 중심형” 문제행동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학생 중심형 문제행동은 “친구따돌리기(왕따)”와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의 두가지로서 가장 적었다.

일반고 중심형 문제행동은 “부모님에 대한 반항” “공공기물 파손” “폭력성 게임”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성 게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인터넷 과잉몰입”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등 6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고 중심형 문제행동은 표출형 문제행동의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등 4가지,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의 “음주” “흡연” “성인용 술집 출입”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비디오방 출입”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등 10가지, 권위반항형 문제행동의 “교사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무단결석” “무단외박” 가출” “퀵” “가족 돈/카드 유용” 등 7가지, 폭력/절도 비행 중 “금품 갈취” “상점 절도” “폭행” “패싸움 참여” 등 4가지, 성비행의 “사창가 배회”, 도피형 비행의 “자살 시도”, 사이버 문제행동의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음란대화 시도” “온라인 욕설/폭언”의 3가지였다.

지역별 비교

청소년의 거주지역별 문제행동 경험빈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지역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가장 높은 서울 중심형 문제행동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귀걸이 착용” “짙은 화장” “성인용 술집 출입” “부모님에 대한 반항” “교사에 대한 반항” “심한 말다툼” 등 6가지, 법률적 문제행동의 “타인 금품 절도” “상점 절도” “공공장소 소란행동” “친구따돌리기(왕따)” “자살 시도”의 5가지, 사이버 문제행동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아이디/주민번호 도용”의 2가지였다.

대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문제행동은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폭력성 게임”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온라인 욕설/폭언”의 5가지였다.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농촌지역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농촌중심형 문제행동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머리 염색” “음주” “흡연”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무단결석” “무단외박” “기출” 등 8가지, 법률적 문제행동의 “금품 갈취” “공공기물 파손” 등 2가지, 사이버 문제행동의 “음란성 게임” “음란대화 시도” 등 2가지였다.

계층별 비교

조사대상이 된 전체 문제행동의 경험자 비율을 계층별로 비교하여 “상위계층 중심형” “중간계층 중심형” “하위계층 중심형”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계층 청소년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문제행동은 현실세계의 문제행동 중에서는 “친구따돌리기(왕따)” 1가지였으며, 사이버 문제행동 중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인터넷 과잉몰입” “웹사이트 해킹” 등 4가지였다.

하위계층 중심형 문제행동은 24가지에 달했는데, 규범적 문제행동 중 “머리 염색” “음주” “흡연” “성인용 술집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비디오방 출입”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부모님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무단결석” “무단외박” “가출” “컨닝” 등 17가지, 법률적 문제행동 중 “타인 금품 절도” “상점 절도” “폭행” “자살 시도”의 4가지, 사이버 문제행동 중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음란대화 시도” “온라인 욕설/폭언”의 3가지 문제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계층별 경험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28가지 문제행동 중에서 중간계층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나. 유형별 분석

1)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에 속하는 4가지 행동항목 중에서 “머리 염색”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귀걸이 착용” “다이어트” “짙은 화장”의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의 경험빈도는 “귀걸이 착용”이 가장 많았고 “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머리 염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출형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도는 “머리 염색”과 “귀걸이 착용”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의 순이었다. 행동의 타인인지 여부에서는 대부분 부모님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행동경험자의 행동 지속의사가 가장 높은 항목은 “귀걸이 착용”이었고, 다음으로 “머리 염색” “짙은 화장”의 순이었고 “과도한 다이어트”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들 표출형 문제행동들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계층을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등과 같은 여타 하위집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표출형 문제 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사후검증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표출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농촌지역 청소년은 대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표출적 문제행동수준이 더 높았다.

유홍/풍속형 문제행동

유홍/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비율을 보면 “음주”와 “음란/포르노물 열람”이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 다음으로 “폭력/잔혹물 열람” “흡연”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성인용 술집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비디오방 출입”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간의 경험비율은 “성인용 노래방 출입”이 가장 높았고 “성인용 술집 출입”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음주” “비디오방 출입”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들 문제행동에 대한 타인인지도를 보면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과 성관계에 있어서는 친구들만 알고 있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단위행동들보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높게 보여지고 있다. 성과 관계된 행동들은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동경험자의 행동 지속의사는 “성인용 노래방 출입”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성인용 술집 출입”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음주” “비디오방 출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홍/풍속형 문제행동 경험빈도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검토해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경험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에 속한 청소년보다, 지역별로는 농촌

청소년들이 서울·중소도시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경험빈도를 나타내었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정도를 보면 “심한 말다툼”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부모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컨닝” “교사에 대한 반항”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간의 경험빈도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반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용돈 유용”과 “무단외박” 등의 순이었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허용도에 있어서는 “심한 말다툼”의 허용도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용돈 유용” “교사에 대한 반항” “무단외박” 등의 순이었으며 “가족 돈/카드 유용”의 허용도가 가장 낮았다.

행동의 타인인지도에서는 “컨닝” “용돈 유용” “교사에 대한 반항” 등은 부모가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무단결석” “외박” “가출” 등은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친구들만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컨닝” “심한 말다툼” “교사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경험자의 앞으로의 행동의도에서는 대부분 행동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반항”과 “무단외박”은 모르겠다고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는 응답률은 “가출”이 가장 높았으며, “무단외박”의 행동 지속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경험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검토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고교생,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경험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에 속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경험빈도를 나타냈지만, 중간층과 상층간에는 유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경험빈도가 높았다.

2)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형 비행

폭력/절도형 문제행동의 경험빈도를 비교해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동” 경험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폭행” “공공기물 파손” “친구따돌리기(왕따)” “상점 절도”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간의 경험빈도는 “공공장소 소란행동” “금품 갈취” “폭행”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도는 “공공장소 소란행동”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패싸움 참여” “공공기물 파손” “친구따돌리기(왕따)” 등의 순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행동의 타인인지도에서는 대부분의 행동에서 친구들만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률은 “타인 금품 절도”가, 부모님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폭행”과 “패싸움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행동경험자의 행동의도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행동항목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앞으로도 하겠다는 응답률은 “금품 갈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경험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타인 금품 절도” 등 재산범의 경우에는 주로 남자, 실업계 고교생, 서울, 하층 청소년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빈도와 허용도를 나타내었고, “공공기물 파손” “폭행” 등은 남자, 고교생, 하층, 농촌 청소년집단이, “공공장소 소란행동”은 여자, 서울, 중학생 등의 청소년 집단의 경험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친구따돌리기(왕따)”는 여자, 서울, 중학생, 상층 등의 청소년군에서 높은 경험정도가 관찰되었다.

성비행

성비행에서는 “사창가 배회”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이었으며, “성매매”와 “강제적인 성관

계”의 경험자는 1%에도 못미쳤다.

행동의 타인인지도에서는 “사창가 배회”는 친구들만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는 부모님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성비행형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의도를 보면 “성매매”와 “강제적인 성관계”는 앞으로도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지만,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과 “사창가 배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비행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남자, 실업계 고교생, 농촌, 하층 집단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빈도, 행동허용도, 행동 지속의사를 나타내었다.

도피형 비행

도피형 비행의 경험빈도를 비교해 보면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환각약물 흡입”이었고, “마약 복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의 경험빈도를 보면 여타 도피형 문제행동들보다 중독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마약 복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환각약물 흡입”이었으며 “자살 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동허용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자살 시도”의 허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마약 복용”과 “환각약물 흡입”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은 극소수였다.

행동의 타인인지도에 있어서는 “자살 시도”는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마약 복용”은 부모님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환각약물 흡입”은 친구들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다수였다.

행동경험자의 앞으로의 행동의도에서는 “자살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마약 복용”은 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피형 비행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자살 시도”는 여자, 실업계 고교생, 서울, 하층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환각약물 흡입”과 “마약 복용”은 남자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3) 사이버 문제행동

비가해형 문제행동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의 경험비율을 보면, 전체 청소년의 약 절반이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다수였고, 이어서 “폭력성 게임” “폭력성 사이트 열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음란성 게임” “인터넷 과잉몰입” “음란대화 시도”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음란/폭력관련 사이트 열람과 게임이 비가해형 문제행동의 가장 보편화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과 “인터넷 과잉몰입”은 행동경험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행동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행동허용도는 “폭력성 게임”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음란성 게임” “음란대화 시도” “인터넷 과잉몰입”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의 순이었다. 대체로 음란물관련 행동보다는 폭력물관련 문제행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타인인지도 조사결과, 타인이 모르고 있는 숨은 비행의 비율은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음란대화 시도” “음란성 게임”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폭력성 게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인터넷 과잉몰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폭력성 게임”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인터넷 과잉몰입” “음란대화 시도” “음란성 게임”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의 순이었다.

가해행 문제행동

사이버 가해행 문제행동 범주에 속하는 6가지 행동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행동경험자의 비율은 “온라인 욕설/폭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 “온라인 스토킹” “웹사이트 해킹” “허위정보 유포”의 순이었다. 최근 1년간의 행동경험빈도는 “허위정보 유포” “웹사이트 해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이어서 “온라인 스토킹”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의 순이었고, “온라인 욕설/폭언”의 경험빈도가 가장 낮았다.

각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행동허용도 응답결과를 보면, 허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온라인 욕설/폭언”이었고, 이어서 “온라인 스토킹”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허위정보 유포” “웹사이트 해킹”의 순이었고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가 가장 낮았다.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동의 타인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숨은 비행”의 비율은 “허위정보 유포”와 “웹사이트 해킹”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온라인 욕설/폭언” “온라인 스토킹”의 순이었고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가 가장 낮았다.

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행위지속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허위정보 유포”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웹사이트 해킹” “온라인 스토킹” “바이러스/스팸메일 유포”의 순이었고, “타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과 “온라인 욕설/폭언”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다. 종합분석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 항목별 청소년들의 행동허용도 응답결과를 토대로한 산출한 문제행동 지수를 각 하위집단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문제행동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계층별, 지역별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전체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전체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계층별로는 하층의 계층에 있는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에 속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전체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지만, 중간층과 상층간에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서울, 대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전체 문제행동수준이 낮았다.

다음으로 연구진이 설정한 문제행동의 세가지 영역별 문제행동 지수를 하위집단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적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성별, 교급, 계층별, 지역별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중학생보다는 일반계 고교생이 그리고 일반계 고교생보다는 실업계 고교생의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계층별로는 하층의 계층에 있는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에 속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지만 중간층과 상층간에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중소도시 청소년 보다, 농촌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청소년들에 비해 규범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법률적 문제행동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지역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계층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법률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일반계 고교생과 실업계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법률적 문제행

동수준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청소년들보다 법률적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교급, 지역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계층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일반계 고교생과 실업계 고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사이버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 청소년들이 서울지역과 중소도시지역 청소년보다 사이버 문제행동수준이 더 높았다.

2. 논 의

컴퓨터·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상현실 공간에서 전개되는 사이버 문제 행동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넓게 일반화되어 있다. 앞으로 청소년 비행·문제행동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사이버 문제행동을 일부 청소년에 국한된 특수한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청소년 문제행동의 통합적 일부분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급속한 정보화 추세와 더불어 컴퓨터·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 이용빈도에 대한 본 조사의 응답결과를 보면, “거의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6할(61.7%)에 달하고, 일주일에 1~2일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9할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전개되는 사이버 문제행동은 그 빈도나 수준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52가지 문제행동 항목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응답결과를 보면,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48.8%), “온라인 욕설/폭언”(34.7%) 행동 경험비율이 “컨닝”(36.9%), “흡연”(33.7%) 등 전통적인 문제행동의 경험비율을 앞서거나 거의 대등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행동을 일부 계층 청소년에 국한된 특수한 문제로 다루어 온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 청소년 문제행동의 불가결한 통합적 일부분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행동 경험의 계층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실세계의 문제행동, 특히 규범적 문제행동의 경험비율에서 하위계층 청소년은 중·상위 계층 청소년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반면, 사이버 문제행동 영역에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경험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경험비율의 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문제행동 항목은 모두 28가지로서 전체 조사대상 항목의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이중 현실세계의 문제행동에 속하는 20가지 항목 중, “친구따돌리기(왕따)”를 제외한 19가지 항목에서 하위계층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중간·상위계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계층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유흥/풍속형, 권위반항형 문제행동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부모의 교육수준·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사이버 문제행동 영역에 있어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인터넷 괴잉몰입” “웹사이트 해킹” 등 4가지 항목에서 상위계층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중·하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인터넷의 활용도가 계층별로 차별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비정상적인 성관계와 약물관련 문제행동은 경험자의 비율은 극소수이지만, 경험자의 행동의도(지속·반복 의도)는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여타 문제행동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며, 이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

전체 청소년들 중에서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와 “환각약물 흡입” “마약 복용” 등 약물관련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할 이하에 머물고 있다. 경험빈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들 문제행

동은 극소수의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나는 예외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동의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다른 행동들과는 유별되는 심각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마약 복용” 경험 청소년의 5할 이상,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환각약물 흡입” 경험 청소년 중 4할 이상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경험자의 비율이 높은 다른 문제행동들, 예컨대 “음주” “음란/포르노물 열람” “컨닝” 등의 경험자 중 행동 지속의사를 나타낸 청소년의 비율(1~3할 수준)보다 현격하게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이들 문제행동이 다수 청소년들에 의해 우발적, 단속적(斷續的)으로 행해진다기 보다는 소수 청소년들에 의해 의도적,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행동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과 더불어 경험있는 소수 청소년 대상의 치료적 차원의 대응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행동의 경험빈도와 수준의 측면에서 지역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과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경험율·경험수준이 높은 반면, 도시화의 수준에서 중간수준인 지역(대도시·중소도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이 된 52가지 문제행동의 경험유무에 대한 응답결과의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모두 30가지에 달하였다. 이중 서울지역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가장 많은 항목이 11가지, 농촌지역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12가지 항목에 달하는 반면, 중소도시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가장 높은 문제행동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대도시는 8항목).

도시화의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청소년들이 의식과 행동의 측면에서 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리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농촌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경험비율과 수준이 서울지역 청소년들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농촌·농업부문보다는 도시, 공업·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사회가 경제적인 피해현상과 더불어 생활·규범의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이 와해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촌지역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대표적인 문제행동으로는 “음주” “흡연”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무단결석” “무단외박” 등으로서, 농촌지역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기성세대의 권위와 규범적 통제력이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비행·문제행동에 관한 논의는 주로 서울·대도시 지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채, 생활환경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현실세계의 규범적·법률적 문제행동의 경험빈도가 서울·농촌지역 청소년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대도시 청소년들이 컴퓨터·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문제행동의 경험빈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컴퓨터·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매체의 보급과 활용에 있어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그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앞서고 있음은 각종 통계와 조사결과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비행·문제행동은 주로 서울지역 청소년들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조사대상이 된 사이버 문제행동

의 14항목 전체에 걸쳐서 대도시(서울을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가장 높고, 10개 항목의 경우 농촌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서울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사이버 문제행동을 전형적인 도시형 청소년문제의 하나로 간주해 온 사회통념과 어긋나는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 요인으로서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의 초고속 전산망이 완비됨에 따라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역적인 정보격차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점, 서울에 비해 문화·여가관련 시설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이라는 가상현실 공간이 억제된 욕구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매체로서 부각될 수 있으리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실세계의 사회규범에 대해 서울·농촌 청소년들보다 보수적·순종적인 행동성향을 가진 대도시 청소년들이 사이버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문제행동 경험빈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로서, 앞으로 그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은 음란물보다는 폭력/잔혹물에 대해서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폭력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우리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행동 허용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폭력성 게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이 4할에 달하는 반면, “음란성 게임”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만화·영화 등의 폭력/잔혹물 열람에 대한 허용도가 음란/포르노물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성년자의 음란/포르노물 열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폭력/잔혹물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우리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에 폭력/잔혹물을 회화화하여 표현하는 이른바 “엽기사이트”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도 그 요인의 하나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경우, 폭력물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한 반면 비정상적인 형태의 성관행과 관련이 없는 음란/포르노물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 비해 훨씬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 폭력/잔혹물이 음란물에 비해 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영화·만화·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폭력/잔혹물의 실태와 그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행동 항목에서 실업계 고교생의 경험비율이 일반계 고교생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력·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실업계 고교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행동 경험여부의 학교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모두 41개 항목이었다. 이중 중학생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2항목, 일반계 고교생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8개 항목(6개 항목은 사이버 문제행동 영역)에 불과한 반면, 31개 문제행동 항목은 실업계 고교생 중 경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생의 문제행동 경험비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환경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학력·학벌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교육풍토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진학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과도적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학보

다는 취업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생 중 무단결석 경험자가 1/4수준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일반계 고교생은 9.3%)는, 상당수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파행적인 교육환경·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업계 고교생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업계 고교생의 높은 문제행동 경험빈도와 수준은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세현(1994). 선택적 낙인과정과 비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익희(1986).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일연구-T.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 외(1997).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한국청소년개발원.
- 곽대경(1988). 청소년 비행의 통합모델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청자(1995).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혁무(1989). 한국청소년범죄의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1993). 청소년 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두식(2000).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비행성향 및 자살충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미(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민(1994).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2000).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현실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pp.5-5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연·노성호(1999). 청소년 범죄추세분석: 1966-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정수(1993).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적응력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외(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1989).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측정.” 청소년범죄연구. 제7집. pp. 173-193.
- 김준호·김은경(1996). 법의식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정선(1990).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김준호·박해광(1994). 음란물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이동원(1996a).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이동원(1996b). 한국의 청소년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은(1998).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훈(1996). 청소년비행에 관한 청소년, 부모, 교사 및 전문가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재봉(1992).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성호(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용린(199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문은영(1993).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정선(1987).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창남(1995). 범치벌의 인지된 억제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청소년비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호중(1992).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고찰-유해환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경화(1997).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역할과 방향모색.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정부(1993). “청소년의 문제행동.”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문제론. 양서원.

이동원(1997). 청소년 비행의 통제요인과 유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식(1986).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하위문화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199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용(1985).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운호(1999).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현(1992). 한국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주동범·서정아(2000).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태원(1992). 일탈행동이론의 통합모형구성을 위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연(1998). 청소년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하나.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영식·한상철(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학문사.
-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 서울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 전경숙 외 3인(1999).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 범규에 관한 연구 - 문제청소년 지도를 위한 법률적 이해 -.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희태(1998).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양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숙(1998). 청소년 지위비행에 대한 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의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진 외 2인(1990).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충옥(1998). 청소년문제 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제5권2호.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청소년개발원(1990).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1),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가정지도 편람 -자녀지도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비행청소년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6). 가출청소년을 위한 중간의집 설치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홍승직(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cker, H. S.(1963). *Outsider*. The Free Press.
- Cohen, A. K.(1975). "Reference Group Identification and Deviant Behavior". In *Social Deviance*. pp. 50-65.
- Frazier, C. E.(1976). *Theoretical Approaches to Deviance: An Evaluation*.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 Giddens, A.(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Polity Press.
- Merton, R. K.(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The Free Press.
- Sanders, W. B.(1981). *Juvenile Delinquency: Causes and Reactions*. Holt, Rinehart and Winston.
- Scheff, T.(1966). *Being Mentally Ill*. Aldine.
- Shaw, C. R. and McKay, H. D.(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egel, S. J., & Senna, J. J.(1994). *Juvenile Delinquency*, West Publishing Company.
- Sutherland, E. H.(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 ed. Lippincott.

부록: 조사결과 단순집계표

번호	조사문항	빈도 (명)	비율 (%)
Q1	당신의 성별은?		
	1. 남자	3086	52.0
	2. 여자	2848	48.0
Q2	나이는 만으로 몇살입니까?		
	1. 12	135	2.3
	2. 13	637	10.8
	3. 14	985	16.7
	4. 15	1071	18.1
	5. 16	1673	28.3
	6. 17	1226	20.8
	7. 18	174	2.9
	8. 19	7	0.1
Q3	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		
	1. 중학 교	2596	43.9
	2.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2169	36.7
	3. 실업계 고등학교	1153	19.5
Q4	몇학년입니까 ?		
	1. 1학년	2194	37.0
	2. 2학년	2669	45.1
	3. 3학년	1060	17.9
Q5	자신의 학교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매우 못하는 편	538	9.1
	2. 중간보다 못하는 편	1449	24.5
	3. 중간 수준	2115	35.8
	4. 중간보다 잘하는 편	1523	25.8
	5. 매우 잘 하는 편	281	4.8
Q6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		
	1. 두분 모두 계시다	5601	94.5
	2. 아버님만 계시다	96	1.6
	3. 어머님만 계시다	203	3.4
	4. 두분 모두 안계시다	26	0.4
Q7	형제 또는 자매가 있습니까 ?		
	1. 있 다	5431	91.7
	2. 없 다	494	8.3
Q8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1. 부모님(또는 두분중의 한분)과 함께 살고 있다	5582	94.6

	2. 부모님과 떨어져서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	88	1.5
	3. 부모님과 떨어져서 친척 또는 친지 집에 살고 있다	133	2.3
	4.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하숙/자취/기숙사 등)	98	1.7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종교입니까?		
Q 9	1. 종교가 없다	2352	39.8
	2. 기독교(신교·교회)	1794	30.4
	3. 가톨릭(구교·성당)	493	8.4
	4. 불 교	1160	19.6
	5. 유 교	15	0.3
	6. 기타 다른종교	90	1.5
Q 10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 중학교 중퇴→중학교 졸업으로)?		
	1) 아버지		
	1. 중학교졸업 이하	1043	18.8
	2. 고등학교 졸업	2828	50.8
	3. 전문대(2년) 졸업	208	3.7
	4. 대학교(4년) 졸업	1196	21.5
	5. 대학원 졸업	287	5.2
	2) 어머니		
	1. 중학교졸업이하	1367	24.5
	2. 고등학교 졸업	3326	59.6
	3. 전문대(2년) 졸업	143	2.6
	4. 대학교(4년) 졸업	656	11.8
	5. 대학원 졸업	90	1.6
Q 11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아래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해당되는 직업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직업으로).		
	1) 아버지		
	1. 무직 또는 정년퇴직자	192	3.4
	2. 가사활동	110	2.0
	3. 농업·어업	541	9.6
	4. 경영·관리직: 3급이상 공무원, 기업체의 임원·관리직, 장성급 군인	375	6.7
	5. 사무·행정직: 회사·관청·단체의 중간간부·일반직원, 군인, 경찰	1017	18.1
	6. 교육자: 초·중·고교 교사, 학원 강사 등	136	2.4
	7. 전문직: 대학교수, 판·검사, 의사, 연구원, 회계사, 성직자 등	148	2.6
	8. 기술직: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건축가, 파일러트 등	692	12.3
	9. 자영업: 슈퍼마켓, 전자대리점, 정비소, 주유소, 식당 등 경영자	1064	19.0
	10. 서비스직: 요리사, 이발사, 미용사, 웨이터 등	102	1.8
	11. 판매·영업직: 세일즈맨, 외판원, 상점 점원 등	219	3.9
	12. 생산·기능직: 공장 근로자, 건설 작업자, 운전기사, 경비원 등	1018	18.1
	2) 어머니		
	1. 무직 또는 정년퇴직자	239	4.2
	2. 가사활동	2798	48.9
	3. 농업·어업	343	6.0

	4. 경영·관리직: 3급이상 공무원, 기업체의 임원·관리직, 장성급 군인	70	1.2
	5. 사무·행정직: 회사·관청·단체의 중간간부, 일반직원, 군인, 경찰	255	4.5
	6. 교육자: 초·중·고교 교사, 학원 강사 등	127	2.2
	7. 전문직: 대학교수, 판·검사, 의사, 연구원, 회계사, 성직자 등	67	1.2
	8. 기술직: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건축가, 파일럿 등	33	0.6
	9. 자영업: 슈퍼마켓, 전자대리점, 정비소, 주유소, 식당 등 경영자	838	14.6
	10. 서비스직: 요리사, 이발사, 미용사, 웨이터 등	221	3.9
	11. 판매·영업직: 세일즈맨, 외판원, 상점 점원 등	404	7.1
	12. 생산·기능직: 공장 근로자, 건설 작업자, 운전기사, 경비원 등	327	5.7
Q 12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집의 생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못 사는 편	160	2.7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983	16.6
	3. 중간 수준	4020	68.0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689	11.7
	5. 매우 잘 사는 편	56	0.9
Q 13	당신은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다음 각각의 문제에 관하여 고민/걱정거리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공부·학교성적 문제		
	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336	5.7
	2. 고민/걱정거리가 ‘보통수준이다’	2539	43.2
	3. 고민/걱정거리가 ‘심각하다’	2101	35.8
	4. 고민/걱정거리가 ‘매우 심각하다’	898	15.3
	2) 진학·진로 문제		
	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359	6.1
	2. 고민/걱정거리가 ‘보통수준이다’	2223	38.0
	3. 고민/걱정거리가 ‘심각하다’	2242	38.3
	4. 고민/걱정거리가 ‘매우 심각하다’	1033	17.6
	3) 가정의 경제적 형편		
	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1607	27.5
	2. 고민/걱정거리가 ‘보통수준이다’	3345	57.3
	3. 고민/걱정거리가 ‘심각하다’	698	12.0
	4. 고민/걱정거리가 ‘매우 심각하다’	188	3.2
	4) 부모님과의 관계		
	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2806	48.1
	2. 고민/걱정거리가 ‘보통수준이다’	2555	43.8
	3. 고민/걱정거리가 ‘심각하다’	337	5.8
	4. 고민/걱정거리가 ‘매우 심각하다’	133	2.3
	5) 이성친구문제		
	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2894	49.6
	2. 고민/걱정거리가 ‘보통수준이다’	2239	38.4
	3. 고민/걱정거리가 ‘심각하다’	443	7.6

	4. 고민/걱정거리가 '매우 심각하다'	261	4.5
	6) 성(sex)과 관련된 문제		
	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4125	70.7
	2. 고민/걱정거리가 '보통수준이다'	1449	24.8
	3. 고민/걱정거리가 '심각하다'	127	2.2
	4. 고민/걱정거리가 '매우 심각하다'	132	2.3
	7) 친구와의 관계		
	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2828	48.3
	2. 고민/걱정거리가 '보통수준이다'	2639	45.1
	3. 고민/걱정거리가 '심각하다'	295	5.0
	4. 고민/걱정거리가 '매우 심각하다'	91	1.6
	8) 자신의 성격		
	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1471	25.2
	2. 고민/걱정거리가 '보통수준이다'	3395	58.1
	3. 고민/걱정거리가 '심각하다'	735	12.6
	4. 고민/걱정거리가 '매우 심각하다'	245	4.2
	9) 자신의 외모/체격 문제		
	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1113	19.0
	2. 고민/걱정거리가 '보통수준이다'	3068	52.4
	3. 고민/걱정거리가 '심각하다'	1203	20.6
	4. 고민/걱정거리가 '매우 심각하다'	466	8.0
	10) 종교·인생관 문제		
	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3728	63.8
	2. 고민/걱정거리가 '보통수준이다'	1637	28.0
	3. 고민/걱정거리가 '심각하다'	335	5.7
	4. 고민/걱정거리가 '매우 심각하다'	145	2.5
Q 14	당신은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주로 누구와 상의합니까?		
	1. 아버지	246	4.2
	2. 어머니	1105	18.9
	3. 형제·자매	495	8.5
	4. 선생님	35	0.6
	5. 친구나 선후배	2923	50.0
	6. 상담기관(전화/인터넷상담 포함)	14	0.2
	7. 기타 다른 사람	153	2.6
	8. 상의할 사람(곳)이 없다	875	15.0
Q 15	현재 자신의 생활을 평가할 때 다음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불만을 느끼십니까?		
	1) 가정생활 전반		
	1. 매우 불만이다	194	3.3
	2. 불만이다	717	12.2
	3. 그저그렇다	2408	40.9
	4. 만족한다	1978	33.6
	5. 매우 만족한다	586	10.0
	2) 부모님과의 관계		

	1. 매우 불만이다	145	2.5
	2. 불만이다	505	8.6
	3. 그저그렇다	1810	30.8
	4. 만족한다	2387	40.6
	5. 매우 만족한다	1034	17.6
	3) 학교생활 전반		
	1. 매우 불만이다	288	4.9
	2. 불만이다	693	11.8
	3. 그저그렇다	2611	44.4
	4. 만족한다	1949	33.1
	5. 매우 만족한다	341	5.8
	4) 선생님과의 관계		
	1. 매우 불만이다	379	6.4
	2. 불만이다	705	12.0
	3. 그저그렇다	2780	47.3
	4. 만족한다	1666	28.3
	5. 매우 만족한다	347	5.9
	5) 친구들과의 관계		
	1. 매우 불만이다	80	1.4
	2. 불만이다	164	2.8
	3. 그저그렇다	1612	27.4
	4. 만족한다	2850	48.5
	5. 매우 만족한다	1172	19.9
Q 16	현재 자신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1. 전혀 행복하지 않다	189	3.2
	2. 행복하지 않다	597	10.1
	3. 그저 그렇다	2405	40.7
	4. 행복하다	2283	38.6
	5. 매우 만족한다	438	7.4
Q 17	당신이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정도입니까 ?		
	1. 없 다	516	8.7
	2. 1 명	604	10.2
	3. 2~3명	3380	57.2
	4. 5~9명	1102	18.6
	5. 10명 이상	312	5.3
Q 18	[앞문항의 2~5번 응답자만] 그중에는 이성친구도 있습니까 ?		
	1. 없 다	3841	69.6
	2. 있 다	1674	30.4
Q 21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청소년 자신의 문제	1105	18.7
	2. 가정교육/가정환경	2012	34.1
	3. 교육제도/학교환경	836	14.2

	4. 지역사회(동네) 환경	108	1.8
	5. 사회적 여건/환경	615	10.4
	6. 친구/선후배 관계	1222	20.7
Q 22	당신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학교에서 훈계 처분을 받았다		
	1. 있다	708	12.0
	2. 없다	5187	88.0
	2) 학교에서 교내봉사/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1. 있다	704	11.9
	2. 없다	5193	88.1
	3) 학교에서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1. 있다	211	3.6
	2. 없다	5678	96.4
	4)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되었다		
	1. 있다	302	5.1
	2. 없다	5593	94.9
	5) 검찰에 송치되어 훈방 또는 처분을 받았다		
	1. 있다	111	1.9
	2. 없다	5781	98.1
Q 23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담배를 피우는 것		
	1. 아주 나쁘다	2439	41.2
	2. 나쁘다	1784	30.1
	3. 그저그렇다	1294	21.8
	4. 나쁘지 않다	286	4.8
	5. 전혀 나쁘지 않다	120	2.0
	2) 술을 마시는 것		
	1. 아주 나쁘다	1204	20.3
	2. 나쁘다	1158	19.6
	3. 그저그렇다	2118	35.8
	4. 나쁘지 않다	1122	18.9
	5. 전혀 나쁘지 않다	321	5.4
	3)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1. 아주 나쁘다	1483	25.0
	2. 나쁘다	1725	29.1
	3. 그저그렇다	1976	33.4
	4. 나쁘지 않다	507	8.6
	5. 전혀 나쁘지 않다	230	3.9
	4) 성인용 폭력/잔혹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1. 아주 나쁘다	1363	23.1
	2. 나쁘다	1630	27.6
	3. 그저그렇다	2021	34.2
	4. 나쁘지 않다	624	10.6

5. 전혀 나쁘지 않다	271	4.6
5)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278	4.7
2. 나쁘다	505	8.5
3. 그저그렇다	1969	33.3
4. 나쁘지 않다	1997	33.7
5. 전혀 나쁘지 않다	1170	19.8
6) 짙은 화장을 하고 외출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720	12.2
2. 나쁘다	1371	23.2
3. 그저그렇다	2326	39.3
4. 나쁘지 않다	1063	18.0
5. 전혀 나쁘지 않다	439	7.4
7) 귀걸이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390	6.6
2. 나쁘다	521	8.8
3. 그저그렇다	1715	29.0
4. 나쁘지 않다	1605	27.1
5. 전혀 나쁘지 않다	1689	28.5
8) 체중조절을 위한 특수식품/약 복용 또는 끼니 굶기		
1. 아주 나쁘다	1428	24.1
2. 나쁘다	1814	30.7
3. 그저그렇다	1689	28.6
4. 나쁘지 않다	632	10.7
5. 전혀 나쁘지 않다	351	5.9
9) PC방을 이용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80	1.4
2. 나쁘다	93	1.6
3. 그저그렇다	929	15.7
4. 나쁘지 않다	1733	29.3
5. 전혀 나쁘지 않다	3084	52.1
10) 성인전용 노래방을 이용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152	19.5
2. 나쁘다	1930	32.6
3. 그저그렇다	1795	30.3
4. 나쁘지 않다	550	9.3
5. 전혀 나쁘지 않다	493	8.3
11) 디스코텍/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490	25.2
2. 나쁘다	1875	31.7
3. 그저그렇다	1722	29.1
4. 나쁘지 않다	516	8.7
5. 전혀 나쁘지 않다	316	5.3

12) 성인용 술집(호프집/단란주점 등)을 이용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2177	36.8
2. 나쁘다	1807	30.5
3. 그저그렇다	1284	21.7
4. 나쁘지 않다	404	6.8
5. 전혀 나쁘지 않다	250	4.2
13) 비디오방을 이용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149	19.4
2. 나쁘다	1353	22.9
3. 그저그렇다	2022	34.2
4. 나쁘지 않다	839	14.2
5. 전혀 나쁘지 않다	557	9.4
14) 사창가를 배회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2817	47.9
2. 나쁘다	1824	31.0
3. 그저그렇다	1001	17.0
4. 나쁘지 않다	127	2.2
5. 전혀 나쁘지 않다	112	1.9
15)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		
1. 아주 나쁘다	2131	36.1
2. 나쁘다	1745	29.5
3. 그저그렇다	1327	22.5
4. 나쁘지 않다	419	7.1
5. 전혀 나쁘지 않다	286	4.8
16)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739	12.5
2. 나쁘다	1041	17.6
3. 그저그렇다	2278	38.6
4. 나쁘지 않다	1219	20.6
5. 전혀 나쁘지 않다	629	10.7
17) 다른 사람과 심한 말다툼을 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420	7.1
2. 나쁘다	1617	27.4
3. 그저그렇다	2773	46.9
4. 나쁘지 않다	762	12.9
5. 전혀 나쁘지 않다	335	5.7
18) 부모님께 거짓으로 용돈을 타서 사용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152	19.5
2. 나쁘다	2611	44.2
3. 그저그렇다	1724	29.2
4. 나쁘지 않다	265	4.5
5. 전혀 나쁘지 않다	161	2.7
19) 부모님이나 가족의 돈/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3472	58.7
2. 나쁘다	2063	34.9
3. 그저그렇다	299	5.1
4. 나쁘지 않다	32	0.5
5. 전혀 나쁘지 않다	48	0.8
20) 시험볼 때 컨닝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876	31.7
2. 나쁘다	2390	40.4
3. 그저그렇다	1292	21.8
4. 나쁘지 않다	207	3.5
5. 전혀 나쁘지 않다	152	2.6
21)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697	28.7
2. 나쁘다	2683	45.4
3. 그저그렇다	1301	22.0
4. 나쁘지 않다	138	2.3
5. 전혀 나쁘지 않다	92	1.6
22) 부모님 허락없이 밖에서 자는 것		
1. 아주 나쁘다	1631	27.6
2. 나쁘다	2521	42.6
3. 그저그렇다	1310	22.2
4. 나쁘지 않다	286	4.8
5. 전혀 나쁘지 않다	164	2.8
23) 부모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625	27.5
2. 나쁘다	2632	44.5
3. 그저그렇다	1406	23.8
4. 나쁘지 않다	177	3.0
5. 전혀 나쁘지 않다	71	1.2
24) 선생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488	25.2
2. 나쁘다	2575	43.6
3. 그저그렇다	1454	24.6
4. 나쁘지 않다	251	4.2
5. 전혀 나쁘지 않다	144	2.4
25) 가출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3141	53.1
2. 나쁘다	1988	33.6
3. 그저그렇다	625	10.6
4. 나쁘지 않다	90	1.5
5. 전혀 나쁘지 않다	73	1.2
26) 버스/지하철등에서 이성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2963	50.2

2. 나쁘다	1905	32.2
3. 그저그렇다	799	13.5
4. 나쁘지 않다	136	2.3
5. 전혀 나쁘지 않다	104	1.8
27) 이성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		
1. 아주 나쁘다	4248	71.8
2. 나쁘다	1237	20.9
3. 그저그렇다	312	5.3
4. 나쁘지 않다	44	0.7
5. 전혀 나쁘지 않다	72	1.2
28) 이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		
1. 아주 나쁘다	4766	80.6
2. 나쁘다	935	15.8
3. 그저그렇다	149	2.5
4. 나쁘지 않다	16	0.3
5. 전혀 나쁘지 않다	46	0.8
29)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3592	60.7
2. 나쁘다	1855	31.4
3. 그저그렇다	380	6.4
4. 나쁘지 않다	46	0.8
5. 전혀 나쁘지 않다	44	0.7
30) 집단 패싸움에 참여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3088	52.2
2. 나쁘다	2010	34.0
3. 그저그렇다	689	11.6
4. 나쁘지 않다	64	1.1
5. 전혀 나쁘지 않다	67	1.1
31) 백화점/가게 등 상점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1. 아주 나쁘다	3604	60.9
2. 나쁘다	1985	33.6
3. 그저그렇다	267	4.5
4. 나쁘지 않다	24	0.4
5. 전혀 나쁘지 않다	34	0.6
32) 다른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1. 아주 나쁘다	3880	65.6
2. 나쁘다	1785	30.2
3. 그저그렇다	197	3.3
4. 나쁘지 않다	19	0.3
5. 전혀 나쁘지 않다	34	0.6
33)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뺏는 것		
1. 아주 나쁘다	4167	70.4
2. 나쁘다	1531	25.9

3. 그저그렇다	173	2.9
4. 나쁘지 않다	12	0.2
5. 전혀 나쁘지 않다	32	0.5
34) 학교/공공장소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2423	41.0
2. 나쁘다	2674	45.2
3. 그저그렇다	718	12.1
4. 나쁘지 않다	56	0.9
5. 전혀나쁘지않다	43	0.7
35)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		
1. 아주 나쁘다	1827	30.9
2. 나쁘다	2877	48.7
3. 그저그렇다	1078	18.2
4. 나쁘지 않다	68	1.2
5. 전혀나쁘지않다	62	1.0
36)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4561	77.1
2. 나쁘다	1151	19.5
3. 그저그렇다	153	2.6
4. 나쁘지 않다	15	0.3
5. 전혀나쁘지않다	35	0.6
37) 대마초/엑스타시 등 환각성 마약을 흡입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4790	80.9
2. 나쁘다	942	15.9
3. 그저그렇다	136	2.3
4. 나쁘지 않다	12	0.2
5. 전혀나쁘지않다	38	0.6
38)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왕따)		
1. 아주 나쁘다	3760	63.6
2. 나쁘다	1636	27.7
3. 그저그렇다	419	7.1
4. 나쁘지 않다	50	0.8
5. 전혀나쁘지않다	50	0.8
39) 자살을 시도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3797	64.4
2. 나쁘다	1135	19.3
3. 그저그렇다	685	11.6
4. 나쁘지 않다	155	2.6
5. 전혀나쁘지않다	121	2.1
Q 27	다음은 컴퓨터/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여러가지 행동을 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871 31.9

2. 나쁘다	2141	36.5
3. 그저 그렇다	1390	23.7
4. 나쁘지 않다	299	5.1
5. 전혀 나쁘지 않다	165	2.8
2) 채팅/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876	32.0
2. 나쁘다	2435	41.5
3. 그저 그렇다	1173	20.0
4. 나쁘지 않다	225	3.8
5. 전혀 나쁘지 않다	159	2.7
3) 음란한 내용의 게임을 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882	32.1
2. 나쁘다	2310	39.4
3. 그저 그렇다	1301	22.2
4. 나쁘지 않다	225	3.8
5. 전혀 나쁘지 않다	148	2.5
4)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770	30.2
2. 나쁘다	2132	36.4
3. 그저 그렇다	1481	25.3
4. 나쁘지 않다	325	5.5
5. 전혀 나쁘지 않다	156	2.7
5)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게임을 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598	27.3
2. 나쁘다	1840	31.4
3. 그저 그렇다	1746	29.8
4. 나쁘지 않다	450	7.7
5. 전혀 나쁘지 않다	229	3.9
6)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625	27.7
2. 나쁘다	2480	42.3
3. 그저 그렇다	1365	23.3
4. 나쁘지 않다	259	4.4
5. 전혀 나쁘지 않다	137	2.3
7) 불법 소프트웨어를 입수하여 사용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1681	28.7
2. 나쁘다	2004	34.2
3. 그저 그렇다	1461	24.9
4. 나쁘지 않다	423	7.2
5. 전혀 나쁘지 않다	298	5.1
8)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		
1. 아주 나쁘다	2694	45.9
2. 나쁘다	2377	40.5

3. 그저 그렇다	650	11.1
4. 나쁘지 않다	70	1.2
5. 전혀 나쁘지 않다	73	1.2
9) 다른 사람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사용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2997	51.1
2. 나쁘다	1899	32.4
3. 그저 그렇다	749	12.8
4. 나쁘지 않다	114	1.9
5. 전혀 나쁘지 않다	108	1.8
10) 다른 사람의 컴퓨터/웹사이트를 고의로 해킹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3106	52.9
2. 나쁘다	2022	34.5
3. 그저 그렇다	557	9.5
4. 나쁘지 않다	95	1.6
5. 전혀 나쁘지 않다	87	1.5
11)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2807	47.9
2. 나쁘다	2298	39.2
3. 그저 그렇다	638	10.9
4. 나쁘지 않다	53	0.9
5. 전혀 나쁘지 않다	63	1.1
12) 고의로 바이러스/스팸메일(폭탄메일)을 발송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3450	58.8
2. 나쁘다	1819	31.0
3. 그저 그렇다	457	7.8
4. 나쁘지 않다	61	1.0
5. 전혀 나쁘지 않다	77	1.3
13) 자살/폭탄제조 사이트 등 반사회적 사이트를 열람한 경험		
1. 아주 나쁘다	3109	53.0
2. 나쁘다	1793	30.6
3. 그저 그렇다	752	12.8
4. 나쁘지 않다	124	2.1
5. 전혀 나쁘지 않다	88	1.5
14)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받을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하는 것		
1. 아주 나쁘다	2102	35.8
2. 나쁘다	2359	40.2
3. 그저 그렇다	1121	19.1
4. 나쁘지 않다	158	2.7
5. 전혀 나쁘지 않다	124	2.1

Q 28	다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행동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행동들에 대하여 아래의 <응답요령> 을 참고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요령> - 경험이 없는 사람: A의 "1 없다"를 선택한 뒤, 아래 항목으로 - 경험이 있는 사람: A의 "2 있다"를 선택한 뒤, 오른쪽 B,C,D항 계속 응답		
	1) 담배를피워 본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3919	66.3
	2. 있다	1996	33.7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196	9.9
	2. 친구(들)만 안다	1220	61.8
	3. 부모님도 아신다	557	28.2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640	33.0
	2. 6개월에 한두번	302	15.6
	3. 한달에 한두번	188	9.7
	4. 1주일에 한두번	191	9.9
	5. 1주일에 3-4번	616	31.8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		
	1. 안할 것이다	995	51.2
	2. 모르겠다	734	37.8
	3. 할 것이다	215	11.1
	2) 술을 마셔 본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1888	32.0
	2. 있다	4018	68.0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118	3.0
	2. 친구(들)만 안다	1590	40.6
	3. 부모님도 아신다	2213	56.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883	22.9
	2. 6개월에 한두번	1528	39.6
	3. 한달에 한두번	957	24.8
	4. 1주일에 한두번	353	9.1
	5. 1주일에 3-4번	141	3.7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		
	1. 안할 것이다	884	22.9
	2. 모르겠다	1716	44.4
	3. 할 것이다	1264	32.7

3)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영화/만화 등)을 본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2533	43.0
2. 있다	3362	57.0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415	12.6
2. 친구(들)만 안다	2518	76.6
3. 부모님도 아신다	353	10.7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771	23.7
2. 6개월에 한두번	1160	35.6
3. 한달에 한두번	804	24.7
4. 1주일에 한두번	376	11.5
5. 1주일에 3-4번	148	4.5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1333	41.1
2. 모르겠다	1547	47.7
3. 할 것이다	366	11.3
4) 성인용 폭력/잔혹물(비디오/영화/만화 등)을 본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3003	51.0
2. 있다	2889	49.0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264	9.4
2. 친구(들)만 안다	1824	65.0
3. 부모님도 아신다	720	25.6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584	20.9
2. 6개월에 한두번	1039	37.2
3. 한달에 한두번	751	26.9
4. 1주일에 한두번	281	10.1
5. 1주일에 3-4번	139	5.0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885	31.8
2. 모르겠다	1435	51.6
3. 할 것이다	461	16.6
5)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3386	57.4
2. 있다	2516	42.6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61	2.5
2. 친구(들)만 안다	298	12.3
3. 부모님도 아신다	2064	85.2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653	27.6
2. 6개월에 한두번	1301	55.0
3. 한달에 한두번	170	7.2
4. 1주일에 한두번	63	2.7
5. 1주일에 3-4번	177	7.5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451	19.0
2. 모르겠다	852	35.9
3. 할 것이다	1068	45.0
6) 짙은 화장을 하고 외출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258	89.3
2. 있다	627	10.7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20	3.3
2. 친구(들)만 안다	247	40.4
3. 부모님도 아신다	344	56.3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71	12.0
2. 6개월에 한두번	114	19.2
3. 한달에 한두번	175	29.5
4. 1주일에 한두번	161	27.1
5. 1주일에 3-4번	73	12.3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77	12.7
2. 모르겠다	231	38.0
3. 할 것이다	300	49.3
7) 귀걸이를 착용하고 외출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221	71.6
2. 있다	1671	28.4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31	1.9
2. 친구(들)만 안다	166	10.3
3. 부모님도 아신다	1413	87.8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250	15.9
	2. 6개월에 한두번	251	15.9
	3. 한달에 한두번	214	13.6
	4. 1주일에 한두번	318	20.2
	5. 1주일에 3-4번	544	34.5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161	10.2
	2. 모르겠다	330	20.8
	3. 할 것이다	1095	69.0
	8) 체중조절을 위해 특수식품/약을 복용하거나 끼니를 굶은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023	85.4
	2. 있다	858	14.6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58	7.1
	2. 친구(들)만 안다	123	15.1
	3. 부모님도 아신다	635	77.8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29	15.9
	2. 6개월에 한두번	224	27.6
	3. 한달에 한두번	181	22.3
	4. 1주일에 한두번	146	18.0
	5. 1주일에 3-4번	131	16.2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194	23.8
	2. 모르겠다	337	41.3
	3. 할 것이다	284	34.8
Q 29	다음의 각 행동들에 대해서도 아래의 <응답요령> 을 참고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요령>		
	- 경험이 없는 사람: A의 "1 없다"를 선택한 뒤, 아래 항목으로		
	- 경험이 있는 사람: A의 "2 있다"를 선택한 뒤, 오른쪽 B,C,D분항 계속 응답		
	2) 성인전용 노래방을 이용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782	81.3
	2. 있다	1103	18.7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34	3.2
	2. 친구(들)만 안다	385	35.8
	3. 부모님도 아신다	657	61.1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97	9.0

2. 6개월에 한두번	185	17.2
3. 한달에 한두번	158	14.7
4. 1주일에 한두번	154	14.3
5. 1주일에 3-4번	480	44.7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까 ?		
1. 안할 것이다	155	14.5
2. 모르겠다	401	37.5
3. 할 것이다	513	48.0
3) 디스코텍/나이트클럽을 이용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5442	92.5
2. 있다	444	7.5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22	5.2
2. 친구(들)만 안다	251	58.9
3. 부모님도 아신다	153	35.9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53	12.6
2. 6개월에 한두번	133	31.7
3. 한달에 한두번	88	21.0
4. 1주일에 한두번	60	14.3
5. 1주일에 3-4번	85	20.3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까 ?		
1. 안할 것이다	71	16.7
2. 모르겠다	193	45.4
3. 할 것이다	161	37.9
4) 성인용 술집(호프집/단란주점 등)을 이용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4647	78.9
2. 있다	1244	21.1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38	3.1
2. 친구(들)만 안다	821	67.9
3. 부모님도 아신다	350	28.9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71	5.9
2. 6개월에 한두번	248	20.5
3. 한달에 한두번	215	17.8
4. 1주일에 한두번	240	19.9
5. 1주일에 3-4번	433	35.9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까 ?		

1. 안할 것이다	167	13.9
2. 모르겠다	508	42.2
3. 할 것이다	530	44.0
5) 비디오방을 이용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186	88.1
2. 있다	702	11.9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62	9.2
2. 친구(들)만 안다	442	65.8
3. 부모님도 아신다	168	25.0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08	16.2
2. 6개월에 한두번	226	33.9
3. 한달에 한두번	136	20.4
4. 1주일에 한두번	93	14.0
5. 1주일에 3-4번	103	15.5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150	22.6
2. 모르겠다	301	45.4
3. 할 것이다	212	32.0
6) 사창가를 배회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637	95.8
2. 있다	247	4.2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36	15.4
2. 친구(들)만 안다	134	57.3
3. 부모님도 아신다	64	27.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48	20.3
2. 6개월에 한두번	64	27.1
3. 한달에 한두번	47	19.9
4. 1주일에 한두번	26	11.0
5. 1주일에 3-4번	51	21.6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93	40.3
2. 모르겠다	94	40.7
3. 할 것이다	44	19.0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581	94.6

2. 있다	320	5.4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51	16.8
2. 친구(들)만 안다	192	63.4
3. 부모님도 아신다	60	19.8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27	8.9
2. 6개월에 한두번	74	24.3
3. 한달에 한두번	53	17.4
4. 1주일에 한두번	45	14.8
5. 1주일에 3-4번	105	34.5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78	25.9
2. 모르겠다	123	40.9
3. 할 것이다	100	33.2
8)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가진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292	72.8
2. 있다	1602	27.2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220	14.2
2. 친구(들)만 안다	1160	74.6
3. 부모님도 아신다	174	11.2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69	10.9
2. 6개월에 한두번	314	20.3
3. 한달에 한두번	252	16.3
4. 1주일에 한두번	235	15.2
5. 1주일에 3-4번	576	37.3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192	12.5
2. 모르겠다	687	44.7
3. 할 것이다	658	42.8
9) 다른 사람과 심한 말다툼을 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2096	35.6
2. 있다	3790	64.4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224	6.1
2. 친구(들)만 안다	2206	60.3
3. 부모님도 아신다	1228	33.6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590	16.3
2. 6개월에 한두번	1262	34.9
3. 한달에 한두번	822	22.7
4. 1주일에 한두번	497	13.7
5. 1주일에 3-4번	444	12.3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1693	47.7
2. 모르겠다	1562	44.0
3. 할 것이다	294	8.3
10) 부모님께 거짓으로 용돈을 타서 사용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2629	44.7
2. 있다	3246	55.3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910	29.1
2. 친구(들)만 안다	1561	50.0
3. 부모님도 아신다	653	20.9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357	11.6
2. 6개월에 한두번	802	26.1
3. 한달에 한두번	767	24.9
4. 1주일에 한두번	539	17.5
5. 1주일에 3-4번	613	19.9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1577	52.2
2. 모르겠다	1138	37.7
3. 할 것이다	304	10.1
11) 부모님이나 가족의 돈/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561	94.7
2. 있다	310	5.3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95	33.1
2. 친구(들)만 안다	89	31.0
3. 부모님도 아신다	103	35.9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66	22.9
2. 6개월에 한두번	69	24.0
3. 한달에 한두번	49	17.0

4. 1주일에 한두번	53	18.4
5. 1주일에 3-4번	51	17.7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		
1. 안할 것이다	171	61.1
2. 모르겠다	79	28.2
3. 할 것이다	30	10.7
12) 시험볼 때 컨닝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3716	63.1
2. 있다	2175	36.9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393	19.0
2. 친구(들)만 안다	1466	70.8
3. 부모님도 아신다	212	10.2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417	20.4
2. 6개월에 한두번	714	35.0
3. 한달에 한두번	487	23.9
4. 1주일에 한두번	253	12.4
5. 1주일에 3-4번	169	8.3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		
1. 안할 것이다	1111	56.0
2. 모르겠다	692	34.9
3. 할 것이다	181	9.1
13) 학교를 무단결석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5181	88.1
2. 있다	698	11.9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39	5.8
2. 친구(들)만 안다	219	32.5
3. 부모님도 아신다	416	61.7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126	19.1
2. 6개월에 한두번	184	28.0
3. 한달에 한두번	136	20.7
4. 1주일에 한두번	71	10.8
5. 1주일에 3-4번	141	21.4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		
1. 안할 것이다	373	57.8
2. 모르겠다	225	34.9

3. 할 것이다	47	7.3
14) 부모님 허락없이 밖에서 잔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842	82.2
2. 있다	1047	17.8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43	4.4
2. 친구(들)만 안다	218	22.2
3. 부모님도 아신다	721	73.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입니까		
1. 없다	117	12.0
2. 6개월에 한두번	287	29.4
3. 한달에 한두번	217	22.2
4. 1주일에 한두번	142	14.5
5. 1주일에 3-4번	214	21.9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398	41.6
2. 모르겠다	412	43.1
3. 할 것이다	147	15.4
15) 부모님께 대들거나 반항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2615	44.4
2. 있다	3278	55.6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149	4.8
2. 친구(들)만 안다	187	6.0
3. 부모님도 아신다	2771	89.2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344	11.2
2. 6개월에 한두번	776	25.2
3. 한달에 한두번	793	25.7
4. 1주일에 한두번	517	16.8
5. 1주일에 3-4번	652	21.2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1730	57.5
2. 모르겠다	1091	36.3
3. 할 것이다	187	6.2
16) 선생님께 대들거나 반항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481	76.3
2. 있다	1394	23.7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75	5.7
2. 친구(들)만 안다	774	58.4
3. 부모님도 아신다	476	35.9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207	15.8
2. 6개월에 한두번	413	31.6
3. 한달에 한두번	330	25.2
4. 1주일에 한두번	161	12.3
5. 1주일에 3-4번	198	15.1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569	44.6
2. 모르겠다	552	43.3
3. 할 것이다	155	12.1
17) 가출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437	92.3
2. 있다	454	7.7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12	2.8
2. 친구(들)만 안다	50	11.7
3. 부모님도 아신다	364	85.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22	28.6
2. 6개월에 한두번	173	40.6
3. 한달에 한두번	74	17.4
4. 1주일에 한두번	28	6.6
5. 1주일에 3-4번	29	6.8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265	65.6
2. 모르겠다	113	28.0
3. 할 것이다	26	6.4
18) 버스/지하철 등에서 이성에게 고의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746	97.6
2. 있다	144	2.4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57	42.2
2. 친구(들)만 안다	58	43.0
3. 부모님도 아신다	20	14.8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29	22.0
2. 6개월에 한두번	27	20.5
3. 한달에 한두번	32	24.2
4. 1주일에 한두번	15	11.4
5. 1주일에 3-4번	29	22.0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		
1. 안할 것이다	43	33.9
2. 모르겠다	51	40.2
3. 할 것이다	33	26.0
19) 이성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5844	99.2
2. 있다	45	0.8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7	17.9
2. 친구(들)만 안다	15	38.5
3. 부모님도 아신다	17	43.6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3	8.1
2. 6개월에 한두번	6	16.2
3. 한달에 한두번	5	13.5
4. 1주일에 한두번	4	10.8
5. 1주일에 3-4번	19	51.4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		
1. 안할 것이다	8	21.6
2. 모르겠다	11	29.7
3. 할 것이다	18	48.6
20) 이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5849	99.3
2. 있다	43	0.7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6	18.2
2. 친구(들)만 안다	13	39.4
3. 부모님도 아신다	14	42.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6	18.2
2. 6개월에 한두번	4	12.1
3. 한달에 한두번	5	15.2
4. 1주일에 한두번	2	6.1
5. 1주일에 3-4번	16	48.5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12	35.3
2. 모르겠다	6	17.6
3. 할 것이다	16	47.1
21)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090	86.4
2. 있다	801	13.6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45	5.9
2. 친구(들)만 안다	472	61.5
3. 부모님도 아신다	250	32.6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55	20.7
2. 6개월에 한두번	254	33.9
3. 한달에 한두번	176	23.5
4. 1주일에 한두번	82	10.9
5. 1주일에 3-4번	82	10.9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417	56.1
2. 모르겠다	268	36.1
3. 할 것이다	58	7.8
22) 집단 패싸움에 참여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461	92.7
2. 있다	431	7.3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32	7.8
2. 친구(들)만 안다	253	61.7
3. 부모님도 아신다	125	30.5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09	26.9
2. 6개월에 한두번	148	36.5
3. 한달에 한두번	79	19.5
4. 1주일에 한두번	31	7.7
5. 1주일에 3-4번	38	9.4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208	52.9
2. 모르겠다	159	40.5
3. 할 것이다	26	6.6
23) 백화점/가게 등 상점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5278	89.6
2. 있다	610	10.4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106	18.2
2. 친구(들)만 안다	364	62.4
3. 부모님도 아신다	113	19.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212	36.4
2. 6개월에 한두번	136	23.3
3. 한달에 한두번	104	17.8
4. 1주일에 한두번	64	11.0
5. 1주일에 3-4번	67	11.5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		
1. 안할 것이다	388	68.4
2. 모르겠다	136	24.0
3. 할 것이다	43	7.6
24)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5485	93.2
2. 있다	400	6.8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133	34.9
2. 친구(들)만 안다	171	44.9
3. 부모님도 아신다	77	20.2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140	37.2
2. 6개월에 한두번	131	34.8
3. 한달에 한두번	56	14.9
4. 1주일에 한두번	20	5.3
5. 1주일에 3-4번	29	7.7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		
1. 안할 것이다	257	69.8
2. 모르겠다	82	22.3
3. 할 것이다	29	7.9
25)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뺏은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5669	96.4
2. 있다	214	3.6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32	15.5

2. 친구(들)만 안다	136	66.0
3. 부모님도 아신다	38	18.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45	22.2
2. 6개월에 한두번	64	31.5
3. 한달에 한두번	37	18.2
4. 1주일에 한두번	20	9.9
5. 1주일에 3-4번	37	18.2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111	55.5
2. 모르겠다	62	31.0
3. 할 것이다	27	13.5
26) 학교/공공장소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151	87.5
2. 있다	733	12.5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110	15.9
2. 친구(들)만 안다	463	66.7
3. 부모님도 아신다	121	17.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51	21.7
2. 6개월에 한두번	283	40.7
3. 한달에 한두번	146	21.0
4. 1주일에 한두번	51	7.3
5. 1주일에 3-4번	64	9.2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389	57.5
2. 모르겠다	228	33.7
3. 할 것이다	59	8.7
27)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329	73.6
2. 있다	1556	26.4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104	7.0
2. 친구(들)만 안다	1057	71.5
3. 부모님도 아신다	317	21.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207	14.2

2. 6개월에 한두번	382	26.3
3. 한달에 한두번	337	23.2
4. 1주일에 한두번	213	14.6
5. 1주일에 3-4번	316	21.7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		
1. 안할 것이다	747	52.6
2. 모르겠다	549	38.6
3. 할 것이다	125	8.8
28)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복용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5815	99.0
2. 있다	60	1.0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7	15.2
2. 친구(들)만 안다	16	34.8
3. 부모님도 아신다	23	50.0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7	16.3
2. 6개월에 한두번	4	9.3
3. 한달에 한두번	7	16.3
4. 1주일에 한두번	5	11.6
5. 1주일에 3-4번	20	46.5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		
1. 안할 것이다	15	35.7
2. 모르겠다	10	23.8
3. 할 것이다	17	40.5
29) 대마초/엑스타시 등 환각성 마약을 흡입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5858	99.5
2. 있다	30	0.5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아무도 모른다	2	8.0
2. 친구(들)만 안다	5	20.0
3. 부모님도 아신다	18	72.0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		
1. 없다	1	4.3
2. 6개월에 한두번	2	8.7
3. 한달에 한두번	4	17.4
4. 1주일에 한두번	2	8.7
5. 1주일에 3-4번	14	60.9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		

1. 안할 것이다	6	25.0
2. 모르겠다	5	20.8
3. 할 것이다	13	54.2
30)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223	88.6
2. 있다	669	11.4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42	6.6
2. 친구(들)만 안다	459	72.5
3. 부모님도 아신다	132	20.9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70	26.6
2. 6개월에 한두번	240	37.6
3. 한달에 한두번	104	16.3
4. 1주일에 한두번	48	7.5
5. 1주일에 3-4번	77	12.1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355	57.2
2. 모르겠다	212	34.1
3. 할 것이다	54	8.7
31) 자살을 시도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515	93.9
2. 있다	361	6.1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188	55.6
2. 친구(들)만 안다	99	29.3
3. 부모님도 아신다	51	15.1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88	26.0
2. 6개월에 한두번	123	36.3
3. 한달에 한두번	64	18.9
4. 1주일에 한두번	28	8.3
5. 1주일에 3-4번	36	10.6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153	45.5
2. 모르겠다	147	43.8
3. 할 것이다	36	10.7

Q30

[인터넷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다음은 컴퓨터/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여러가지 행동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행동들에 대하여 아래의 <응답요령> 을 참고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요령>

- 경험이 없는 사람 A의 "1 없다"를 선택한 뒤, 아래 항목으로
- 경험이 있는 사람 A의 "2 있다"를 선택한 뒤, 오른쪽 B.C.D문항 계속 응답

1)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3017	51.2
2. 있다	2870	48.8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520	18.4
2. 친구(들)만 안다	2071	73.4
3. 부모님도 아신다	231	8.2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345	12.3
2. 6개월에 한두번	1404	50.2
3. 한달에 한두번	776	27.7
4. 1주일에 한두번	173	6.2
5. 1주일에 3-4번	101	3.6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1157	41.7
2. 모르겠다	1305	47.0
3. 할 것이다	315	11.3
2) 채팅/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시도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098	86.7
2. 있다	783	13.3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231	30.0
2. 친구(들)만 안다	493	63.9
3. 부모님도 아신다	47	6.1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21	15.9
2. 6개월에 한두번	381	50.1
3. 한달에 한두번	176	23.1
4. 1주일에 한두번	35	4.6
5. 1주일에 3-4번	48	6.3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317	42.2
2. 모르겠다	325	43.3

3. 할 것이다	109	14.5
3) 음란한 내용의 게임을 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677	79.6
2. 있다	1198	20.4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247	21.0
2. 친구(들)만 안다	878	74.7
3. 부모님도 아신다	51	4.3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81	15.5
2. 6개월에 한두번	577	49.5
3. 한달에 한두번	303	26.0
4. 1주일에 한두번	56	4.8
5. 1주일에 3-4번	48	4.1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425	37.2
2. 모르겠다	553	48.4
3. 할 것이다	164	14.4
4)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사이트를 열람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547	77.4
2. 있다	1331	22.6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251	19.3
2. 친구(들)만 안다	899	69.2
3. 부모님도 아신다	150	11.5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59	12.3
2. 6개월에 한두번	641	49.7
3. 한달에 한두번	362	28.1
4. 1주일에 한두번	73	5.7
5. 1주일에 3-4번	54	4.2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479	37.8
2. 모르겠다	615	48.5
3. 할 것이다	174	13.7
5) 채팅/게시판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3840	65.3
2. 있다	2037	34.7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473	23.9
2. 친구(들)만 안다	1381	69.9
3. 부모님도 아신다	122	6.2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223	11.3
2. 6개월에 한두번	930	47.3
3. 한달에 한두번	565	28.8
4. 1주일에 한두번	135	6.9
5. 1주일에 3-4번	112	5.7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773	40.3
2. 모르겠다	901	46.9
3. 할 것이다	246	12.8
6) 폭력적/잔혹한 내용의 게임을 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350	74.1
2. 있다	1522	25.9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188	12.7
2. 친구(들)만 안다	915	61.9
3. 부모님도 아신다	375	25.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30	8.8
2. 6개월에 한두번	511	34.7
3. 한달에 한두번	466	31.7
4. 1주일에 한두번	208	14.1
5. 1주일에 3-4번	156	10.6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378	26.1
2. 모르겠다	716	49.3
3. 할 것이다	357	24.6
7) 불법 소프트웨어를 입수하여 사용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562	77.6
2. 있다	1314	22.4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136	10.7
2. 친구(들)만 안다	688	54.3
3. 부모님도 아신다	443	35.0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10	8.8
2. 6개월에 한두번	369	29.4
3. 한달에 한두번	368	29.3
4. 1주일에 한두번	202	16.1
5. 1주일에 3-4번	207	16.5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235	19.0
2. 모르겠다	527	42.6
3. 할 것이다	475	38.4
8)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629	95.8
2. 있다	244	4.2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56	23.6
2. 친구(들)만 안다	160	67.5
3. 부모님도 아신다	21	8.9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29	12.9
2. 6개월에 한두번	90	40.2
3. 한달에 한두번	63	28.1
4. 1주일에 한두번	19	8.5
5. 1주일에 3-4번	23	10.3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74	33.0
2. 모르겠다	96	42.9
3. 할 것이다	54	24.1
9)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사용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525	77.0
2. 있다	1353	23.0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391	29.9
2. 친구(들)만 안다	820	62.7
3. 부모님도 아신다	96	7.3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170	13.1
2. 6개월에 한두번	617	47.4
3. 한달에 한두번	287	22.1

4. 1주일에 한두번	136	10.5
5. 1주일에 3-4번	91	7.0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589	46.3
2. 모르겠다	477	37.5
3. 할 것이다	206	16.2
10)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사이트를 고의로 해킹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633	96.0
2. 있다	235	4.0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74	32.5
2. 친구(들)만 안다	122	53.5
3. 부모님도 아신다	32	14.0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21	9.5
2. 6개월에 한두번	101	45.9
3. 한달에 한두번	48	21.8
4. 1주일에 한두번	19	8.6
5. 1주일에 3-4번	31	14.1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79	36.2
2. 모르겠다	85	39.0
3. 할 것이다	54	24.8
11)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758	98.0
2. 있다	118	2.0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45	39.1
2. 친구(들)만 안다	51	44.3
3. 부모님도 아신다	19	16.5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9	8.1
2. 6개월에 한두번	48	43.2
3. 한달에 한두번	29	26.1
4. 1주일에 한두번	6	5.4
5. 1주일에 3-4번	19	17.1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40	36.0
2. 모르겠다	36	32.4

3. 할 것이다	35	31.5
12) 코의로 바이러스/스팸메일(폭탄메일)을 발송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604	95.3
2. 있다	275	4.7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56	21.3
2. 친구(들)만 안다	169	64.3
3. 부모님도 아신다	38	14.4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42	16.2
2. 6개월에 한두번	114	43.8
3. 한달에 한두번	52	20.0
4. 1주일에 한두번	21	8.1
5. 1주일에 3-4번	31	11.9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112	44.4
2. 모르겠다	85	33.7
3. 할 것이다	55	21.8
13) 자살/폭탄제조 사이트 등 반사회적 사이트를 열람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5649	96.2
2. 있다	224	3.8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78	36.3
2. 친구(들)만 안다	98	45.6
3. 부모님도 아신다	39	18.1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20	9.4
2. 6개월에 한두번	112	52.8
3. 한달에 한두번	32	15.1
4. 1주일에 한두번	19	9.0
5. 1주일에 3-4번	29	13.7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안할 것이다	60	29.0
2. 모르겠다	96	46.4
3. 할 것이다	51	24.6
14)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한 경험		
A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4776	81.5
2. 있다	1084	18.5

B 친구나 부모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아무도 모른다	100	9.5
2. 친구(들)만 안다	192	18.2
3. 부모님도 아신다	762	72.3
C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로 자주했습니까?		
1. 없다	69	6.6
2. 6개월에 한두번	279	26.7
3. 한달에 한두번	266	25.4
4. 1주일에 한두번	217	20.7
5. 1주일에 3-4번	215	20.6
D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게될 것 같습니까?		
1. 안할 것이다	341	32.7
2. 모르겠다	489	46.8
3. 할 것이다	214	20.5